

WWe're

GOOD
COMMUNICATION
POLYGLOT
MAGAZINE

4力国語
LIVE情報

日本語、中国語、
英語、韓国語

WATASHITACHI
わたしたち

WO-MEN
我 們

WE

U-RI
우 리

6 月号 VOL.2
NO.12

毎月第2金曜日発売
On Sale the second Friday of the Month

We're Report

TABOO
なぜしては
いけないの？
爲什麼
絶不能幹？
Why Can't We?

왜 해서
안되는가？

定価 **350YEN**



32140040930600



These Four Numbers Add Up To Savings.

● Use our numbers for lower international telephone rates--and even greater savings on weekends, evenings, and holidays. ● Use 0041 to call worldwide from any international public telephone.

■ Example : To dial New York (212)

ITJ access number Country code Area code Local number

0 0 4 1 ▶ 1 ▶ 2 1 2 ▶ 0 0 0 - 0 0 0 0

● 電話費格外低廉, 若選擇一下星期和時間, 將更便宜。● 您更能通過公共電話(兼有國際電話的公共電話), 撥一下0041, 就能向國外掛電話。

■ 例 : 打往台北 2 時

ITJ服務號碼 國家號碼 地區號碼 對方電話號碼

0 0 4 1 ▶ 8 8 6 ▶ 2 ▶ 0 0 0 - 0 0 0 0

● 통화요금이 비교적 싸다. 요일과 시간을 택하면 더욱 싸집니다. ● 공중전화(국제겸용 공중전화)에서도 「0041」을 돌리기만하면 직접 세계로.

■ 예 : 서울(2)에 거는 법

ITJ의 액세스 번호 나라번호 지역번호 상대방 전화번호

0 0 4 1 ▶ 8 2 ▶ 2 ▶ 0 0 0 - 0 0 0 0

■ Rate ex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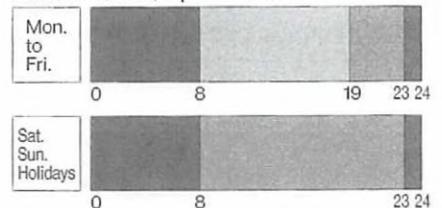
As of May 1, 1993

	Discount Rates					
	3min		10min		15min	
	0041	001	0041	001	0041	001
U.S.A Korea (Rep. of)	¥400	¥420	¥1,100	¥1,190	¥1,600	¥1,740
	\$3.54	\$3.72	\$9.73	\$10.53	\$14.16	\$15.40
Taiwan	¥430	¥440	¥1,200	¥1,210	¥1,750	¥1,760
	\$3.81	\$3.89	\$10.62	\$10.71	\$15.49	\$15.58

※\$1=¥113



■ Rate table (Japan time)



Standard Rate Economy Rate (About 20% off Standard Rate) Discount Rate (About 40% off Standard Rate)

TOLL FREE

0120-44-0041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ITJ Customer Service Center (24-hour service).



INTERNATIONAL TELECOM JAPAN



表紙の顔

1993年8月から韓国大田市で開催される大田世界博覧会のミス大田 EXPOに選ばれた3人。左から、イ・ジョンへさん、1968年生まれ、神奈川県在住、在日韓国人二世。キム・ヨンスさん、1969年生まれ、東京都在住、10歳の時渡日。ト・ソンニョンさん、1970年生まれ、埼玉県在住、在日韓国人三世。

封面人物

1993年8月於韓国大田市舉辦の大田世界博覧會中被選爲大田博覧會小姐的三人。左起李貞惠，1968年生，現住神奈川縣，在日韓国人第二代。金延修，1969年生，現住東京都，10歲時來日本。都聖蓮，1970年生，現住埼玉縣，在日韓国人第三。

Face on the Cover

The three chosen as Miss TAEJON Expo for The TAEJON World Exposition in TAEJON city.

Korea to be held from August. 1993 standing from left:

Lee Jung Hye - born 1968. Living in Kanagawa Prefecture, a Japanese-born Korean.

Kim Yung Su - born 1969. Living in Tokyo, came to Japan at the age of 10.

Do Sun Yung - born 1970. Living in Saitama Prefecture, third generation Korean.

표지의 얼굴

1993년 8월부터 한국 대전시에서 개최되는 대전세계박람회와 미스대전 EXPO에 선발된 3인.

왼쪽부터, 이정혜씨: 1968년생, 가나가와켄재주 (재일한국인 2세)
김연수씨: 1969년생, 동경도재주 (10세 때 도일) 도성연씨: 1970년생, 사이타마켄재주 (재일한국인 3세)

GOOD COMMUNICATION POLYGLOT MAGAZINE
We're

■LIVE IN

「国籍なんて関係ない。アジア人として生きたい」……謝 宗任さん 2
国籍没关系 生作亞洲人…………… 謝宗任
"Nationality Has Nothing to Do With It
I Am Simply a Citizen of Asia"…………… Mr. Tse Sonny
국적등은 상관없다. 아시아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다. … 체송너씨

■We're Report

TABOO 6
なぜしてはいけないの?
爲什麼絕不能幹
Why Can't We?
왜, 해서는 안되는가?

■MOTHER LAND

伝説がいまなお生きる、韓国・済州島 16
至今傳説不斷的韓國・濟州島
Where Legend Lives, Korea, Cheju Island
전설이 지금도 살아있는 한국의 제주도

■CULTURE SHOCK

日本の新しい笑い——吉田戦車で笑えるか 20
日本の新“笑”——吉田戦車可“笑”嗎?
Japan's New Humor
— Do Yoshida Sensha's comics make you laugh?
일본의 새로운 웃음
— 요시다 센샤의 만화를 보고 웃을 수 있을까

■POWER LANGUAGE

胸に手をあてる 24
捫心自問
"Mune ni Teo Ateru" Thinking something over carefully
 가슴에 손을 대다.

■AMUSEMENT
SHIGHTSEEING
CINEMA
BOOKREVIEW

山の手線一周の旅 28
山手綫一周即景
A Trip around the Yamanote line.
야마노테선을 타고 일주
自由とは何か——映画『サラフィナ!』
何爲自由? ——電影《薩拉菲娜!》
What is Freedom? —— The Movie, 「Sarafina!」
자유란 무엇인가 — 영화 「사라피나!」

■DISCOVERY

国境について 36
“國境”隨想
Borders
국경에 대해

□COOKING

ミャンマーの家庭料理 23

□WANTED

GIVE & TAKE / TEACH & LEARN / WORK & EMPLOYMENT 34
/ HEART TO HEART

在住する外国人にインタビューし、その横顔にせまる。今月は、14歳のときに来日した香港人、謝宗任さん。今年、日本の会社の新入社員になったばかりだ。

採訪住在日本的外國人，了解他們的身世，本月的採訪對象是14歲就來到日本的香港人，謝宗任。今年剛剛進入日本公司參加工作。

We're takes pleasure in interviewing and offering close-up profiles of the foreign residents of Japan.

This month features Mr. Sonny Tse, who came to Japan from Hong Kong when he was 14 years old and is now employed at a Japanese company.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인터뷰, 그 숨겨진 얼굴들을 헤쳐본다. 이번 달은 14살에 내일한 홍콩인, 체 송니씨, 올해, 일본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国籍なんて関係ない アジア人として生きたい	国籍没关系 生作亞洲人	Nationality Has Nothing to Do With It I Am Simply a Citizen of Asia	국적등 상관없이 아시아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
<p>きっかけは、We'reのとじ込みはがきだった。投書してくれたのは、謝宗任という香港国籍の専門学校生。はがきに書いてある日本語がすぶるうまい。この人はどんな人だろう。そう思って連絡をとったのが彼と会うはじまりだった。</p> <p>謝くんは、いまから8年前、14歳のときに父の転勤で香港からやってきた。どうりで日本語がうまかったわけだ。</p> <p>「たくさん外国からの留学生のように、日本にあこがれてきたわけではなかったし、目的があったわけでもなかった」。父の仕事で無理矢理に連れてこられたニッポン。14歳の少年には、当時香港でも大人気と呼んでいた中森明菜やマチャ（近藤正彦）が住む土地、ぐらゐの認識しかなかった。</p> <p>都内の中華学校に1年通った後、1年遅れて、区立の中学2年生に編入した彼は、日本語も何もわからないまま、日本の学校生活をスタートさせた。ある日、友だちからいきなり「あした中間試験だよ」といわれ、びっくりした。それほど何もわからなかった。いちばん最初に覚えた日本語は「わかりません」。</p> <p>最初、同級生とは英語を使っ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ろうとしたのだが、「おまえ、ここは日本だよ。ちゃんと日本語しゃべれよ」といわれ、くやしくてそれから一切英語を使わなくなった。「そういわれてもしょうがないと思う。日本人はわざわざ日本語をしゃべれない人となつきあう必要はないわけだから」と謝くんはいう。</p> <p>「あのころの僕の生活の明かりは30ワットだった。友だちもいない。親も自分でやれという。悩みやさびしさはいったいどこに捨てればいいのかろうといつも思っていた」。</p>	<p>與謝宗任相識是通過《我們》雜誌所附的明信片。寄來的明信片日語嫻熟，署名是香港籍的專門學校學生謝宗任。這是個什麼樣的人呢？就帶着這樣的好奇心，開始了與他的聯系。</p> <p>小謝是8年前，他14歲時，與調來日本工作的父親一起從香港來的。怪不得日語這麼好。</p> <p>“我跟很多外國留學生不同，我並不是因為向往日本，也不是爲了有什麼目的而來到日本的”，小謝是讓爸爸硬拉着來到日本的。對於14歲的他來說，關於日本的知識，只不過知道是當時在香港紅極一時的中森明菜、近藤正彦居住的國家而已。</p> <p>在東京都内的中華學校上了一年以後，比別人晚一年，作爲插班生進入區立中學2年級。當時，他根本不懂日語，就開始了在日本的學校生活。有一天，同學突然告訴他“明天期中考試”，嚇了他一跳。就連這樣的事他都不知道。他最先記住的日語就是“不懂”、“不明白”。</p> <p>最初，他試圖用英語與同學交</p>	<p>It all started with a We're postcard. The sender was Sonny Tse, a Hong Kong student at a technical school here in Tokyo. He wrote to us in such excellent Japanese that we wondered, "Who is this person?" We're got in touch with him and this is what we found out.</p> <p>Eight years ago, when he was fourteen, Tse came to Japan when his father was transferred here. That explains the excellent Japanese.</p> <p>"Unlike many foreign students, I didn't come here particularly wanting to study in Japan. Nor did I have any special purpose." In fact, his father brought him here against his will. At that time, all 14-year-old Tse knew of Japan was that it was the home of Japanese pop idols Akina Nakamori and Matchi (Masahiko Kondo), who were popular in Hong Kong at the time.</p> <p>At first, Tse attended a Chinese-run junior high school for one year where he was obliged to repeat his second year of junior high. He then transferred to a Japanese school, without knowing any Japanese. One day, he was surprised to hear from a friend that there was a mid-term exam the next day. He had had no idea. Not surprisingly, the first words Tse learned in Japanese were "I don't understand."</p> <p>At first, Tse tried to communicate with his classmates in English, until he was told, "Hey, man. This is Japan. Speak Japanese." After that, although it was tough, he didn't use English. "It made sense to me," says Tse. "I mean, there's really no need for Japanese to go out of their way to hang out with someone who doesn't</p>	<p>취해 동기는 WE'RE의 철해는 엽서이다. 투서를 보내 준 체 송니라는 홍콩 국적의 전문학교 학생, 엽서에 적은 일본어가 무척이나 뛰어났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의문과 함께 연락을 해 그와 만난 것이 시작이었다.</p> <p>체씨는 지금으로부터 8년전 14살 때 아버지의 전근으로 홍콩에서 일본으로 온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일본어가 뛰어났던 것이다.</p> <p>「많은 외국인 유학생처럼 일본을 동경하여 온 것도 아닌데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전근으로 억지로 따라온 일본. 14살의 소년에게는 당시, 홍콩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던 나카모리 아키나나 마치(콘도 마사히코)가 사는 나라라는 정도 밖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p> <p>동경도 내의 화교학교를 1년 다닌 뒤에 한학년 늦게 구립중학교 2학년에 편입한 그는 일본어라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본의 학교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로부터 「내일 중간고사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제일 처음에 외운 일본어는 「모르겠습니다.」</p> <p>처음에 동급생들과 영어를 사용해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려 했지만, 「니, 여기는 일본이야! 일본말로 이야기해!」라는 말을 듣고, 분해서 그 때부터 일체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p> <p>「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이 억지로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과 사귀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라고 체씨는 말한다.</p> <p>「그 당시, 제 생활을 친구 밝기로 하자면 30와트 정도였다. 친구도 없는데 부모님도 네 힘으로 하라고 하니, 고민이나 외로움</p>



日本人と外国人の はざま

私立の高校にすすみ、卒業後大学をめざした。が、日本語が上達したからといって、わずか4年間では日本人と同じレベルに達するのはむずかしい。なかんずく、大学受験の国語の科目の中にある古文などは手も足もでない。

希望する大学に、「僕は留学生として受験することはできますか」と問い合わせてみた。答えは「無理です。あなたは中等教育も高等教育も日本でちゃんと受けている。日本人と同じ扱いになります」だった。

日本人とまったく同じ条件で受けた受験はすべて失敗。それでも大学にいて勉強したくて、浪人を選ぶ。ところが、入管にビザの申請に行ったところ、「もう20歳になるのだから、家族と一緒に日本に在る必要は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暗に浪人なんかする必要はない、香港に帰れといわれたわけだ。

「大学の窓口では、日本人扱いされた。ところが、入管では外国人扱いをされて、いったい僕はどっちなんだろうとずいぶん悩みました。けれど、いまさら香港に帰ってもまたゼロからスタートになるわけだし、なんとしても日本に残るしかなかった」。

担任の先生には「人生80年あるんだから、そう落ち込まないで」とな

流、但聽到的却是：“嘿！這兒是日本。說不了日語可不行！”他感到很不是滋味，從此就不說英語了。小謝說：“人家那麼說也沒辦法。日本人沒有必要專門和不會日語的人來往嘛。”

“那時我的生活亮度只有30瓦。朋友也沒有；父母也說讓我自己的事自己管。我總是想着如何去發散我的寂寞和煩惱。”

挾在日本人和 外國人之間

小謝上了私立高中，畢業後想進大學。日語雖說已經沒問題了，但僅用四年的時間就想達到與日本人同樣的水平是很困難的。尤其是大學考試的國語科目中的古文，簡直讓他束手無策。

他向想上的大學詢問：“可以讓我以留學生身分參加考試嗎？”回答是：“不行。你初中、高中教育都是在日本受的。得把你按日本人辦理。”

在與日本人相同的條件下參加考試，結果沒考上。可他還是要上大學，於是就想補習一年再考。沒想到在“入國管理局”申請簽證時，官員却對他說：“已經快20歲了，沒有必要和父母一塊兒待在日本了吧！”言外之意是你沒必要在日本等一年再考，回香港去吧！

小謝說：“在大學，把你當日

speak their language.”

“My life at that time was pretty dim, say 30 watts. I had no friends. My parents left me to fend for myself. I had no idea how to handle my problems and being lonely.”

Neither Japanese, Nor Gaijin

Tse went on to a private high school and, after graduating, began to think about college. But after only four years in Japan, competing with native Japanese would be difficult, especially on the Japanese classics portion of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When Tse asked his top-choice schools if he could take the examination for foreign students, the answer was, “No, you’ve gone to Japanese junior and high schools. You will be treated as a Japanese.”

Tse was not able to pass the Japanese tests. Still wanting to go on to university, he chose to be a *ronin* and take the tests again the next year. However, when he went to the immigration office to apply for a visa, the official told him, “Now that you’re 20, there’s no need for you to stay here in Japan with your family, is there?” implying that instead of becoming a *ronin*, he should go back

을 도대체 어디에 가서 풀어야 할까하고 매일 생각했었습니다.”

일본인과 외국인의 사이에서

사립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졸업 후 대학을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일본어가 능숙해졌다고 해도 불과 4년만에 일본인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입학시험의 국어 과목에 있는 고문등에는 끔찍할 수가 없었다.

희망하는 대학에「저는 유학생 자격으로 수험을 치를 수 없는지요?」라고 문의해 보았다. 답은「안됩니다. 당신은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일본에서 정식으로 밟았기 때문에 다른 일본인과 같은 자격으로 수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됩니다.」였다.

일본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치른 시험은 모두가 실패. 그래도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재수를 택했다. 그러나, 입국관리국에 비자 신청을 하러 갔더니,「이제 20살이 되었으니 가족과 같이 일본에 있을 필요없지 않아요.」라고 했다. 한마디로 재수같은 것 할 필요없다. 홍콩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였다.

「대학교에서는 일본인 취급을 당하고, 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당한 나는 도대체, 어느 쪽인 것일까? 꽤 고민했습니



謝宗任 Tse Sonny

1970年香港生まれ。1984年、父の仕事の都合で、父、母、兄、弟の家族5人で来日。1年間、東京中華学校に通った後、都内の区立中学に編入。今年の春、都内の専門学校を卒業し、日本の会社に勤める。チャゲ&飛鳥の歌が好き。

1970年生於香港。1984年，因父親工作關係，與父母兄弟全家五口人來到日本。在東京的中華學校上了一年學後，插班進入區立中學。今春畢業於都內的專門學校，進日本的公司工作。喜愛查哥和飛鳥的詩歌。

Born in 1970 in Hong Kong. In 1984, his father was transferred, and Tse came to Japan together with his father, mother, and older and younger brothers. After attending a Chinese-run junior high school in Tokyo, he transferred to a Japanese school run by the ward. In the spring of this year, he graduated from a technical school and entered a Japanese company. Tse is a fan of Chage & Aska.

1970년 홍콩 태생. 1984년 아버지의 일 때문에 부모님과 형, 동생 가족 5명 모두 함께 내일, 1년간 동경에 있는 화교학교에 다닌 뒤, 도내 구립중학으로 편입. 올봄, 도내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회사에 입사. 차게 & 아스카의 노래를 좋아함.

くさめられたが、「科学者はそういう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僕が80年生きて誰が保証してくれますか?」とくっつかかった。

悩んだ末、結局、興味のあるコンピュータグラフィックスの専門学校に入学する。「自分の人生が、大学に行かないと実現できないものとは思わなくなったから」という。

「中学・高校と、いつも先が真っ暗だった。でもいまは、落ち込んだダメなときこそ自分の力をためるときなんだ、とやっと思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若者へのチャンスが 与えられないニッポン

謝くんは「日本の社会は若い人の活躍場所が少ない」と感じる。実力があっても若いというだけで、大人は信用しない。銀行もお金を貸さない。若者に投資はしない。アメリカにはアメリカンドリームがあるけれど、ジャパニーズドリームはないとまで彼はいいきる。「安定ももちろん求めますが、若いときはそれだけじゃない。若さというのは、夢を実現しようというエネルギーをも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のです」。そのエネルギーをためす場所も機会も、日本では与えられにくい。

そのため、「将来は香港に帰って、自分の会社を作りたい」という。「香港人だから故郷に帰りたいというのではなく、自分のやりたことがどこでやりやすいかを考えるとき、それは日本ではなくて香港だと思っているから」。

香港では、サラリーマン生活を送りながら、サイドビジネスに手を出すのは当たり前のことのように。サイドビジネスとはいかなくても、昼間働き、夜はビジネス学校に通い、資格をたくさんとり、ステップアップのための転職を重ねていく。アメリカに似ている。本業だけしかやっていない人は、

本人處理; 可到了‘入管’, 又把你歸為外國人。到底我算什麼人呢? 真讓人煩惱。可是, 現在回香港的話, 就只得從零開始。除了留在日本, 別無他路。”

班主任安慰我: “人生八十年, 別那麼灰心喪氣!” 我却爭辯道: “如果是科學家可能可以這麼說, 可誰能保證我能活八十年?”

苦慮之後, 他進了自己感興趣的電腦圖像專門學校。他說: “因為, 我不認為不進大學就實現不了自己的人生理想。”

“我在初中、高中時, 一直感到前途渺茫。但是現在, 總算想明白了, 越是走投無路的時候, 就越能鍛煉自己能力的時候。”

日本不給年 輕人機會

小謝感到「日本的社會中年輕人能顯身手的地方很少」。即使你有能力, 但是因為你年輕, 上了年紀的人就不相信你。銀行也不貸款給你。他們不為「年輕」投資。在美國有所謂的「美國夢」, 但小謝斷言, 在日本就不會有「日本夢」。他說: “當然需要安定; 但是年輕的時候, 光求安定不行。所謂年輕, 就是有朝氣、有能量, 要實現自己的理想。”但在日本却很難給你施展能力的場所和機會。

因此, “將來要回到香港, 自己辦公司”, 他說: “並不是因為我是香港人想回故鄉, 而是考慮到自己的計劃在什麼地方容易實現, 我認爲那不是在日本, 而是在香港。”

在香港, 一邊掙工資, 一邊做買賣搞副業, 是理所當然的。即使不幹副業的人, 也是白天工作, 晚上到商業學校學習。這樣就可以取得各種資格, 一步一步地尋找更好的工作。在這一點上與美國相似。只幹本職工作的人反而被人看作無能。真是地方不同, 人的想法也如此也不同意!

但小謝對香港將於一九九七年

to Hong Kong.

“So, trying to go to college. I was treated like a Japanese. Then when I went to immigration. I was treated like a foreigner. Which was I? was the question that troubled me. On the other hand, if I went back to Hong Kong, I would have to start over from zero. I felt I had no choice but to stay in Japan.”

One of his teachers consoled him, saying, “Humans live to be 80 years old. Don’t be discouraged.” But Tse was not satisfied with that. “That might be what scientists say, but who’s going to guarantee that I’ll live to be 80?” he retorted.

After much agonizing, Tse decided to go to a technical school for computer graphics, one of his interests. “I thought, just because you can’t go to university doesn’t mean you can’t realize your dreams.” he says.

“Throughout junior high and high school, my future was always dark. But now I’ve finally realized that when I’m most discouraged, that’s the time to test myself.”

No Chance to the Young

Tse feels that “there are very few Japanese companies that allow young people to be active. Even those with proven ability, because they are young, are not trusted by adults. Banks won’t lend money to them; they don’t invest in youth.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the American dream, but I can’t say that I believe there is a ‘Japanese dream.’ Stability is important, of course, but when you’re young you need more. Being young means having the energy to realize your dreams.” Opportunities to test that energy are difficult to find in Japan.

That is the reason Tse plans to go back to Hong Kong and start his own company. “Not that I want to go back to my homeland so much, but when I think about where it would be easiest to do what I want to do, it’s Hong Kong, not Japan.”

In Hong Kong, it is common, apparently, to run a side business while living the life of a salaryman. If not a side business, then it’s business school in the evening to earn the degrees or qualifications that will raise your salary. It’s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People who have only

다. 그렇다고 이 상태로 홍콩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일본에 남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인생 80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기 죽지 말아!」라는 위로를 받았지만,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80살까지 살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해 줍니까?」라고 반문을 했다고 한다.

고민한 끝에 결국, 그는 흥미가 있던 컴퓨터 그래픽 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자신의 인생이 대학에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라고 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언제나 앞이 캄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포기하고 싶을 때일수록 자신의 힘을 시험할 때이라고 간신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찬스가 주어지지 않는 일본

세씨는 「일본의 사회는 젊은이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곳이 적다」라고 느끼고 있다. 실력이 있어도 아직 젊다는 이유만으로 신용하지 않는다. 은행도 돈을 융자해 주지 않는다. 젊음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지만, 「저패니즈 드림」이라는 것은 없다고까지 그는 이야기를 한다. 「안정도 물론 추구해야 하지만 젊었을 때에는 그것 만이 전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다는 것은 꿈을 실현하려 하는 에너기도 있다는 것입니다.」그 에너지를 시험해 볼 곳도, 기회도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때문에 「장래에는 홍콩으로 돌아가 자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한다. 「홍콩사람이기 때문에 홍콩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했을 때, 바로 그 곳은 일본이 아니고 홍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에서는 셀러리맨 생활을 하면서, 사이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되어 있다. 사이드 비즈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비즈니스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자격을 따, 자기 발전을 위해 여러직업등을 통해 경험을 쌓아간다. 미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본업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무



逆に無能な人だと思われるというのだから、所違えば、考え方もこうも違うのかとあらためて思い知った。

でも97年の中国返還は気にならないのか。

「僕は楽観的です。金の卵を生むニワトリを、殺したりはしないでしょう」。

日本は僕の青春だ

今年の3月、専門学校を卒業し、旅行用品会社に就職が決まった。昨年の5月から29社まわって合格した3社のなかから今の会社を選んだ。やはり外国人であるということ、日本に定住できるかということが最大のネックになった。

同じ専門学校には多くの留学生が通っていたが、たいいていの人には就職が決まらず、帰国を余儀なくされたらしい。

「でも日本人だってきびしいんですから。外国人がもっときびしくなるのはあたりまえでしょう。淡々という。

先日、久しぶりに数人の高校時代のクラスメイトに出会った。その席で雄弁に話す謝くん姿を見て、友人が「おまえ、明るくなったなあ」とつぶやいた。

「やっとな100ワットの明るさになったんですよ」と謝くんは笑った。

「日本は僕の青春なんですから」という謝くん。日本の発想と中国的な発想の両方を持つ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よかったという。香港を外からの視点でみることができ、日本に対してもまた外からの視点をもちうるができる。そのメリットをおおいに生かそうとしている。「どこの国籍でもいいんです。僕はアジア人だと自分で思っている」。

日本人と同じだといわれた大学の窓口の人、20歳になったから香港に帰ればといった入管の人。外国人はアルバイトお断りといった雇い主たち。「でもそんなことをいうのはみんなおじさん、おばさんの世代の人たち。いまの若い人たちの時代がくれば、きっと日本はもっと変わると思う。僕は若い世代の日本人に期待しているんです。明治維新がそうだったように、いつの時代も、変革は若者からですから」。ここにもまた大きなパワーを胸の内に秘めたアジア人がひとりいる。

返還中国難道不担心嗎？

“我對這個問題是樂觀的。誰也不會把下金蛋的鵝殺掉吧！”

日本是我的青春

小謝於今年三月從專門學校畢業，決定在一家旅行用品公司工作。他從去年五月開始，走訪了29家公司，其中有3家考試合格，他從中選擇了這家公司。因為他是外國人，能否在日本居住下去是考試中最大的難題。

在同一所專門學校裏，有很多留學生。他們往往找不到工作而只好回國。

“目前，日本人找工作都很困難，對外國人來說，當然就更困難了”，小謝淡淡地說。

前些日子，與幾個久別的高中同學聚會。席間，看到小謝侃侃而談的樣子，朋友不禁喃喃道：“你可變開朗了！”

小謝笑着說：“我總算有100瓦的亮度了！”

“日本是我的青春嘛”，小謝說。能具有日本和中國兩方面考慮問題的方法是一種優勢。可以從香港以外的角度來看待香港；也可以從日本以外的角度來看待日本。這就會帶來很大的好處。“是什麼國籍都沒關係，我把自已當作亞洲人。”

說他和日本人一樣的大學的接待人員也好，因為到了20歲讓他回香港的“入管”官員也好，還有拒絕雇用外國人打零工的雇主也好，對於這些人，小謝認為：“他們都已是老大爺、老大媽了。等到了現在的年輕人成氣候的時候，我想，日本一定會大有變化的。明治維新時期也是這樣，不管在什麼時代，變革都是從年輕人開始的。”又是一位雄心大志的亞洲人。



one job are considered inferior, which just goes to show that attitudes and thinking change from place to place. But aren't you concerned about 1997, when Hong Kong will revert to Chinese rule?

"I am an optimist," says Tse. "Surely they won't kill the goose that lays the golden eggs."

Japan Is My Youth

In March of this year, Tse graduated from the technical school and was hired by a travel products company which he chose from among three offers. (During his job search, which began last May, he applied to 29 companies.) The fact that he is a foreigner was an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at he could stay for a while in Japan.

There were a lot of foreign exchange students at his school, but most of them weren't able to find work and went back home.

"But the Japanese are strict. It's only natural that foreigners are even more so," he says philosophically.

The other day,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Tse got together with friends from high school. Hearing the articulate Tse, his friends told him, "Hey, you're a lot more outgoing now."

"Yeah," laughs Tse. "I'm finally burning at 100 watts."

"Japan is the home of my adolescence," says Tse, and he is glad that he is able to have both Japanese and Chinese inspiration. He can take an objective view of life in both Hong Kong and Japan and is trying to make the most of the merits of each. "It doesn't matter what nationality I am. I think of myself as a citizen of Asia."

"You'll be treated like a Japanese," said the university official. "Now that you're 20, why not go back to Hong Kong?" said the immigration office. "Sorry, we don't hire foreigners," said part-time employers. "But the people who said that were all ojisan from the older generation. When the present generation comes into power, I think Japan will be a different place. I have great expectations for the young generation of Japanese. The Meiji rising was like that; no matter the period, the young lead the revolutions." Here is an Asian with spirit.

능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면, 있는 곳이 틀려지면, 생각도 바뀌어진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러면 97년 홍콩의 중국반환이 걱정되지 않는가라고 물었더니 「저는 낙천적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거나 하지는 않겠지요.」라고 했다.

일본은 나의 청춘시절

올해 3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여행용품 회사에 입사가 정해졌다. 작년 5월부터 29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입사 합격한 3개 회사 중에서 지금의 회사를 선택했다. 역시,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일본에 정주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애로점이었다.

같은 전문학교에 많은 유학생이 있었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취직이 정해지지 않아, 귀국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일본 인조차 어려울 때이므로, 외국인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답답하게 이야기한다.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을 몇명 만났다.

그 자리에서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체군의 모습을 보고 한 친구가 「너, 꽤 명랑해졌는데……」라고 중얼중얼했다고 한다.

「겨우 100와트의 밝기로 되었습시다.」라고 체군은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일본은 제 청춘시절이에요」라고 하는 체군. 일본의 발상과 중국적인 발상을 양쪽 다 갖출 수 있게 되어 잘 되었다고 한다. 홍콩을 바깥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다, 일본에 대해서도 외부인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메리트를 활용해 나가려 하고 있다. 「어느 국적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같다고 말한 대학 창구의 담당자, 20살이 되었으니 홍콩으로 돌아가라고 한 입국관리국의 담당자, 외국인인 아르바이트 거절이라고 한 가게주인들, 「그래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줌마, 아저씨의 기성세대입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의 세대가 오면 물림없이 일본은 더욱더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세대의 일본인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치유신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시대 속의 변혁은 젊은이들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큰 힘을 가슴 속 깊이 숨겨 두고 있는 또 다른 한 명의 아시아인이 있다.

TABOO

タブー (禁忌) とは?

タブーという言葉は、ポリネシアのトンガ島で使われていたTABU, TAPUが始まりで、それをキャプテンクックが西歐社会に伝えたともいわれている。

所謂禁忌

據說，禁忌的發音“塔步”，起源於波利尼西亞的湯加島上的“TABU”、“TAPU”，通過船長庫克帶到西歐社會的。

What's Taboo?

The word taboo comes to us from the word tabu or tapu which was used on the Polynesian island of Tonga. It is said to have been introduced to the west by Captain James Cook.

터부(금기)라는것은?

터부라는 말은 폴리네시아의 통가섬에서 사용하고 있는「TABU, TAPU」가 어원으로 그것을 캡틴 쿡가 서구사회에 전했다고도 한다.

「なぜしてはいけないの？」

爲什麼絕不能幹?

Why can't we?

「왜 해서는 안되는가?」

ある国では当たり前やしきたりやマナーが別の国ではまったく通用しないということが多々ある。“やってはいけないこと”を知らないがゆえに失敗やら失礼なことをしてかしてしまう。また、“なぜしてはいけないの?”と、よその国にいけば不思議に思うこともよくある。

そこでWe'reでは日本のしきたりやマナー、そしてタブーを中心に、どんな場面でどんなことをしてはいけないのか。それはなぜ?そして外国ではどうか?をWe're読者を中心にきいてみた。もちろんここにあげた各国のしきたりはすべてではないし、たとえ同じ国でも民族や宗教、あるいは地方によって異なることも多いことを了承しておいてほしい。

在一個國家是理所當然的慣例或禮節，在另一個國家却完全行不通的例子，不勝枚舉。往往因爲不知道，而幹了“絕不能幹”的事，造成失敗或失禮。到別的國家去，往往會碰到很多不可思議的不能幹的事情。爲什麼“絕不能幹”呢?

《我們》雜誌向讀者詢問了有關日本的慣例、禮節，以及禁忌的問題。在什麼場合，什麼事絕不能幹?爲什麼不能幹?在外國又是如何呢?當然，下面所列舉的各國的慣例，並非全部；而且，即使是同一個國家，也往往因民族、宗教、地方而異。請讀者諒解。

There are many instances where a custom or manner that is considered proper in one country is totally unacceptable in another. Not knowing the customs of a country can lead to mistakes and embarrassment. When traveling abroad we often wonder why something is considered rude or improper.

That is why We're has decided to take a look at Japanese customs and manners. In what situations are certain actions considered impolite? Why? We have also asked our readers about their countries. Keep in mind that the customs listed here are just a glimpse of that country. Even

in the same country customs and manners differ depending on the area of the country covered or the ethnic background or religion of the people discussed.

어떤 나라에서는 당연히 행하여지는 관례나 매너가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해서는 안되는 일”을 모름으로 해서 곤란한 경우를 당하거나, 실례가 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또, “왜 해서는 안되는가?”라고 타국에 가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경우도 많다.

저희 WE'RE에서는 일본의 습관, 매너 그리고, 터부시 되는 것을 중심으로 어떤 때, 어떤 일을 해서는 안되는지 그 이유와 외국에서는 어떤지에 대해 WE'RE 독자를 중심으로 들여 보았다. 물론, 여기서 든 예들이 각 나라들의 습관이나 관례의 전부가 아님을 미리 이해를 구하는 바이며, 예를 들어 같은 나라라도 민족이나 종교, 지방에 따라 다를 경우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TABOO

箸のマナーはきびしい日本

ある中国人男性が、日本人宅に招かれた。二人ともいい気分にはんわり酔っ払ってきたとき、日本人が酒のグラスを横に倒したので、招かれた中国人はびっくり。中国ではグラスを倒すというのは、怒っている、不機嫌だの意思表示であり、相手にはとても失礼な行為にあたるからだ。

もちろん日本人にはそんな気はさらさらしない。グラスを倒したのは、もうお酒はいらぬよという簡単な合図なのだ。

「食は文化なり」といわれるように、食事の場面でのマナーは、世界各国でずいぶん違うようだ。日本の場合、箸についてのマナーはきびしい。どの料理を食べようかなど、箸を持ったままあれこれ迷うのは、迷い箸。箸から箸へ料理を受け渡すのはわたし箸。日本ではいずれもとても行儀が悪いと嫌われる。特に、わたし箸はなぜ嫌がられるかということ、火葬場でのお骨拾いと同じ形になるからだ。知らない人同士が集まるフォーマルな場では特に嫌がられるので要注意だ。

お隣り韓国では、儒教の精神からか、目上、目下の礼節を重んじる。目上の人から注がれたお酒は一気に飲みほすのが礼儀。しかも目上の人前で堂々と飲んではいけぬ。顔を横に向けて、目を合わせないようにクイッと飲みほす。

また女性が、夫でもない男性のお酌をするのは、商売女のように嫌がられる。日本ではよく気がつく女性だねえと逆にほめられる。なんともいやはや。

中国では、とにかく酔って人前で醜態を見せるのはとても失礼な

對筷子禮節要求很嚴的日本

有位中國人男性，被請到日本人家裏吃飯。兩個人喝得酒酣耳熱之時，日本人把酒杯放倒了，嚇了那中國人一跳。因為，在中國，放倒酒杯是發怒、不高興的表示，是很失禮的行為。

當然，這日本人却一點兒也沒什麼。放倒酒杯，只不過是不再要酒的表示而已。

“食者文化也”。吃飯時的禮節，世界各國所差甚遠。在日本，關於筷子的禮節很嚴格。伸出筷子，不知挾什麼菜好，被叫作“舉筷不定”；用筷子和筷子選菜的，叫作“交筷”。在日本，這都是令人討厭的不禮貌舉動。尤其是後者更讓人不快。因為這與在火葬場收斂骨灰的作法相似。在相互不那麼熟的人的正式聚會上，特別忌諱這種舉動，需要注意。

在鄰國韓國，因受儒教的影響，很重視上下尊卑的禮節。由上司、長輩給斟的酒，從禮貌上講，必須一次喝乾。而且不能在上司、長輩的面前，大模大樣地喝，必須把臉轉過一邊，把目光避開，然後一氣喝乾。

還有，女性給自己丈夫以外的男人斟酒，會被看成是陪酒女而被看不起。但在日本却會因懂得周旋而被誇獎。這種差別，真讓人吃驚。

在中國，在人前喝醉，現出丑態，是非常失禮的。特別是對女性嘻皮笑臉、動手動腳的，就一定會被人看不起，成爲不受歡迎的人。在酒席上可以放肆，對醉鬼寬容的

Troublesome Chopstick Etiquette in Japan

A Chinese man was invited to a Japanese acquaintance's house. After several drinks, when both of them were feeling a little tipsy, the Japanese acquaintance turned his glass upside down. The Chinese man seeing this was taken aback. In China turning over one's glass is a sign that you are angry or displeased. It is extremely rude to the others drinking with you. Of course, the Japanese man had no such intention. In Japan turning one's glass upside down indicates that you are finished drinking.

Eating is culture. In every country around the world dining etiquette differs greatly. In Japan etiquette dealing with the use of chopsticks is particularly troublesome. Waving your chopsticks aimlessly over the food trying to decide what to eat is called mayoibashi. Passing food from one set of chopsticks to another is watashibashi. Both of these are considered rude. Watashibashi is especially disliked because it resembles the manner in which Japanese pick up the remains of family members at crematoriums. It is particularly rude to do this at formal gatherings of people who are not well acquainted. Take heed.

In Korea, probably due to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 great deal of importance is placed on etiquette between seniors and juniors. Downing in one gulp all of a drink received from a superior is considered polite. Moreover, when drinking with a superior, etiquette calls for the junior to turn his head to the side and avert his eyes. Also, a Korean woman is not expected to pour drinks for men other than her husband as this resembles something a hostess would do. A Japanese woman doing this would be praised

젓가락매너가 엄한 일본

어떤 중국인 남성이 일본인 집에서 초대되어 있을 때의 일이다. 두사람 모두 기분 좋게 적당히 취했을 때 갑자기 일본사람이 술잔을 뒤집었다. 초대받은 중국사람은 깜짝 놀랐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중국에서는 술자리에서 술잔을 뒤집는 것은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몹시 좋지 않다는 의사표시로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실례가 되는 행위인 것이다.

물론, 일본사람에게 그런 뜻은 전혀 없었다. 단지, 술잔을 엮은 것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간단한 신호였던 것이다.

「식생활도 하나의 문화」라고 말하는 것처럼 식사할 때의 매너는 세계 각국이 서로 틀린 것이 많다. 일본의 경우는 젓가락에 대한 매너가 엄격하다. 어떤 요리를 먹을까하고 젓가락을 든 채 이것저것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마요이바시」라고 하며, 젓가락으로 음식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와타시바시」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이런 행위가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일로서 좋지 않다. 특히, 「와타시바시」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화장장에서 뼈를 주어 담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 모이는 자리에서는 특히 좋지 않게 생각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웃 나라 한국에서는 유교정신 때문인지 윗사람에 대한 예절이 엄격하다. 윗사람으로부터 받은 술잔은 바로 그 자리에서 들이키는 것이 예의. 그것도 윗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마시지는 안된다.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해서 술잔을 비워야 한다.

중국에서는 무엇보다 술 취해서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보이는 것이 가장 실례되는 일이다. 특히, 여성에게 술 취한 채, 술쩍 몸이

TABOO



こと。特に女性に対して、いい気分です。馴れ馴れしく身体でも触ろうものなら、その席から冷たい目で見られ、仲間はずれにされること間違いなし。お酒の席では無礼講と、酔っ払いのマナーに寛容なのは日本ぐらいかもしれない。

また、これはよくいわれることだが、出されたものを全部食べると、次から次へと出される。まだまだ食べ足りないと思われるからだ。

また、茶碗を持って食べるのが礼儀か、持たないのが礼儀か、これは日韓ではまったく逆。韓国では茶碗を置いたまま、スプーンや箸を使って口に運ぶのに対し、日本ではその行為は行儀が悪いとされる。

友引の日には 葬式はやらない

これまた中国人の話だが、日本人の友人の結婚披露宴の招待状を受け取って目を疑った。白色に金色の縁取り。まるで、この色は結婚式というよりむしろお葬式の色ではないかと思ったのだ。

中国では、結婚の招待状はたいして赤か、さもなければ明るい暖色系の封筒を使う。白は決して使わない。結婚式のお祝いには高額のお金を包ま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この赤い招待状が手元に届くと、「赤い爆弾が届いた」と苦笑交じりにこぼす。「やれやれまた金が出ていくのか〜」、そんな溜息が聞こえてきそうだ。

一方、葬式についてはどうか。日本の葬式はまったくややかしい。日本人でも戸惑う人はたくさんいる。列席する場合は、年配の人と同じようにやっていたらまあまちがいないといえる。

大概只有日本。

另外，經常聽說，如果把端出來的東西都吃光的話，就會在接着端上來。因為主人以為你還沒吃飽。

還有，吃飯時把碗拿起來，是否合禮儀這一點，日韓之間又是正相反。在韓國，端碗吃飯會被人看成身分低。但對於不端着碗，用勺或筷子把飯送到嘴裏的行為，在日本却被看成是沒禮貌的。

婚喪嫁娶の場合

這也是聽中國人說的。他接到日本朋友的參加婚禮的邀請信一看，竟懷疑自己的眼睛有毛病。白色鑲金邊，說這顏色是為了婚禮，還不如說是葬禮。

在中國，婚禮邀請信的信封大多用紅色的，即使不用紅的，也是亮的暖色調的。絕對不使用白信封。但因為祝賀結婚要送很多錢，所以，當接到紅的邀請信時，往往苦笑著說：“又送紅炸彈來了。”也可以聽到“唉，又得出錢了……”

那葬禮又如何呢？

日本的葬禮真可謂複雜。連很多日本人都不知如何是好。但參加時，只要跟年紀大的人一樣做就基本上不會錯。

順便談一下陰陽五行。在日本每天都有大安、佛滅、先勝、先負、友引、赤口等說法，已決定那一天的凶吉。雖然是一種迷信，但一般認為最好不要在“友引”的日子裏舉行葬禮。因為犯朋友被拉走的忌諱。

在中國，年過古稀的老人故去時，要分發紅餅。與其說是悲傷，

for thoughtfulness! What can you say!

In China acting disgracefully in front of others when drunk is considered churlish behavior. If someone, after a few drinks, became too familiar with and started touching the women near him, he would no doubt be stared at coldly and given the cold shoulder by his friends. There is probably no other country that is as relaxed with and forgiving of drunken behavior as Japan.

Another custom that one often hears is that if you eat all of the food put on your plate, the host will think you haven't had enough and therefore keep serving you. In Japan when eating rice it is considered polite to pick up the bowl and hold it near one's mouth. The opposite is true in Korea. Only a person of low birth would pick up the bowl, so the proper way to eat is to leave the bowl on the table and pick up the rice with chopsticks or a spoon. Japanese would consider eating in this fashion ill-mannered.

Funeral Shouldn't be held on Tomobikidays

A Chinese man received an invitation to a Japanese friend's wedding reception and couldn't believe his eyes. The invitation was white with gold trim. He thought the colors were more suitable for a funeral rather than a happy event like a wedding. In China envelopes used for wedding invitations are usually red or some other bright color. White is never used. When invited to a wedding, it is customary to wrap a large amount of money as a gift. When these red invitations arrive, the Chinese no doubt wryly comment, "Uh oh, another red bomb's arrived." "Oh great, there goes more money." "I can almost hear their sighs."

라도 만지려한 다가는 그 자리에서 차가운 눈초리와 함께 친구들로부터 절교당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술자리에서 술 취한 이의 무례한 말이나 예절에 대해 관용한 나라는 일본뿐 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차린 음식을 남기지 않고 전부 먹으면, 계속해서 음식이 나온다. 왜냐하면, 아직도 배가 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것이 예의일까, 놓고 먹는 것이 예의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일간이 전혀 반대이다. 한국에서는 밥그릇을 들고 먹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 하여, 밥그릇을 놓은 채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 식사를 하는 것이 예의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그런 행위는 버릇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

우인(友引)에는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

다시 중국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보자. 그는 일본인 친구의 결혼 피로연의 초대장을 받고 눈이 등그래졌다. 흰색 바탕에 금색의 테두리를 한 초대장. 그는 이 색깔을 보고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이 아닌가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결혼 초대장에는 대개 빨간 색이나 밝은 계통의 색을 봉투로 사용한다. 흰색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결혼식의 축하금으로 고액의 돈을 부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빨간색의 초대장이 오면 「빨간 폭탄이 왔다」라고 씩씩한 웃음을 진다고 한다. 「아이고, 또 돈이 나가구나~」 그런 한숨섞인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한편, 장례식은 과연 어떨까. 일본의 장례식은 무척 까다롭다. 일본인조차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다.



TABOO

ちなみに陰陽道いんやうどうといって、日本には毎日、大安や仏滅、先勝、先負、友引、赤口といった日があり、その日の吉凶を決める。俗信だが、そのなかの友引の日には葬式をやらない方がいいとよくいわれる。友を引くといって忌み嫌うからだ。

中国では、古希(70歳)をすでに迎えている年寄りが亡くなった場合には、赤い餅を配ったりして、悲しみというより祝いの意味合いが強くなる。「ここまで長生きしておめでたい。ごくろうさま。みんなで祝って送ってやろう」。さながらそんな感じだろう。

土俵、漁船... いまだに残る女性へのタブー

性についてはしきたりや習慣というよりも、穢れに対するのタブー的な意味合いが強い。

日本の場合、特に女性に対してのタブーがいまだに残っている。

たとえば、土俵に女はあがれない。甲子園の野球のベンチに女性のマネージャーは入れない。漁船に女は乗ってはいけない。これは、生理をもつ女性には穢れがあることを意味する。

これらの女性へのタブーはアジア諸国にまだまだ色濃く残っているようだ。韓国でも漁船に女は乗れない。タイの、かつて象を飼育する村では、象狩で使われるロープに決して女は触ってはならなかった。触るとその狩りは不順になると信じられているからだ。

ミャンマーでは、女性の洗濯もの下をくぐってはならない。

不如說慶祝の意味更强。好像是“祝您如此長壽。辛苦了。大家送您一程吧”的意思。

性別

關於性別，與其說是慣例、習慣，還不如說忌諱污濁の意味更强。

尤其在日本，還殘留着不少對女人的忌諱。

比如，女人不能上土俵；甲子園の棒球的運動員席不讓女幹事進；女人不能上漁船等等。這意味着女性有月經而是污穢的。

這類對女性的禁忌，在亞洲各國還殘留着很多。在韓國也不許女人上漁船。在泰國，以前在飼養象的村子裏，去獵象以前，獵象用的繩子絕不能讓女人碰，因為他們相信，如果女人碰過了，就會獵不到象。

在緬甸，不能從晾曬的女人衣服下鑽過。這也是因為女性的內衣，引申一下，是因為女性有月經被認為不淨而產生的習慣。

在中國，產婦生產後的一個月內，男人不能進產婦的房間，否則，就會遇到不幸。與此相似，在日本，女人產後的數日也被稱為“忌諱期”，這時去參拜神社、佛龕都是不行的；另外，有的老人還在認為，女人在月經期是不能參拜神社和佛龕的。

在美國女性看來，在美國就沒有這麼多事。在日本，婦女爭取人權、女權的運動逐漸高漲，意識上也逐漸起了變化。

在韓國，同族的同性男女絕不能結婚。所以，同性的獨身男女初次見面，比如兩人都姓金，在習慣

A look at funeral customs

In Japan funerals are quite complex and bewilder even many Japanese. When attending a funeral your best bet would be to follow the lead of the older people present. Incidentally, many Japanese believe in the principles of Yin and Yang. Therefore, every day in Japan is one of the following: Taian, Butsumetsu Sensho, Senbu, Tomobiki, or Shakkou. Each of these determine the fortune for that day. It is only a superstition, but it is believed better not to hold funerals on tomobiki days. The word tomobiki means "pull a friend away." It is thought that if a funeral were held on this day, shortly after someone else would die. In China when a person dies after reaching their seventieth birthday, it is customary to pass out red rice cakes and, rather than a day for mourning, it is considered in many ways to be a day for celebrating. "You've done well living this long. We'll send you off with a celebration" seems to be the reasoning behind this custom.

Dohyos and Fishing boats... for women taboos still remain

Rather than customs or conventions about sex itself, there seems to be greater concern over spiritual impurity. In Japan there remain many taboos against women. Let's look at some examples. Women are forbidden to enter sumo rings; female managers are not allowed in the dugouts at the Koshien high school baseball tournament; women are not allowed on fishing boats. These taboos seem to imply that women who menstruate have some kind of spiritual impurity. In various Asian countries there are many taboos against women that remain strong. Women are forbidden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에는 연배되는 사람을 따라하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음양도라는 것이 있어 일본에서는 매일 대안(大安)이나 불멸(佛滅), 선승(先勝), 선부(先負), 우인(友引), 적구(赤口)라고 해 그날 그날의 흥경을 정한다. 미신이기는 하나 그 중에서도 우인(友引)이라는 날은 장례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말 그대로 친구까지 끌어간다고 하여 꺼리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고회(70세)가 지난 노인이 죽었을 때에는 빨간 떡을 나누어 주는데 여기에는 슬픔보다는 축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오래 사신 것 축하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기쁘게 보내 드리자.」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씨름판, 어선...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성들의 금기사항

「성」에 관해서는 관습이나 습관이라는 것보다는 정결치 못한 것에 대한 터부적인 뜻이 강하다.

일본의 경우 특히, 여성에 대한 터부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스모」를 하는 「도호우-씨름판」에 여자가 들어가서는 안된단든지, 갑자원 야구대회시 벤치에 여성 매니저가 들어갈 수 없단든지, 어선에 여자를 태워서 안된단든지... 이것은 여성은 생리를 하므로 불결하다는 것을 뜻한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터부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아직까지 깊숙히 남아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도 어선에 여자를 태워서 안된다고 한다. 태국의 경우, 옛날부터 코끼리를 사육하는 마을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기 전에, 사냥에 사용하는 로프에 절대로 여자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 여



これもまた女性の着羞、ひいていえば生理を持つ女性を不浄のものとして考えるとところから生まれたものだという事だ。

中国では、産後1ヶ月の女性は家を出てはいけないというのもある。産婦のいる部屋に男性は入ってはいけない。入ると不幸がもたらされるといわれるのだ。これとおなじように、日本でも産後数日は「いみのうち」といって、神社仏閣にお参りに行ってはならない、あるいは生理日の女性は、神社仏閣でお参り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古い人もまだいる。

アメリカ人女性にいわせれば、そんなものはアメリカにはないという。日本でも女性の人権、権利運動が高まる中で、徐々に意識の変革が起こってきている。

また韓国では、同じ名前で同じ族譜を持つ男女は決して結婚できない。だから独身の男女が初対面で会い、同じ名前のときは、例えば金さん同士だったら、まず「どちらの金さんですか」と聞き合うのが習わしだ。

また、中国では、男女がホテルに泊まるには結婚証明書が必要だと聞いて、他国の人は一様に目を丸くしたことがある。結婚証明書がなければホテルに泊まれないのだ。つまりは結婚前の男女が一晚を過ごすのは表向きにはタブーという事だ。

タイでは、女性はお坊さんの身体には決して触ってはならないし、不用意に近づいてはならない。

また余談になるが、タイにある日本企業の日本人男性は、タイ人女性の間であまり評判がよくない。まっがんばりたまえと日本人上司が部下のタイ人女性の肩をたいたり、挨拶程度のつもりで身

上首先會問：“是那一帶的‘金’啊？”

另外，聽說在中國，男女一起住旅館得出示結婚證明書，這讓外國人瞪圓了眼睛。沒有結婚證不能住旅館。也就是說，從表面上講，男女在結婚以前是不能在一起過夜的。在泰國，女性是不能碰和尚身體的，不注意而靠近也是不行的。

也是順便說一下，泰國的日本企業中的日本男人，在泰國女性中評價很不好。因為日本人作為上司，往往拍着女性泰國人部下的肩膀要她們加勁幹；還經常以摸摸女性身體來作為打招呼的一種方式。但是，在泰國，男人隨便觸摸女性的身體是非常無禮的事情。日本男人的行為，使他們被看作非常失禮的人而成了泰國女們的“萬人嫌”。

TABOO

from boarding fishing boats in Korea also. In Thai villages that raise elephants women are forbidden to touch rope that is to be used to catch elephants during the next hunt. If it is touched by a woman, Thais believe the hunt will end in failure. In Myanmar, crossing under a woman's laundry hanging to dry is taboo. This, too, seems to originate from the idea that menstruating women are in some way impure. In China, a woman who has given birth is unable to leave her house for at least one month. Men are forbidden from entering the new mother's room. If they do, it is believed misfortune will follow. Along the same lines, in Japan the first few days after giving birth is called "iminouchi" and during this time it is taboo for the new mother to visit temples or shrines. Some old people even believe it is wrong for a menstruating woman to visit a shrine or temple.

American women say there are no taboos like these in the United States. As the movement for women's rights in Japan becomes stronger, a change in people's consciousness will occur. Bringing up Korea again, in that country it is forbidden for two people having the same family name and genealogical table to marry. Therefore, when an unmarried man and woman with the same surname meet, say, Kim for example, it is customary to ask "which Kim clan" each is from.

In China if a man and woman want to spend the night together in a hotel, a marriage certificate is required. Visitors from other countries hearing this were surprised. Without a marriage certificate you can't get a room. In Thailand it is strictly forbidden for a woman to touch a Buddhist priest or carelessly approach him. Incidentally, there was a Japanese manager working at his

자가 손을 대면 그 날의 사냥에 부정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버어마에서는 여자들의 세탁물 밑으로 지나가서는 안된다. 이것도 역시 여자들의 속옷, 부연하면 생리를 하는 여성을 부정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산후 1개월 된 여성은 의출을 해서는 안되며, 산모가 있는 방에 남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한다. 방에 들어가면 불행해 진다고 하기 때문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산후 며칠간은 「이미노우치-해산의 부정한 기간(약 40일)」라고 해,

신사나 절에 참배하러 가서는 안된다. 또, 생리일의 여성은 절이나 신사에 참배하러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다.

미국 여성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은 미국에는 없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여성들의 인권, 권리 운동의 소리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서서히 의식의 변혁이 일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동성동부의 남녀가 절대 결혼을 할 수 없다. 때문에 독신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성이 같으면, 예를 들어 같은 김씨 성을 가진 경우라면, 먼저 「어디 김씨입니까?」라고 묻는 것이 통례이다.

또, 중국에서는 남녀가 호텔에 묵을 때에는 결혼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모두들 놀랐다. 결혼증명서가 없으면 호텔에 묵을 수가 없다는 것은 결혼 전의 남녀가 하루 밤을 같이 지낸다는 것은 사실상 안된다는 말이다.

태국에서는 여성이 중의 몸을 절대로 만져서는 안되며, 조심성 없이 다가가서도 안된다.

그리고, 여담이기는 하나, 태국에 있는 일본기업의 일본인 남성들은 태국여성들 사이에서 별로 평판이 좋지 않다. 열심히 일하러

TABOO

体に触れることがよくあるらしいのだが、タイでは男性はむやみやたらに女性の身体に触ることは非常に無礼なことになる。なんて失礼な人、とタイ人女性に総スカンをくらってしまう。

中国では時計は「死」の贈り物

日本人は世界に類のないほど贈り物好きだと揶揄されることがある。お中元にお歳暮、入学祝いに卒業祝い、結婚式に香典、クリスマスに誕生日、ことあるごとにお金やものを包む。

お中元やお歳暮、クリスマスや誕生日にお金を贈ることはしないが、入学や卒業、結婚や香典はお金が多い。

アメリカでは部下から上司へ贈り物をするとき「ごますりめ」とかかって冷やかな目で見られてしまう。またお祝いにお金を贈るといのは、肉親以外はほとんどしない。他人が現金を贈るのはとても失礼にあたるのだ。確かにお金というのは、あまりにダイレクトで生々しい。

一方中国は、日本と似ていてお金を贈ることが多い。そのとき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お祝いごとのときには偶数を包むということ。日本の場合、2、3、5、7、10が一般的。1や4や9は避ける。

また、時計（置き時計、かけ時計）を贈っては失礼だ。中国語で時計を贈るのは「送鐘」、これは「送終」と発音が同じで、「死を送る」の意味になり、不吉な意味になるからだ。

イスラム教圏の人には、お酒やぶた肉は当然贈ってはならない。

在中國鐘是“死”的禮物

日本人被嘲笑為世界上無可比擬的愛送禮的。從中元到歲暮、從祝賀入學到慶祝畢業、從婚禮到葬禮、從聖誕節到生日，不管什麼事都要送錢、送東西。

在中元和歲暮、聖誕節和生日，一般不送錢；入學和畢業、婚禮和葬禮，却是送錢。

在美國，部下給上司送禮，會被看成“拍馬屁”而反遭冷眼。另外，為祝賀而送錢的事，只限於親人之間。送別人現金，是非常失禮的。錢，確實是太赤裸裸了。

在中國，與日本相似，送錢的情況比較多。但必須注意的是，中國往往送雙數；而在日本，一般是送2、3、5、7、10，而要避開1、4、9。

還有，送鐘是失禮的。中文的“送鐘”的發音與“送終”相同，有送死的意思，被認為是不吉祥的。

向伊斯蘭教徒送酒和豬肉，當然也是不行的。

company's subsidiary in Thailand who had a bad reputation among the Thai female employees. It seems that in order to encourage them he would pat them on the back when greeting them. In Thailand it is extremely rude for a man to thoughtlessly touch a woman's body. The Thai female thought this manager was a cad and therefore gave him the cold shoulder.

In China clocks are presents of death

The Japanese are often made fun of for their love of giving gifts. Be it summer gifts or winter gifts, matriculation or graduation gifts, wedding or funeral gifts, Christmas or birthday gifts, whatever the occasion Japanese feel the need to give gifts. We don't give cash for summer and winter gifts or Christmas or birthdays, but it is customary to give money for weddings, funerals, or when someone enters or graduates from school. In America, if an employee gave presents to his boss he probably would be coldly looked upon as a sycophant. Furthermore, except to relatives, Americans never give money as a present. It would be rude to send cash to another person. It's true that money is a little too direct, however China and Japan are similar in the fact that both countries often send money as presents. When sending money, one has to be careful when deciding the amount. In China, for celebrations, sending an even number of bills is the custom. In Japan the preferred amount is generally a multiple of 2, 3, 5, 7, and 10. Numbers to be avoided are 1, 4, and 9. In China giving clocks is considered rude because the Chinese characters for sending a clock have the same pronunciation as the characters meaning "to send death."

고 하면서 일본인 상사가 부하직원인 태국인 여성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인사 정도로 생각하고 몸에 손을 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나, 태국에서는 쓸데없이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하는 것은 대단한 실례가 된다. 그러한「무례한 사람」이라고 태국 여성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중국에서는 시계가「죽음」이라는 뜻의 선물

일본인은 세계에서 유명한 선물 좋아하는 국민이라고 놀림을 당하는 일이었다. 중원(백중-음력 7월 15일)이니, 세모나, 입학·졸업 축하에, 결혼식 부의, 크리스마스에 생일선물 등, 무엇인가 있을 때마다 돈이나 물건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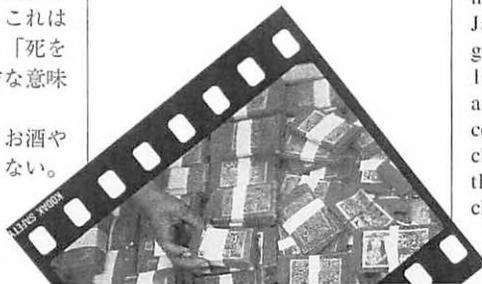
백중이나 세모, 크리스마스나 생일에 돈을 보내는 일은 없지만, 입학이나 졸업, 결혼 부의에는 돈인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선물을 하면「저놈 아무한다」라고 도리어 눈치를 받는다. 또, 축하하는 뜻으로 돈을 보내는 것은 육친 이외에 거의 없다. 타인이 현금을 선물로 보내는 것은 실례가 되기 때문이다. 확실히 돈이라는 것은 너무 직접적인 감이 든다.

한편, 중국에서는 일본과 비슷하게 돈을 선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때 주의해야 할 것은 축하금일 경우에는 짝수로 보내야 한다는 것. 일본의 경우는 2, 3, 5, 7, 10이 일반적. 1이나, 4, 9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시계(탁상시계, 벽시계)를 보내는 것은 실례이다. 중국어로 시계를 보낸다는 말을「송종(送鐘)」. 이 말은「송종(送終)」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죽음을 보낸다는 불길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교권의 사람들에게는 술



TABOO

時代とともに 変わりゆくタブー

「してはならないこと」は、時代や社会体制の変遷とともに塗り替えられていく。たとえば日本がそうであったように、ここ数年急激な経済開放政策に向かっている中国などでは、おそらくタブーやしきたりもまた消滅したり、形をかえていくに違いない。

今回はタブーというより、むしろマナーやしきたりに重点をおいて比較してみたが、「タブー」という視点から見ると、アジア諸国、また戒律が厳しい宗教をもつ人々の間には、時代や社会が変化しようともかたくなに守り続け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タブーは、根強く残る。

王室（日本で言えば皇室）、神仏など畏怖の対象となるもの、そしてそれがいまだ強い権力を持っているものに対しては、容易にタブーからは解放されたい。王室をもつタイ、皇室がある日本などはその顕著な例である。

ところで日本のように、これだけ近代的思想や科学知識が浸透してきた世の中であって、それでも科学的根拠のない俗信やしきたりをついつい踏襲してしまうのだから、不思議だ。合理主義ではわりきれないからこそ、そこに比較文化のおもしろさがあるに違いない。いずれ機会を見て、各地の迷信や俗説などに言及してみたい。

與時代一起變化的禁忌

“绝不能幹的事”，也在隨着時代和社會體制的變遷而在改變。就像日本曾經經歷過的，中國這幾年正在迅速地實行經濟開放政策，恐怕禁忌、慣例在中國也在消失或有所變化吧！

這次，說是談禁忌，倒不如說重點比較了一下禮節和慣例。從“禁忌”的觀點來看，雖然時代和社會都在變化，但在亞洲各國及信仰戒律嚴格宗教的人們中，根深蒂固的禁忌却被頑固地堅持着。

王室（在日本是皇室）、神、佛等被作為敬畏對象的事物，還有至今還保持着強大權力的事物，是不容易從禁忌中解放出來的。有王室的泰國，有皇室的本國，都是這樣明顯的例子。

不可思議的是，像在日本這樣被現代的思想與科學知識浸透的社會裏，仍是不知不覺地踏襲沒有科學根據的迷信和慣例。也正因為從合理主義的角度，不能簡單地加以解釋，才顯示出比較文化的有意義之處。如有機會，再談談各地的迷信和傳說等等。



Therefore it is considered bad luck. In Islamic countries, alcohol and pork should never be sent.

Taboos change with the times

What is considered impolite in a country changes with the passing of each generation or with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This is true in Japan and it is probably true in China which has undergone rapid economic reform in the last few years. Customs in China are no doubt changing shape and taboos may disappear altogether.

In this article we have placed greater emphasis on comparing manners and customs, but we would also like to mention taboos. In many Asian countries there are people with strict religious precepts who feel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aboos regardless of the passing of time or changes in society.

Royal families (the Imperial Household in Japan) and various gods are highly revered and even today are quite powerful. Breaking free of taboos concerning these institutions is no simple matter. The Royal Family in Thailand or the Imperial Household in Japan are two striking examples. In Japan, a country where modern thought and scientific know-how has penetrated every layer of society, it is puzzling to see people still following old customs and superstitions that have no scientific backing. It is something a rational person can't understand, but that is no doubt what makes comparing cultures interesting. In the future we would like to take a look at the superstitions and folk beliefs of various countries.

이나 돼지고기를 선물로 보내서는 당연히 안될 것이다.

시대와 함께 변해가는 터부

「해서는 안될 것」은 시대나 사회체제의 변천과 함께 변모해 간다. 예를 들어, 일본이 그랬던 것같이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등에서는 틀림없이 터부나 관습 등도 함께 소멸하거나 형태가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터부보다는 오히려 매너나 관습 등에 중점을 두고 비교를 해 보았지만, 「터부」라는 시점에서 본다면, 아시아 여러 나라나 계층이 엄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대나 사회가 변모를 해 나가더라도 그런 예절이나 관습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터부는 뿌리깊게 남아 있다.

왕실(일본으로 이야기하자면 황실) 신분들은 위엄의 대상이면서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쉽게 터부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렵다. 왕실을 가진 태국, 황실이 있는 일본 등은 그 현저한 예이다.

그런데, 일본과 같이 근대적인 사상과 과학지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에서조차 과학적 근거도 없는 미신이나 관습 등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된다. 합리주의만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더욱 비교문화에 관심이 끌리는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기회를 봐서 각지의 미신이나 속설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다.

「言葉のタブー・日本の場合」

日本の社会では、言葉に対するタブーがいくつか存在する。例えば差別用語。かつて使われていた、めくら（目の不自由な人）、びっこ（足の不自由な人）、つんぼ（耳が聞こえない人）、おし（口の不自由な人）、きちがい（精神に障害のある人）などと身体に障害を持つ人を指す言葉は、差別用語とされ、現在は使ってはいけ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といっても法律で禁止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く、放送業界や出版業界では自主規制という形をとっている。

これらの差別用語に関しては、論争の絶えないところだ。歴史的に差別的な意味合いで使われてきたそれらの言葉を撤廃することが必要だという一方で、言葉そのものに悪意はなく、その言葉を使う人の意識の問題だから、言葉だけを規制してもしょうがないという意見もある。

たとえば落語などには、これらの言葉を使う小咄がある。言葉のリズムが大切な落語で、これらの言葉を使えないとなると、その小咄は死滅する。これもまた論争がある。

語言的禁忌——在日本

在日本社會裏，語言上存在着一些禁忌。比如歧視性詞語。以前使用瞎子（盲人）、瘸子（跛足）、聾子（失聰）、啞巴（語言表達不自由）、瘋子（精神病）等用於指身體功能有障礙的人，被認為是歧視性詞語，現在不能使用了。但不是從法律上禁止，而是由廣播電視及出版界採取自我製約的形式。關於這些歧視性詞語，正在爭論不斷。有人認為，從歷史上帶着歧視的意味而沿用下來的這些詞語，有必要廢除；也有人認為，詞語本身並無所謂惡意，而是使用詞語的人的意識問題，所以光是限制詞語的使用是沒有什麼用的。比方在落語中有使用這些詞語的笑話。語言的韻律對落語是很重要的，這些詞語不能使用的話，這些笑話就說不成了。所以，在這種地方也有爭論。

Language and Taboo In Japan

In Japan there are many taboos dealing with language. Discriminatory expressions would be just one example. In the past, words such as mekura (blind), bikko (crippled), tsunbo (deaf), oshi (dumb), kichigai (insane), and others were used to describe the physically disabled. But recently these words have taken on discriminatory connotations and therefore their use is now considered impolite. Although their use is not forbidden by law, the broadcasting and publishing industries have taken the lead in banning these words. There is a never-ending controversy swirling around these and other discriminatory terms in Japan. One side feels there is a need to do away with these words because historically they have been used in a derogatory sense. Others feel that, as the words themselves contain no malice, the problem is with the mentality of the people who use them and therefore it makes no sense to deal with only the words themselves. In the Japanese art of comic storytelling (rakugo) there are many humorous stories that use these words. As rhythm is extremely important to rakugo, replacing these controversial expressions would mean the end of these tales, but this too is disputed by some.

「금지어-일본의 경우」

일본 사회에서는 말에 대한 터부가 몇가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차별용어, 예전부터 사용해 온 메쿠라(장님), 빙코(다리병신), 쓴보(귀머거리), 오시(병어리), 키치가이(정신병자) 등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르키는 말을 차별용어라고 해, 현재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말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방송업계나 출판업계에서는 자주규제라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런 차별용어에 관해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역사적으로 차별적인 뜻으로 사용해 온 그러한 말들을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한편에서는, 말 그 자체에는 악의가 없다. 단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 자체만을 규제하더라도 소용없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재담등에 이런 말들을 사용한 재치있는 익살들이 있다. 말의 리듬이 필요한 재담 등에 이러한 말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런 익살등이 사멸한다. 이것 또한, 하나의 논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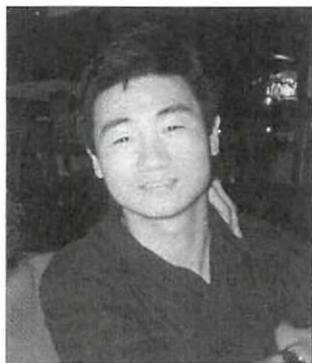
Mother Land

生まれた国を離れ、海を越えて日本に渡ってきたさまざまな人びと、その一人ひとりに母国のお国自慢をしてもらおう。今月の故郷は、韓国・濟州島。

很多人離開祖國，越過大海來到日本，我們想聽聽他們的“贊故鄉”。這個月是韓國的濟州島。

A fascinating variety of people have made their way to Japan from their countries of birth. Each month we will ask one of them to tell us a little something about their homeland. This month features the island of Cheju-do in Korea.

태어난 나라를 떠나, 바다를 건너 일본에 온 여러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국 자랑을 물어보자. 이번 달이 고향은 한국의 제주도.



今月の故郷案内人

吳尚祚 (Oh Sang Jo)

1969年韓国、濟州島生まれ。昨年11月に来日したばかり。現在、都内の日本語学校に通う。

This Month's "Guide to My Homeland"

Oh Sang Jo

Born in Cheju-do in South Korea. Came to Japan in November of last year. Presently attending a Japanese language school in Tokyo.

本月故郷引路人

吳尚祚

1969年生於韓國濟州島。去年11月剛剛來到日本。現在東京都內的日語學校上學。

이번 달의 고향 안내인

오 상조

1969년 한국 제주도 태생. 작년 11월 내일. 현재 동경도내 일본어 학교에 재학중.

伝説がいまなお生きる島 濟州島 (チェジュド)

最近は第2のハワイともいわれている濟州島 (チェジュド)。いまでこそ世界から観光客が訪れる島になったが、数十年前までは、交通も不便で人の行き来が少なく、静かな島だった。

言葉も日本の沖縄のように、濟州島独自の言葉をしゃべっていた。今でも僕は島に帰ると、濟州弁を話すが、これは韓国本土の人にはほとんど通じないのだ。

僕は、この島の西に位置する高山 (コサン) で生まれ、育った。濟州島は、3多の島だといわれている。石が多い、風が多い、そして女が多い。

石が多いのは、火山の噴火によって生じた溶岩が島じゅうごろごろしているから。そして四方が海に囲まれているから、海風がいつも強い。特に夏は、台風の通り道でもあるため強風が吹き荒れる。

女が多い。これは、はっきりした理由がわからないけれども、昔、韓国の本土では女性は外に出るはいけなかった。ところが、濟州島は、女性が外にたくさん出ている。というのは、元來、この島の働き手は女性だったからだ。女性は海女として、海に潜って海産物を取り、生活を支えていた。そんなところから、濟州島には女性が多いといわれているのだと思う。

至今傳説不 斷的濟州島

濟州島最近被稱為第2個夏威夷。現在從世界各地都有遊客來島上觀光。但在幾十年前，由於交通不便，很少有外人來，是個安靜的島嶼。

在語言方面與日本的沖繩相似，濟州島也有著獨自的方言。現在我一回到島上，就說濟州方言，韓國本土的人基本上聽不懂。

我出生成長在島西部的高山。濟州島有三多：石頭多；風多；還有就是女人多。

所謂石頭多，是因為島上到處都是火山噴發的熔岩；風多，是因為四周圍海，海風很強，特別是夏天，台風往往通過這裏，狂風吹遍全島。

所謂女人多，其緣由沒有定說。昔日，在韓國本土，女人是不能出門的。但在濟州島，却有很多女性外出幹活。原來以前在島上，勞動力是女性。女性往往當漁女，潛到海裏去撈海產物，以養家糊口。很可能因此而有了濟州島上女人多的說法。



Where Legend Lives

In recent years, Cheju-do has become known as "the second Hawaii" and now tourists are a common sight. But until ten years ago, access to Cheju-do was difficult and there was not much travel back and forth; the island was very quiet.

Like people on the Japanese island of Okinawa, the people of Cheju-do also speak a dialect. Whenever I go back to the island, I revert to the dialect, but most Koreans on the mainland don't understand it.

I was born in Kosan on the western side of the island. On Cheju-do, they say, there are three things in abundance: rocks, wind, and women. First, the rocks were formed from the eruptions of the volcano. Second, the water surrounding the island creates strong winds. We are often in the path of typhoons and the result is strong gales, particularly in summer. Finally, there are many women. I don't know if this is the actual reason, but long ago, women were not allowed to go outside the house. On Cheju-do, however, women were allowed to go out; consequently, they became the initial source of movement. The women would fish, catching seafood to support the household. That's my theory of why

전설이 살아있섬, 제주도

최근에 와서 제2의 하와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는 제주도.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으로 붐비는 섬이 되었지만, 수십년전까지만 해도 교통이 불편해 왕래가 적은 조용한 섬이었다.

언어도 일본의 오키나와처럼 제주도 독자적인 언어가 있었다. 지금도 그는 섬으로 돌아가면, 제주도 방언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나, 다른 지방의 한국사람들은 거의 모른다고 한다.

그는 제주도의 서쪽에 있는 고산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자랐다고 한다.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알려져 있다. 돌, 바람, 여자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돌이 많은 이유는 화산 활동으로 생긴 용암이 섬 여기 저기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방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바람이 항상 강하다. 특히 여름에는 태풍이 통과하는 곳이기도 해 강풍이 섬 중을 휩쓸고 지나간다고 한다.

여자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유를 모르겠지만, 옛날 한국에서는 여자들은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던 반면에 제주도에서는 여성의 바깥 외출이 빈번했다고 한다. 즉, 제주도에서는 원래부터 다른 지방과 달리 여자들이 중요한 노동인력이었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해녀로서 바다에서 잠수해 해산물을 따, 생활을 영위해 왔다고 한다. 그런 연유에서

いまでも濟州島に海女はいるが、昔ほどではない。でも濟州島の女は生活力があって、嫁さんにするなら、濟州島の女だとオモン（濟州島語で母の意味。韓国語ではオモニという）やアバン（濟州島語で父の意味。韓国語ではアボジという）はいまでもいうくらいだ。

ところで濟州島は、一方で3無の島だともいわれてきた。

3無とは、どろぼういない、乞食いない、門がない。濟州島の人には、貧しいときも、昔からお互いに助け合って生きてきた。だから、どろぼうも乞食もない。門すらも必要なかったわけだ。

3多、3無から、濟州島の風土と濟州島人氣質がよく見えてくる。

捕れた魚の水刺身で舌つづみ

島のまわりには、火山活動によってできた小さな島が、ボコンボコンとたくさんつき出ている、小さい頃は、そんな小島でよく魚釣りをしたものだ。

僕の家から10分も歩けば、浜辺に出る。浜辺から100メートルも泳げば、砂が盛り上がっただけのちょっとした浅瀬がある。遠くから見ると、まるで海の上を人が歩いているようにみえるほどの浅瀬だ。そこで釣糸を垂らして、何匹も何匹も魚を釣った。水が透き通っていて、泳いでいる魚が見える

現在在濟州島還有漁女，當然已沒有當年那麼多了。因為濟州島的婦女生活能力強，所以，當娶親的時候，至今還有“啞蒙”（濟州島話，意為母親；朝鮮話為“啞莫尼”）和“阿斑”（濟州島話，意為父親；朝鮮話為“阿伯希”）在說，可得娶濟州島的媳婦啲。

濟州島還有三無。

所謂三無，即沒有小偷；沒有要飯的；沒有門。濟州島的人，自古以來，貧困時在生活上也是相互幫助。所以，沒有小偷、要飯的，門也就沒有必要了。

從這三多三無，可見濟州島風土人情之一斑。

可口的水生魚片

在島周圍，由於火山活動而形成的的小島星星點點。小時候，我常常在這些小島上釣魚。

從我家步行10分鐘，就是海邊。從海邊游出一百米左右，有由砂子堆積成的淺灘。人走在那淺灘上，從遠處看去，就像在海面上行走似的。在淺灘上垂釣，可以釣到一條又一條的魚。有趣的是，透過海水可以看到游來游去的魚是如何上釣的。

用釣到的魚做成的生魚片非常好吃。濟州島的魚烹調法是獨特

there are a lot of women.

Now, although there are still women divers in Cheju-do, there are not as many as before. Still, the women of Cheju-do have a certain vitality, and omon (the Cheju-do word for mother, omoni in Korean) and abang (Cheju-do word for father, aboji in Korean) say you should take one for your bride.

It is also said that there are three things that are not in Cheju-do: thieves, beggars, and gates. No matter how poor, the people of Cheju-do have always looked out for each other. That is why there are no beggars and no need for gates.

Looking at the things abundant and absent will give you a clue to the character of the people living on Cheju-do.

From Fish to Sashimi

Scattered around the main island, there are a number of small islands formed by the volcanic eruptions. When I was small, I would often go fishing there.

From my house, the bay was ten minutes away. From the bay, I would swim 100 meters or so to a sandbar. There it was so shallow that, from far away, it looked as if someone were walking on the water. There I would set down my fishing gear, sit down, and begin to catch fish. The fish were easily visible in the clear water, and I

제주도에는 여자가 많다고 전해졌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제주도에는 해녀가 있지만, 옛날만큼은 아니라고。그러나, 지금까지도 제주도의 여자들이 생활력이 강하다고 해, 며느리를 얻으려면 제주도 여자라고 어명(어머니)이나 아방(아버지)이 지금도 이야기할 정도라고 한다。

또, 제주도를 한편으로는 삼무도라고도 한다고 한다。

삼무라는 것은 도둑,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다는 것에서 생긴 말이다。제주도 사람들은 옛날부터 곤경 속에서도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왔다。때문에 거지도 도둑도 없다고 한다。물론, 이런 연유로 대문도 필요없었을 것이다。

삼다도, 삼무도라는 것을 보면, 제주도의 풍토와 그 곳 사람들의 기질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잡은 생선으로 한 물회가 입안 가득

섬 주위에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조그마한 섬들이 여기 저기 나와 있어, 어렸을 때에는 그런 조그마한 섬 위에서 자주 낚시를 했었다고 한다。

집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해변가이다。해변에서 100미터 정도 헤엄쳐 가면, 모래가 쌓여 물이 된 얕은 바다가 있다。멀리서 보면 마치, 바다 위를 사람이 걷고 있는 듯하게 보일 정도의 얕은 곳이다。거기서 낚시줄을 늘어뜨려, 몇 마리고 물고기를 낚곤 했다고 한다。

바닷물이 투명해, 그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고기들이 보일 정도인데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기들이 잡히곤 했다고 한다。

바로 잡은 고기로 한 회가 또 일미라고 한다。제주도의 생선 요리는 독특한 것으로 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물회를 가르킨다。물 속에 식초와 간장 등의 조미료와 부추 등을 넣어 생선을 넣고 섞어 숟가락으로 떠 먹는다고 한다。이 물회가 그렇게 맛있다고 한다。

그것은 그렇다하고 제주도 북단에는 이어도라는 유명한 전설속의 섬이 있다。이 섬은 바다 속에 있어 여자들만이 그 섬에 살고 있다고 한다。섬을 지나는 배들은 모두 바다 속으로 빨려들어 간다고 전해져 온다。어느 날, 한 남자가 타고 있던 배가 그 섬주위를 지나가다 아니나 다를까 빨려 들어가 버렸다。그 후, 그와 그 섬의 여자 사이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났다。그러나 섬에 남자는 살 수 없다고 해, 아이는 작은 상자



写真提供: 韓国觀光公社

ものだから、おもしろいように魚が取れた。

捕れた魚はさしみがうまい。濟州島の魚料理は独特で、さしみといっても水さしみ(ムルヘ)のことをさす。水の中に酢やしょうゆなどの調味料やニラなどをいれて、その中に魚を混ぜてスプーンで食べる。これが、うまいのだ。

ところで、濟州島の北には、イヨドという有名な伝説の島がある。その島は、海の中にあり、女の人しか住んでいないという。島の近くを通る船は、みな海の中に吸い込まれていくといわれている。ある日、ひとりの男が乗ったある小舟がこのあたりの海を通りかかって、案の定、吸い込まれてしまった。そして島に吸い込まれた男と、島の女性との間に一人の男の子が生まれた。島に男はいらないと、その男の子は小さな箱に入れられ、海に流された。箱は海流に乗って、濟州島に流れ着いた。その箱を見て、島の人々は、ああイヨドから流れてきたのだといいたったという。

いまでも、まことしやかに語り継がれている伝説だ。

海に落ちる

線香花火の玉のような夕日

濟州島でいちばん大きな火山、ハラ山は、島の中央部にある。頂上には、噴火時にできた、とてもきれいな湖がある。

また、ハラ山に行く途中にトッケビ道路という坂がある。この坂は、天地逆さまの現象がおこることでも有名だ。ボールを坂の下に置くと、坂の上に向かって転がっていく。水も下から上に流れる。ハンドブレーキをかけずに車を走らせると、車が坂の上に登っていく。なんとも不思議な坂なのだ。トッケビというのは、韓国語で鬼という意味だが、鬼が坂の上からひびくから、こんな摩訶不思議なことがおこるのだと島の人々がいうところから、トッケビ道路と名づけられたようだ。

不思議な現象はまだほかにもある。濟州市には三姓穴(サムソンヒョル)と呼ばれる場所がある。大きなくぼ地のなかに3つの穴があり、この穴には雨や雪が降っても決して水が溜まらない。また、くぼ地のまわりにある木は、太陽の光線に関係なく、みなすべて、その穴を取り囲むように、穴に向かって伸びている。不思議なエネ

的、叫作水生魚片。就是在水裏放上醋、醬油等佐料和韭菜等等，再將生魚放入其中攪拌後用勺盛來吃。真是美味可口啊！

在濟州島以北有一個叫作依天斗的有名的傳説中的島。據説，在這個海中的島上，居住的只有女人，經過島附近的船，都被吸入海裏。一天，有一個男人駕船通過這裏，照例被吸入了海中。這個男人被吸到島上後，與島上的女人生了一個男孩子。因為島上不能有男的，就把那男孩子裝在一個小箱子裏，漂到海上。箱子隨着海流漂到了濟州島。看到這個箱子，濟州島的人就説，是從依天斗島漂來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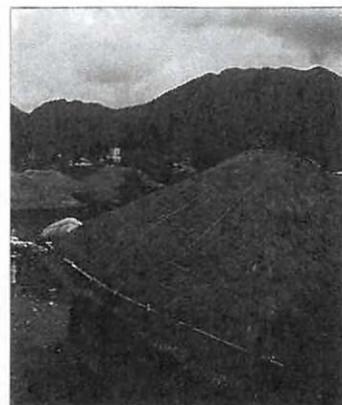
至今，這個傳説還像真事一樣被講述着。

沉入海中的 茜色的夕陽

濟州島最大的火山——哈拉山——在島的中央部。山頂上有由於噴火而形成的非常美麗的湖。

還有，在去哈拉山的途中有一個叫透凱道路的坡道。這個坡道以發生陰陽倒錯的現象而著名。放在坡下的球，會自己向坡上滾去；水也是倒着往上流；沒有刹車的車輛，會自己蹬上坡去。真是一個不可思議的坡道。所謂透凱，在朝鮮話裏是鬼的意思。也就是說島上的人相信因為有鬼在坡上拉，才會發生這種極不可思議的事情，所以才叫它透凱道路。

還有別的不可思議的現象。濟州市有一處叫作三姓穴地方。在一個大窪地裏有3個坑。不管下雨下雪，這個坑裏絕不積水。另外，在這個窪地周圍的樹，與太陽光的方向無關，都像圍繞這些坑似的，向着坑的方向伸展。傳説，創造濟州



would catch them in many different, interesting ways.

Sashimi made from freshly caught fish is the most delicious. Cheju-do has its own distinctive seafood dishes, and there, sashimi means water sashimi, or mulhe. Put vinegar and soy sauce and other seasonings and leeks in water, then soak the fish in it and eat. Delicious!

To the north of Cheju-do is Iyodo, an island filled with legend. In the middle of the ocean, they say, there are only women living there and boats that pass close to the island will be swallowed up by the sea. Legend has it that one day a man on a small boat passed too close to the island and was swallowed up by the sea. Then a baby boy was born of the man swallowed by the sea and a woman of the island. Because men are not allowed on the island, the baby was put inside a box and set off to sea, where it eventually landed at Cheju-do. Seeing the box, the island people knew it had come from Iyodo. That story is told to this day.

Falling Into the Sea

Halla, the largest volcano on Cheju-do, is in the middle of the island. At its peak is a beautiful lake formed during an eruption.

On the way to Halla, there is a hill called Tokkebi Path, famous for its defiance of the law of gravity. If you place a ball at the bottom of the hill, the ball will roll up the hill! Water, too, will flow upwards. And if you park your car there without putting on the brake, the car will start to climb up the hill. It's a mystery. People would say that the devil was pulling things up the hill; tokkebi means devil in Korean, and that's how the hill got its name.

There's something else that can't be explained. In the city of Cheju-do, there is a place called Samsonghyeol. Inside a large dip in the ground, there are three holes. But no matter how much it rains or snows, no water collects there. Another thing, no matter the angle of the sun, the trees around the dip all turn toward the hole. They say the three gods who created Cheju-do sprang from these mysterious holes.

These are just a few of the old legends that remain in Cheju-do.



에 실려 바다로 떠내려 보냈다고 한다. 상자는 해류를 타고 제주도 에 흘러 왔다. 그 상자를 보고 사람들은 "아! 이 아이는 이어서 떠내려 보낸 거구나!"라고 했다고 한다.

이 전설은 지금도 그럴 듯하게 전해져 온다고 한다.

수평선으로 지는 아름다운 저녁놀이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은 섬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다. 정상에는 화산분출시 만들어진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 그 한라산을 가는 도중에 「도깨비 도로」라는 언덕이 있다. 이 고개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불을 언덕 밑에 놓으면, 언덕 위로 굴러간다. 물도 밑에서 언덕을 향하여 흐른다고 한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차를 세워두면 차가 언덕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불가사의한 도로가 있다고 한다. 「도깨비」라는 명칭은 이런 이상한 일이 귀신이 언덕 위에서 끌어 당기기 때문이라고 해서 「도깨비 도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 외에도 이상한 곳이 있다. 제주시에는 삼성혈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 움푹 패인 지면에 3개의 구멍이 나 있는 곳이다. 이 구멍에는 비나 눈이 와도 절대로 물이 고이지를 않는다고 한다. 또, 움푹 패인 곳 주위의 나무들은 태양의 광선과 상관없이 전부 그 구멍을 둘러싼 것같이 일제히 구멍을 향해 있다고 한다. 이상한 힘을 가진 이 3개의 구멍에서 제주도를 만든 3명의 신이 태어났다는 전설이 남아있어 지금도 신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제주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전설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풍토, 습관을 가진 섬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고향인 제주도에서 제가 가장 자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수평선

ルギーを持った穴で、この3つの穴から、済州島を作った3つの神様が生まれたという言い伝えがあって、神々が祭られているのだ。

このように済州島には古くからの伝説も多く残り、独自の風土、習慣をもつ島だと思う。

故郷済州島で、僕がいちばん自慢したいのは、海に落ちる夕日だ。空も海もあかね色に染まり、それはもうなんともいえないほど美しい。この光景だけは、どこの土地にも負けないと思っている。

済州島ひとくちメモ

大韓民国、済州島。朝鮮半島から南に約100キロ離れたところに浮かぶ、韓国最大の島。人口約50万人。

最近観光地としてリゾート開発がすすみ、世界からの観光客も多く訪れるようになった。東京・成田（あるいは名古屋）空港からの飛行機による所要時間は、釜山経由で3時間30分（乗り換え時間を含む）。大阪国際空港からは直行便があり、所要時間は1時間45分。日本と韓国の時差はなし。

島の3個神、就是从這3個具有不可思議能量的坑裏出生的，所以被衆神靈祭奠着。

済州島就是這樣一個自古以來就有着衆多傳說的，有着獨特的風土習俗的島嶼。

對故鄉済州島，我覺得最值得誇耀的是海中的落日。天空海水都被染成暗紅色，真是一種說不出來的美。光是這景色，就够這塊土地自豪的了。



済州島点滴

大韓民国、済州島。位於朝鮮半島以南100公里處的韓國最大的島嶼。人口約50萬人。最近正在作為觀光度假地進行開發，吸引了世界各地的大量游客。

從東京成田機場或名古屋機場，經釜山到済州島需3小時30分鐘（包括換乘時間）。從新大阪機場直達班機為1小時45分。日本與韓國沒有時差。

which I think is an island with very unique customs and history.

What I am most proud of in my homeland is the sunset that falls into the sea. At dusk, both the sky and the sea are suffused with an indescribably beautiful shade of red. No scenery anywhere else can compare.

Memo on Cheju-do

Cheju-do is the largest island of the Republic of Korea, about 100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Population: 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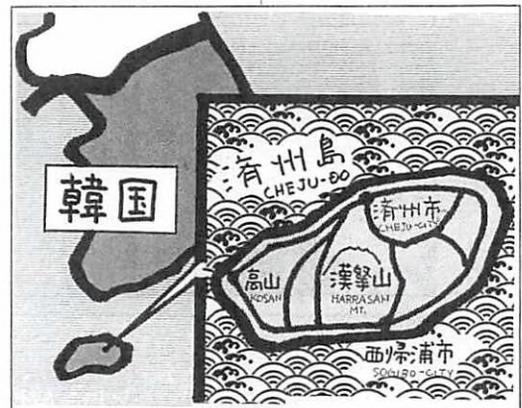
With the development of various resort projects, Cheju-do is now attracting more and more foreign tourist. It's only 3 1/2 hours from Tokyo's Narita or Nagoya's Airport via Pusan. This includes the time required to change planes. Flights from Osaka Int'l Airport are also available.

Flight time is 1 hour 45 minutes. There is no time difference between Japan and Korea.

으로 보이는 저녁노을입니다."라고 한다. 하늘도 바다도 붉은 색으로 물들어 가는 광경은 무엇이 라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이 광경만큼은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제주도 미니정보

대한민국 제주도, 최근 관광지로서 리조트지 개발이 추진되어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되었다. 도쿄 나리타 (혹은 나고야) 공항에서 소요시간은 부산경유로 3시간 30분 (갈아타는 시간포함), 신오사카 공항에서는 직항편이 있으며, 소요시간은 1시간 45분 일본과 한국의 시차는 없음. 한반도에서 남으로 약 100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한국 최대의 섬. 인구 50만명.



Discount Air Ticket From A•Point to

AP A•Point Travel Centre
IKEBUKURO BRANCH: OPEN NOW!
CALL US FIRST.

FROM TOKYO		O/W (单程)	R/T (往返)
HONG KONG (香港)		¥ 47,000~	¥ 69,000~
BANGKOK (曼谷)		¥ 44,000~	¥ 61,000~
SEOUL (漢城)		¥ 27,000~	¥ 35,000~
MANILA (馬尼拉)		¥ 39,000~	¥ 45,000~
LOS ANGELS (洛杉磯)		¥ 65,000~	¥ 58,000~
NEW YORK (紐約)		¥ 82,000~	¥ 92,000~
PARIS (巴里)		¥ 104,000~	¥ 112,000~

IKEBUKU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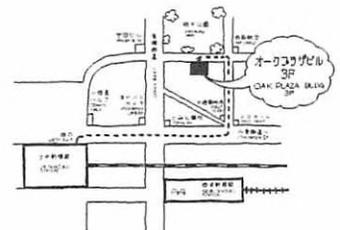


ADD: IKEBUKURO WHITE HOUSE BUILDING #502, 1-20-2, HIGASHI-IKEBUKURO, TOSHIMA-KU TOKYO

住所: 東京都豊島区東池袋1-20-2 池袋ホワイトハウスビル502

TEL 03-3980-2122

SHINJUKU



ADD: OAK-PLAZA BUILDING 3F, 7-9-5 NISHI-SHINJUKU, SHINJUKU-KU TOKYO

住所: 東京都新宿区東新宿7-9-5 オークプラザビル3F

TEL 03-3366-7571

CULTURE SHOCK

着る物、食べ物、それに住み方、それらは国によって千差万別。読者が直面したカルチャーショック体験から日本文化をとらえ直してみよう。

衣、食、住、每個國家千差萬別。籍讀者遭遇文化衝擊的經驗談，重新掌握日本文化。

Clothing, food and life styles vary greatly from country to country. See Japan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rough the various types of culture shock experienced by our readers.

옷, 음식, 주거, 이와같은 의식주는 나라에 따라 천차만별. 독자가 직면한 컬처쇼크 체험을 통해 일본문화를 재조명해 보자.



1. 不能更像媽媽點兒嗎？
2. ……嘛哩……
是說媽媽……
3. ……想吃什麼？智幸。
壽司。

A : What'll it be for ya?

B : Ask me more like mommy would.

A : Ugh...like your ma?

A : What would you like to have, my little Tomoyuki?

B : Sushi!

A : 가게주인: 어서 오십시오! 뭘 드릴까?

B : 꼬마손님: 에이! 엄마처럼 주문받아요!

A : 가게주인: 우우 엄마처럼 말이니?
도모유키, 뭐 먹고싶니?

B : 꼬마손님: 최댓밥 줘!!

© 吉田戰車「伝染んです。」小学館ビッグコミックスピリッツ連載中

何をおかしいと感じるかはその人次第。しかし「笑い」というものにも、お国柄や文化の特色を反映した質の違いがあるのかもしれない。漫画における笑いについても、それがいえる。日本で人気のある吉田戰車の漫画について、埼玉県にお住まいの23歳の会社員、樋口圭悟さんが、意見を寄せてくれた。

對什麼感到有趣，因人而異。但是在“笑”的問題上，也可能反映出國情和文化特色方面的質的差異。在關於漫畫的笑的問題上，也可以這麼說。住在埼玉縣的23歲的公司職員樋口圭悟，就日本有名的吉田戰車的漫畫，發表了意見。

What is considered humorous varies from person to person. It can also be said that humor reflects the particular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is is true for the humor in comics as well. Mr. Higuchi Keigo, a 23-year-old company employee living in Saitama, has sent us his opinion of the popular Japanese cartoonist Yoshida Sensha.

무엇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각기 각색이다. 그러나 「웃음」이라는 것에도 나라마다 자국의 문화등을 반영한 무언가 틀린 것이 있을 것이다.

만화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요시다센샤씨의 만화를 소재로 해, 사이타마 현에 사는 23살의 회사원 히구치 케이고씨가 의견을 보내주었다.

日本の新しい笑い

日本は漫画大国と呼ばれるけれど、日本の漫画のすごいところは、出版量とか技術とかいうより、その多様性じゃないかと思う。ギャグ漫画、ストーリー漫画、少女漫画といった昔ながらのジャンルの、どれにもあてはまらないような作品も、数えきれないほど出てきている。

そんな中で僕が好きな漫画家は、なんといっても吉田戦車だ。わからない人のためにちょっと説明させてもらえば、小学館のコミック雑誌「ビッグコミック・スピリッツ」に連載中の『伝染るんです。』で一躍有名になった漫画家で、そのキャラクターである「かわうそくん」なんかはコマースナルなどで使われるようになってから、みんなたぶんどこかで見たことはあると思う。

初めて吉田戦車の漫画を読んだときは、ショッキングだった。こんな種類の「笑い」があったのか、と驚いて、さっそくこの人の出している単行本を集めはじめた。それで吉田戦車の新しい作品に触れては、そのたびに笑い転げていたのだけれど、その笑いが、なにかすっきりしない。後味が悪いというか、笑った後にしこりが残る。

今までの笑いというのは、こんなものじゃなかった。もっとストレートで、誰もが共有できるものだったはずだ。でも、そういうわかりやすいギャグでみんなが気持ちよく笑うということが、最近の日本にはなくなりつつあるような気がする。漫画ひとつとっても多極分化し、大量生産される中で、そういう単純なものは使い古されてしまっていて、もうみんなを笑わせることができないのじゃないか。そんなマンネリ化した日本の笑いの文化の中から、不意をつくように出てきた新しい種類の笑い、それが吉田戦車の笑い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それは、単純な笑いに飽きた一部の日本人にしかわからない、倒錯した笑いであるように思える。なにか心の奥の深い部分に冷たい手で触られるような、そっと隠していたことを突然白日のもとにさらされるような感覚。そういうふうにな意打ちされる恐怖に似た感覚が、発作のように笑いを引き起こすのではないか。少なくとも僕は、そう考えている。

日本の新“笑”

日本被稱為漫畫大國。其漫畫的出色之處，與其說是在出版量和技術方面，不如說是在其多樣性上。日本的漫畫有玩笑漫畫、故事漫畫、少女漫畫等從來就有的種類；還有歸不了類的作品的等等，不可勝數。

其中，我所喜歡的漫畫家是吉田戰車。請允許我為不太了解此人的讀者稍微介紹一下。他因所創作的《傳染。》在小學館的喜劇雜誌《大喜劇精神》上連載而一舉成名，作品中的“人物”“小水獺”，也出現於廣告中，大家大概在什麼地方見到過吧。

我第一次看吉田戰車的漫畫時，感到很吃驚。竟然有這樣的“笑料”？於是就開始收集他的單行本。當我讀到吉田戰車的新作品時，笑得直不起腰來。但是，笑得並不舒暢。回味很苦；或者說笑完了心裏還留着疙瘩。

迄今為止的笑料，並不是這樣的。而是很直接的，誰看了都會笑的。但是，我感到，最近這樣的簡明易懂、讓讀者感到輕鬆的笑話，在日本越來越少了。在漫畫的多極化、成批生產之中，那樣單純的東西已經被使舊了，不能再讓大家發笑了。在這樣千篇一律的日本的笑料中，突然冒出了新型的笑料，這就是吉田戰車的笑料。

這好像是只有對單純無味的笑料已感到厭煩的一部分日本人能夠領會的、一種倒錯的笑料。就像有一隻冰涼的手觸到了內心深處；被悄悄隱瞞着的東西被突然放到了光天化日之下的感覺。就是這種與突然襲來的恐怖相似的感覺，引起了發作性的笑。——至少我是這樣認為的。

Japan's New Humor

Japan is called a comic kingdom, but I think the true greatness of the Japanese comic industry lies not in the amount of production or even in the skillful drawings, but in the diversity of its comics. Not only do we have the usual joke comics, serial comics, and youth comics, but there are also an infinite number of other comics that just don't fit into any of the established categories.

Among these, without a doubt my favorite cartoonist is Yoshida Sensha. For those of you not familiar with his work, allow me to introduce him to you. He became an overnight sensation with his contagious comic strip "Utsurundesu.", which appears in the Shogakukan comic magazine Big Comic Spirits. You have probably seen the character Kawausokun in TV commercials. Reading Yoshida Sensha's comics for the first time was a rather shocking experience. I had never seen this type of humor before. From that day on, I began buying his comic collections. Whenever I picked up one of his new works, I would soon be convulsed with laughter. But somehow the humor itself didn't satisfy me.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call it an aftertaste, if you will—but after laughing I was left with an unpleasant feeling.

All of the humor I have read up until now has been easier to understand, something in which everyone can share. But it seems to me that recently those comics which everyone can laugh at and enjoy are disappearing from the Japanese comic scene. Could it be that in this extremely diversified mass-production comics industry simple comics are no longer able to appeal to everyone? Or could it be that, because comics are now extremely diverse and produced in great quantities, simple gag comics are no longer able to appeal to a wide audience. Perhaps Yoshida Sensha's comics are a new style of humor that has unexpectedly appeared in the stereotypical world of Japanese humor.

Only a certain group of people discontent with simple humor would understand this. I guess it could be considered perverted humor. It feels like a cold hand touching something

일본의 새로운 익살

일본을 만화왕국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일본만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점은 출판량이나 기술면보다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한다. 개그만화, 스토리만화, 순정만화 등의 옛날부터 있던 장르는 물론,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출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는 뭐라해도 요시다 센샤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 설명을 한다면, 소학관에서 출판하고 있는 잡지「빅코믹·스피리츠」에 연재중인「우쓰룬데스」로 일약 유명해진 만화가로 등장 인물인「카와우소군」등은 텔레비전 선전등에 나올 정도이니까 아마, 여러분도 어디에선가 본적이 있을 것이다.

처음, 요시다 센샤의 만화를 대했을 때는 충격적이었다. 이런 종류의「익살」이 있었던가하고 놀랐다. 그후, 이 작가가 그린 단행본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후에도 요시다 센샤의 신작을 대할 때마다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그 웃음이 무엇인가 통쾌하지 않았다. 뒷맛이 씁쓸하다고나 할까, 웃고 난 다음에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든다.

지금까지 만화속의 웃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이것보다는 직접적이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알기쉬운 개그로 모두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던 것이 최근의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만화 하나를 보더라도 다양화되고 있는데다 대량생산체제 속에서 옛날같은 단순한 것들은 퇴색한 감이 있어 지금에 와서는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은 점점 없어져가고 있다.

천편일률적으로 변해가는 일본 익살문화 속에서 혀를 찌를듯이 나온 새로운 종류의 웃음, 그것이 요시다 센샤가 만들어 내는 웃음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단순한 웃음에 질려버린 일부의 일본인 밖에는 모른다. 어쩌면 비정상적인 웃음인지도 모르겠다. 무엇인가가 가슴 깊은 곳을 차가운 손으로 만지는 듯한 공포와 비슷한 감각이 발작과 같이 웃음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된다.

吉田戦車で笑えるか

日本人以外の人が見るとどんな感じがするのか、僕はずっと興味があった。そこで、ために知り合いのアメリカ人に吉田戦車の漫画を見せて、感想を求めてみた。彼の感想はこうだ。

「これ、どこがおもしろいの？単純にあたりまえのことをいっただけじゃない」

ほかの国の人はどうだろう。たまたま韓国人の留学生と知り合ったので、彼にも同じように感想を求めた。

「まったく笑えないし、気味が悪いよ。ずっと見てたら頭がおかしくなりそう。日本じゃこれが人気あるんだって？ こんなの、韓国で翻訳して出版しても、絶対に売れないね」

とにかく共通するのは、「笑えない」ということ。2人とも、何がおかしいのかまったくわからないらしい。

実は、同じ日本人の中にも、吉田戦車じゃ笑えない、という人は多いのだけれど、これが日本特有の新しい笑いの一つである、という仮説に、僕はこだわりたい。日本の方も含めたWe're読者の方々は、どうお考えだろうか。そこで質問、あなたは、吉田戦車で笑えますか？

吉田戦車の作品可“笑”嗎？

我一直感興趣的是，日本人以外の人，如果看了吉田戦車の漫畫會作何感想。我把那漫畫給一個認識的美國人看，並請他發表感想。

“這，有什麼意思？只不過是在講理所當然的事罷了”，他說。

別的國家的人如何呢？我又請一位偶然認識的韓國留學生同樣談談看法。

“根本笑不起來，看着就難受。老看的話非得神經病不可。在日本難道這種東西受歡迎？這種東西如果在韓國翻譯出版的話，絕對賣不出去。”

這兩個人的共通點是“笑不起來”。兩個人根本不明白可笑之處在哪兒。

雖然實際上，有很多日本人也覺得吉田戦車の作品根本笑不起來；但我認為，這畢竟是日本特有的一個新的笑料。我想知道包括日本人的《我們》的讀者，是如何考慮的。好，請您回答：吉田戦車可“笑”嗎？

that has been quietly hiding inside of you and suddenly that something is exposed to the light of day. It's a sensation similar to the fear one experiences when startled and it brings on spasms of laughter. At least that's what I would like to believe.

Do Yoshida Sensha's comics make you laugh?

I had always wondered what foreigners would think of Yoshida's comics, so in order to find out, I showed an American friend. This is what he said. "Huh? What's supposed to be funny? The punchline's so simple it's common sense."

I wanted to get the opinion of someone from another country and as it turned out I just happen to have a Korean student acquaintance. I showed him the comics and asked him what he thought. "This is not funny at all. It's weird. If I read this all the time, I'd probably go nuts. This is what's popular in Japan? If it were translated in Korea, it would never sell."

Anyway, they both shared the opinion that it wasn't funny; I guess these two guys just don't know what's funny.

Actually, there are many Japanese who just don't understand Yoshida Sensha's humor. But I would like to continue thinking that this is a new style of Japanese humor all our own. I would like to ask the wonderful readers of We're what they think.

Is Yoshida Sensha funny?

요시다 센샤의 만화를 보고 과연 웃을 수 있을까!

일본인 이외의 사람이 이 만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나는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서 시험삼아 아는 미국인에게 요시다 센샤의 만화를 보여주고, 감상을 물었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이거, 어디가 재밌어? 단순히 당연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잖아!」

다른 나라 사람의 반응도 들어 보았다. 어쩌다 알게 된 한국인 유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았다.

「전혀 재미없다. 그럼부터가 이상한데다..., 계속 보고 있으면 머리가 이상해 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일본에서 이것이 인기있어? 이런 만화는 한국에서 번역해 출판하더라도 아마 팔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공통하는 것은 「웃기지 않다」라는 것이다. 두 명 모두 무엇이 재미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실은 같은 일본인 중에도 요시다 센샤의 만화가 재미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일본 특유의 새로운 익살의 한 장르이다라는 가설을 내세우고 싶다.

일본인을 포함한 We're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여러분은 요시다 센샤의 만화를 보고 웃을 수 있습니까?

タイ国料理 飲んで、歌って 食べて、楽しめる

F·SALON
TEL:03-3204-1515
新宿区歌舞伎町2-29-7

花 クウオロビーII
TEL:03-3207-7734
新宿区歌舞伎町1-9-10

ブアー
TEL:03-3209-2223
新宿区歌舞伎町2-42-13

- 日本語・タイ語・台湾語・英語のカラオケがたくさん揃っています。
- 各料理、辛さはお好みに合わせます。
- 各店 6:00pm~11:00pm 営業。
- パーティー承ります。お1人様 3,000円 3時間。お気軽にご相談ください。

韓国家庭料理、キムチ・乾物類販売

年中無休 Open 24hrs.

ハレルヤ食堂

ハレルヤ食堂

TEL: 3200-0112

新宿区百人町1-5-6

HLAINE (ライン) さんのミャンマー家庭料理

アメダシピヤン (ミャンマー風ビーフカレー)

ミャンマー料理の特徴は、中国の油とインドの香辛料とタイの味つけの3つの味が活かされています。またほとんどの料理に魚の醤油を使うことです。今回はミャンマーの家庭で最もポピュラーな肉料理のひとつ、ミャンマー風ビーフカレーを紹介いたします。ミャンマー料理をおいしく食べるコツは、よくかき混ぜて食べること。ご飯の上に肉と煮汁をかけて召し上がれ。

萊恩的緬甸家庭風味

阿美塔希品 (緬甸式加哩牛肉)

緬甸風味的特点是集中了中國的油、印度的香辛料和泰國的味道。還有，幾乎所有的菜都使用魚醬油。這回介紹的是緬甸家庭中最普遍的肉菜之一，緬甸風味的加哩牛肉。把飯上蓋上牛肉，澆上汁來吃。欣賞緬甸風味的要點在於要攪拌均勻。

Amedasipyan (Myanmar style Beef Curry)

Myanmar cuisine features three kinds of tastes: Chinese oil, Indian spice, and Thai seasoning. In addition, a fish sauce (something like a soy sauce) is used for most dishes. This time we introduce a Myanmar-style beef curry, one of the most popular meat dishes at home in Myanmar. The best way is to mix everything together completely. You can enjoy eating this beef and gravy on your rice.

아메다시파양 (버어마풍의 비프 카레)

버어마 요리의 특징은 중국의 기름과 인도의 향신료, 타이의 맛, 이렇게 3곳의 미각이 결합된 맛입니다. 또, 대부분의 요리에 생선으로 만든 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버어마의 가정에서도 가장 일반화된 고기 요리중의 하나인 버어마풍의 비프 카레를 소개합니다. 버어마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잘 비벼서 먹을 것, 밥위에 고기와 스프를 얹어 드시기를...

○材料 (4~5人前) : 牛肉 (角切り) 600g、玉ねぎ1個半、生にんにく1片、おろしにんにく大スプーン2杯、生しょうが1片、おろししょうが大スプーン2杯、パプリカ大スプーン2杯、ティップパロス (魚の醤油) 大スプーン3杯、サラダ油1/2カップ、水2カップ、マサラ適量、クミン適量、サヌイモ適量、化学調味料適量

○作り方

- 1 水で洗った牛肉に (血なまぐささをとるため)、塩とサヌイモと化学調味料、ティップパロスを入れ、手でよく混ぜ合わせ10分ぐらいおく。
- 2 熱したフライパンに油を入れ、みじん切りにした玉ねぎとにんにく、しょうがを入れきつね色になるまでよく炒める。そこへパプリカを入れ、さらに炒める。
- 3 2の中に味付けをした牛肉を入れ、水とマサラ、クミンを入れ10分程度煮込み、また水をたし、煮込んで出来上がり。

■ Ingredients for 4-5 servings:

- 600g cubed beef
- 1 1/2 onions
- 1 clove fresh garlic
- 2 large spoonfuls grated garlic
- 1 piece fresh ginger
- 2 large spoonfuls grated ginger
- 2 large spoonfuls paprika
- 3 large spoonfuls of Tiparos (fish sauce)
- 1/2 cup salad oil
- 2 cups water
- Some masala, cumin, sanuimo, and MSG

■ Directions:

1. Wash beef to remove blood, add salt, sanuimo, MSG, and fish sauce. Mix well by hand and leave it for ten minutes.
2. In a heated frying pan, put oil, chopped onion, garlic, and ginger and fry them until they become dark. Then add paprika and continue to fry.
3. Put (1) into (2), then add water, masala, and cumin. Stew the mixture for about ten minutes. After that, add water and stew a little longer.

○材料 (4~5人份) : 牛肉 (切塊) 600克、洋葱1個半、生蒜1瓣、蒜泥兩大匙、生姜1塊、姜末兩大匙、辣椒粉兩大匙、魚醬油3大匙、沙拉油半杯、水兩杯、伽拉麻香料適量、小茴香適量、薩努適量、化學調味料適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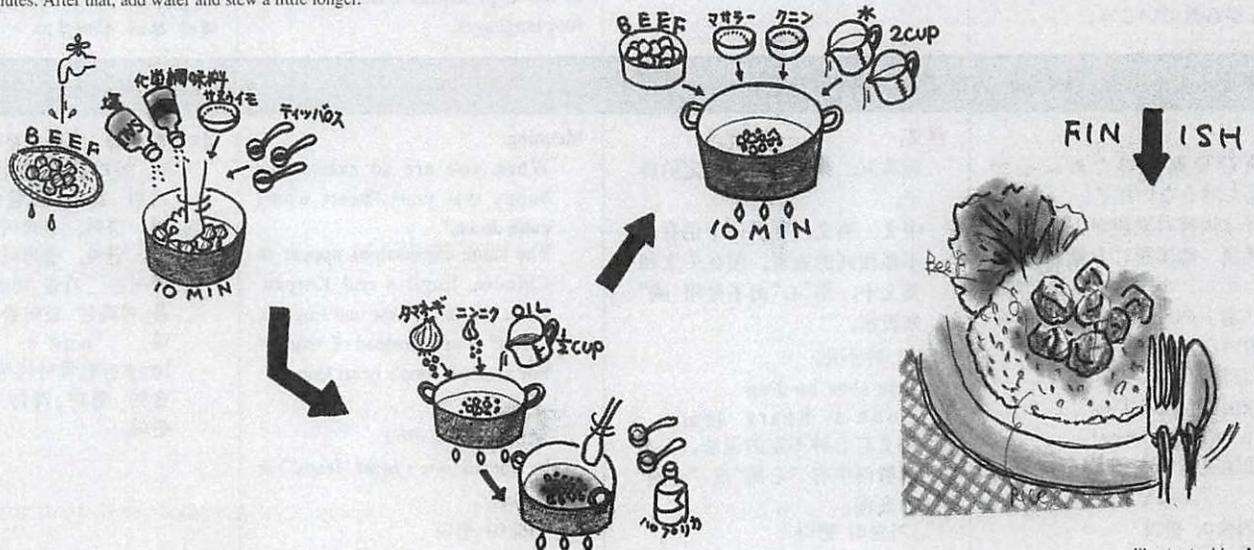
○作法:

- 1 將牛肉用水沖洗 (去掉血腥味); 加入鹽、薩努薯、化學調味料和魚醬油; 用手攪拌均勻後放置約十分鐘。
- 2 將油倒入燒熱的煎鍋, 放入切碎的洋葱、蒜、姜, 炒至焦黃色。在加上辣椒粉繼續炒。
- 3 將煨上味的牛肉放入2中, 加上水、伽拉麻和小茴香, 煮十分鐘左右, 然後再加水煮即可。

재료(4~5인분) : 쇠고기(토막낸 것) 600g, 양파 1개 반, 마늘 1개, 같은 마늘은 큰 스푼으로 2스푼, 생강 1개, 같은 생강 큰 스푼으로 2스푼, 파프리카(일종의 고추로 만든 향미료) 큰 스푼으로 2스푼, 티파로스(생선으로 만든 간장) 큰 스푼으로 3스푼, 사라다유 1/2컵, 물 2컵, 마사라(스파이스의 한 종류) 적당량, 쿠민(스파이스의 한 종류) 적당량, 사누이모(스파이스의 한 종류) 적당량, 화학 조미료 적당량.

조리방법 :

1. 물로 씻은 쇠고기(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에다, 소금, 화학 조미료, 티파로스를 넣어 손으로 잘 섞은 다음 10분간 놓아둔다.
2. 불로 달린 후라이팬에 기름을 넣어 갈게 썬 양파, 마늘, 생강 등을 넣어 율은 갈색이 될 때까지 볶는다. 그 곳에 파프리카를 넣어 다시 볶는다.
3. 2번 속에 맛을 낸 쇠고기를 넣고, 물과 마사라, 쿠민을 넣어 10분 정도 충분히 끓인 다음, 그 곳에 다시 물을 넣어 끓이면 완성.



Illustrated by Miyuki

P Q W E R Language

言葉は文化だ。同じ単語でもその表現は文化の違いによって独自性を持つ。各国の文化が生み出す意外な表現にスポットをあててみよう。

語言就是文化。即使是相同的單詞，其表現也因文化而異。受各國文化影響，產生出不少意想不到的表達方式。特此列舉出來。

Words are culture. Their meanings, even when using the same word, can differ greatly depending on culture. We hope to show you the many unexpected expressions created by different countries' cul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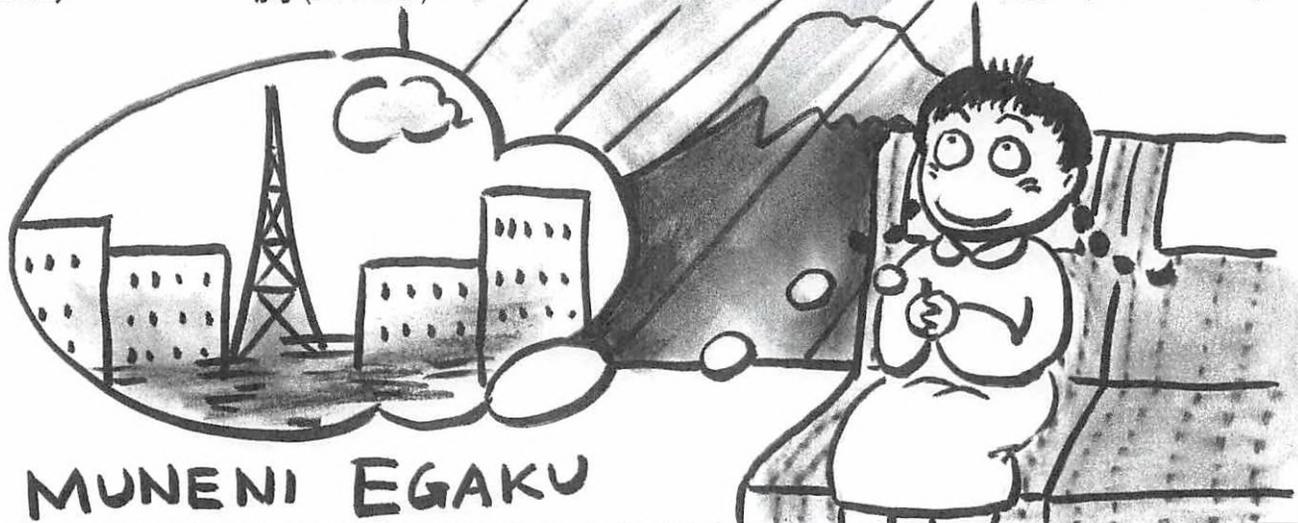
말은 문화다. 같은 단어라도 그 표현은 문화의 다름에 따라 독자성을 갖는다. 각국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의외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

胸 (MUNE)

胸 (XIŌNG)

CHEST

가슴 (KASUM)



今月のテーマは胸。日本語では、「胸」という言葉で「心」の意味を表わすことが多いが、この点は韓国語もよく似ている。一方、中国語や英語では、「心」の意味で「胸」という言葉を使うことは少なく、この2つの言葉はかなりはっきりと区別されているようだ。

それではまず、各国共通の言いまわしから見ていこう。

这个月的题目是“胸”。在日语中，用“胸”来表示“心”的例子很多。在这一点上，与朝鲜语很相近。但在中文、英文中，用“胸”来表示“心”的情况很少，这两个词在使用上，划分得相当清楚。

先来看看各国相同的表现。

This month's theme is expressions that refer to the chest or breast. In Japanese, as well as in Korean, there are many expressions where chest is used to mean "the heart." This is not the case in Chinese and English, where the two are clearly distinguished.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expressions common to the four languages.

이번 달의 테마는 가슴. 일본에서는「가슴」이라는 말로「마음」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은 한국어도 매우 비슷하다. 한편, 중국어와 영어에서는「마음」의 뜻으로「가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다. 이 두 단어는 확실히 구별되어 있는 듯 하다.

그러면, 우선 각국의 공통표현에서부터 살펴보자.

■胸をおどらせる [MUNE WO ODORASERU]

意味:

喜びや興奮のために心が落ち着かない様子。

ほぼ同様の表現が、中国語、英語、韓国語にも見られる。ただし、中国語と英語では、「胸」のかわりに「心」を用いる。

心神不定

xīn shén bù dìng

「one's heart leaps」

韓国語では、「胸が跳ぶ」という表現を用いる。

가슴이 뛴다

(kasumi ddwinda)

释义:

因高兴、兴奋而心神不定的样子。

中文、英文、朝鲜语中也有差不多相同的表现。但在中文和英文中，用“心”而不是用“胸”来表示。

心神不定

xīn shén bù dìng

「one's heart leaps」

中文有心神不定的说法。

朝鲜语中有“心跳”或“心跳”的表现。

가슴이 뛴다

(kasumi ddwinda)

Meaning:

When you are so excited or happy that your "heart won't calm down."

The same expressions appear in Chinese, English and Korean. However, in Chinese and English, "heart" is used instead of "chest." For example, one's heart leaps.

心神不定

xīn shén bù dìng

In Korean, one's heart "leaps," or "runs."

가슴이 뛴다

(kasumi ddwinda)

의미: 환희나 흥분때문에 마음

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 거의 같은 표현이 중국어, 영어, 한국어에도 있다. 단지, 중국어와 영어에서는「가슴」대신에「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one's heart leaps」한국어에서는「가슴이 뛴다」라는 표현을 쓴다.

■胸がすく [MUNE GA SUKU]

<p>意味: 心のわだかまりが取れて、すっきりする。 これと共通した言いまわしは、英語と韓国語にも見られる。英語では、「胸からあるものを取り去る」と表現し、悩みごとなどを他人に打ち明けてさっぱりすることを指す。 「to get something off one's chest」 韓国語では、「胸がすっきりする」と言う。 가슴이 후련해지다 (kasumi huryonhejida)</p>	<p>释义: 心旷神怡，心裏痛快。 与此相同的表现，在英文和朝鲜语中也存在。英文用“移去胸中块垒”，表现把烦恼向别人和盘托出后，心裏轻 的感觉。 “to get something off your chest” 朝鲜语用“胸中敞快”来表现。 가슴이 후련해지다 (kasumi huryonhejida)</p>	<p>Meaning: To get something off your chest. This expression is found in both Korean and English. In English, “to get something off your chest” means to confess something that’s been bothering you. The Korean expression means “to feel refreshed” after a confession. 가슴이 후련해지다 (kasumi huryonhejida)</p>	<p>의미: 마음속에 거치적거림이 없 이 상쾌한 상태를 말함. 이것과 공통된 표현이 영어 와 한국어에도 있다. 영어 로는 「가슴에서 어떤 것을 없앴」이라고 하며, 고민등 을 타인에게 고백해 마음 이 후련해 지는 것을 가르 칩. 「to get something off one's」한국어로는 「가슴이 후련해지다」라고 한 다.</p>
---	---	---	---

「胸」を使った言いまわしでは、日本語と韓国語で共通するものが多く見られる。そのうちのいくつかを紹介しよう。

日语和朝鲜语中關於“胸”的相同表现很多。在此介绍几例。

Japanese and Korean share many expressions in common that refer to the chest. Let's take a look.

「가슴」을 사용한 표현으로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공통되는 것이 많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한다.

■胸に手をあてる [MUNE NI TE WO ATERU]

<p>意味: じっくりと反省する。 親が子を叱るときなどに、「胸に手をあててよく考えてみなさい」といった形で使う。韓国語では「胸に手を載せる」というのが同じ意味になり、使い方もよく似ている。 가슴에 손을 얹다 (kasume sonul ontta)</p>	<p>释义: 扪心自问。 父母教训孩子时，常说：“把手放在胸前，好好地想想！” 朝鲜语中的“把手放在胸上”，在意思和用法上都与此相近。 가슴에 손을 얹다 (kasume sonul ontta)</p>	<p>Meaning: To take time to reflect on something. A scolding parent will often tell a child to “put your hand on your heart and think about what you have done.” A similar expression exists in Korean. 가슴에 손을 얹다 (kasume sonul ontta)</p>	<p>의미: 곰곰이 반성하다. 부모나 아이를 혼낼 때에 「가슴에 손을 대고 천천히 생각해!」라는 식으로 사용한다. 한국어로는 「가슴에 손을 얹다」라는 것이 같은 뜻이 되며, 사용법도 거의 같다.</p>
--	--	--	--

■胸がドキドキする [MUNE GA DOKIDOKI SURU]

<p>意味: 期待や恐れ、羞恥などのために、心臓が高鳴る。 「ドキドキ」は心臓の激しい鼓動の音を表わす擬音語。韓国語にもこれとそっくりな、擬音を用いた表現がある。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 (kasumi dugundugun hada) この心臓のドキドキという音とひっかけた面白い表現に、「胸が2斤半・3斤半になる」というものがある（「斤」は昔の重量の単位。胸の重さが一定でないのでそわそわと落ち着かない、という意味がこめられている）。</p>	<p>释义: 因期待、害怕、羞耻等原因，心脏砰砰地跳。 “ドキドキ”是心脏激烈跳动的拟声词。朝鲜语中也使用相近的拟声词来表现。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 (kasumi dugundugun hada) 与这心脏的跳动声相关，还有一个有趣的表现：“心一会儿两斤半，一会儿三斤半”。（斤是旧时的重量单位）其中是以心的重量不定来表现心神不定。</p>	<p>Meaning: When one's heart goes pitter pat from excitement or fear. The wild beating of one's heart is represented by the sound "doki doki" in Japanese and "dugeun dugeun" in Korean.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 (kasumi dugundugun hada) There is another interesting phrase that expresses the heart's restlessness and plays on the “dugen dugeun” of this expression: “My heart grew heavier by two-and-a-half geun, three-and-a-half geun,” where “geun” is a measure of weight used long ago.</p>	<p>의미: 기대나 공포, 수치등으로 인해 가슴이 뛰는 것을 표현한 말. 「도키도키」는 심장이 심하게 고동치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 한국어에도 이와 같은 의성어의 표현이 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는 표현과 비슷한 재미있는 표현으로 「가슴이 두근 반, 세근 반이 된다」라는 것이 있다. (「근」이라는 것은 옛날 무게단위, 가슴의 무게가 일정치 않고 침착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다)</p>
---	--	---	---

■胸が裂ける [MUNE GA SAKERU]			
意味: 非常に悲しみなどのために苦しむ。 日本語では、「胸が張り裂けそうな思い」といった形で用いることが多い。韓国語にも同じ表現がある。 가슴이 찢어지다. (kasumi jjirojida)	释义: 因为极度悲伤等原因而感到痛苦。 在日语裏多用“胸都要裂开了”来表现; 朝鲜语中也有相同的表现。 가슴이 찢어지다. (kasumi jjirojida)	Meaning: To suffer extreme heartache or sadness. In both Japanese and Korean, this expression is often used to describe a “memory that could break your heart.” 가슴이 찢어지다. (kasumi jjirojida)	 의미: 매우 큰 슬픔을 표현한다. 일본어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생각」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에도 같은 표현이 있다.
それでは、各国独自の言いまわしを見てみよう。	再来看看各国独自的表现。	Now let's take a look at the expressions unique to each language.	그러면, 각국의 독자적인 표현을 살펴보자.

日本語編

■胸に描く [MUNE NI EGAKU]			
意味: 物事を想像して、心にあれこれと思い描くこと。	释义: 想像某件事, 在心裏描绘有关情形。	Meaning: To imagine something and “draw a picture of it” in your heart.	 의미: 여러가지 상상을 해, 마음 속에 이것저것 생각을 그린다 뜻.
例文: 新幹線の中で、百合は東京に出てからの新しい生活を胸に描いてみた。			
読み方: SHINKANSEN NO NAKADE YURI WA TOKYO NI DETEKARANO ATARASHII SEIKATSU WO MUNE NI EGAITE MITA.	例句: 坐在新干线裏, 百合在心裏描绘着到东京后的新生活。	Example: As Yuri was riding the bullet train, she thought about her new life in Tokyo and drew a picture of it in her heart.	 예문: 신칸선 안에서 유리는 동경으로 가서 시작할 생활을 가슴에 그려보았다.
■胸にきく [MUNE NI KIKU]			
意味: 自問自答する。通常、「自分の胸にきく」という形で用いて、自分に非があったかどうかを自ら考えてみることを指す。	释义: 自問自答; 扪心自問。经常以“自分の胸にきく”的形式, 表示反省自己是否有所过错。	Meaning: To ask yourself, in your heart of hearts, whether you've done some wrong.	 의미: 자문자답함, 통상 「자기 가슴에 들어봄」이라는 식으로 표현.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자기가 생각해 보는 것을 가
例文: おまえが彼女にどんなひどいことをしたのか、自分の胸にきいてみる。			
読み方: OMAE GA KANOJO NI DONNA HIDOI KOTO WO SHITANOKA JIBUN NO MUNE NI KIITE MIRO.	例句: 你应该扪心自问, 是不是对她太残酷无情了。	Example: Ask yourself in your heart of hearts whether you've done her wrong.	 예문: 네가 그녀에게 얼마나 심한 일을 했는가 자기 가슴에 들어 바라!

中国語編

■胸无城府 [xiōng wú chéng fū]			
意味: 胸に城府なし。胸に隠し立てするところがない、ということ。	释义: 形容人胸怀坦白, 心裏没有隐藏坏主意的地方。	Meaning: To have no walls around your heart, to keep no secrets.	 의미: 가슴속에 타인과의 거리가 없음. 가슴에 숨기고 있는 것이 없다는 뜻.

<p>例句：他是一个胸无城府、襟怀坦白的人，我很喜欢他。</p>			
<p>例文： 彼は胸に隠し立てのない人なので、私は大好きです。</p>	<p>tā shì yíge xiōng wú chéng fǔ, jīn huái tǎn bái de rén, wǒ hěn xǐ huan tā.</p>	<p>Example: I like him because he keeps no secrets in his heart.</p>	<p>예문:그는 가슴에 숨기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서 정말 좋다.</p>
<p>■胸有成竹 [xiōng yǒu chéng zhú]</p>			
<p>意味： 胸に成算がある。仕事にとりかかる前に、心の中で完成の見込みがついていること。</p>	<p>释义： 指作事之前已经有通盘的考虑。一件事着手之前，在心中形成如何完成的计划。</p>	<p>Meaning: To have total confidence. To know exactly what to expect before tackling a task.</p>	<p>의미:가슴에 성공할 승산이 있음.일을 시작하기 전에 심중에 완성할 승산이 있는 상황을 가르킴.</p>
<p>例句：那件事你不必担心，他早已胸有成竹。</p>			
<p>例文： その件については心配しなくてもいいですよ。彼はすでに成算を抱いていますから。</p>	<p>nà jiàn shì nǐ bú bì dān xīn, tā zǎo yǐ xiōng yǒu chéng zhú.</p>	<p>Example: There's no need to worry about that. He has everything under control.</p>	<p>예문:그 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승산이 있으니까</p>

韓国語編

<p>■가슴에 불이 붙다(kasumi buri butta)</p>			
<p>意味： 胸に火がつく。怒りなどで感情がひどくたかぶる様。</p>	<p>释义： 意为胸中有火在燃烧。指因愤怒等原因，非常亢奋的样子。</p>	<p>Meaning: To "light a fire" in one's breast. To experience extreme anger or other emotion.</p>	<p>의미:화가 나 감정이 심하게 흥분되어 있는 모습.</p>
<p>예문:김씨는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서 가슴에 불이 난 사람처럼 화가 나 있었다.</p>			
<p>例文： 金さんは詐欺にあって、警察署で胸に火がついたように怒っていた。</p>	<p>例句： 小金被人诈骗，在警察局他怒火中烧、气愤万分。</p>	<p>Example: Kane went to the police furious with anger because he had been swindled.</p>	<p>읽는법:kimsshinun sagirul dangheso gyonchalsoeso kasumi buri nan saram chorom hwaga na issotta</p>
<p>■가슴이 떨리다(kasumi ddollida)</p>			
<p>意味： 胸が震える。とてもいやなことがあったときや、非常に怖い思いをしたときに使う表現。「足が震える」ともいう。日本語でも「足が震える」という。</p>	<p>释义： 意为胸在发抖。表现遇到特别厌恶的事；或感到非常恐怖。也说“腿发颤”，而在日语中只有“腿发颤”的表现。</p>	<p>Meaning: To tremble or shake with fear or disgust. This can also be expressed by the idiom one's legs are shaking. The same idiom also exist in Japanese.</p>	<p>의미:매우 기분이 나쁘거나 몹시 무서운 생각을 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다리가 떨리다」라고도 한다. 일본어로는「다리가 떨리다」라는 표현만을 쓴다.</p>
<p>예문:어젯밤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무서웠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립니다.</p>			
<p>例文： 昨夜家に泥棒が入りました。ほんとに怖かったので、今考えても胸が震えますよ。</p>	<p>例句： 昨夜夜裏，小偷钻到家裏来，真是可怕。现在想起来心裏还发抖呢！</p>	<p>Example: Last night, a thief got into the house. I was so scared, even now I tremble when I think about it.</p>	<p>읽는법:osetpam jibe dodogi durowatumnida jongmai musowotta jigum sengakedo kasumi ddollimnida</p>

英語には、「胸」を用いた独自の表現は見つけられなかった。次号は「腹」です。

在英语裏没有找到有关“胸”的独特的表现。
下一期谈谈“腹”。

There were no expressions unique to English that use "chest."
Next month, we'll take a look at expressions that refer to the stomach.

영어에서는「가슴」을 사용한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 호의 테마는「배」입니다.

4	新橋 (SHIMBASHI) 鐵道發祥の地	The birthplace of the Japanese railroad
<p>駅から海側にある汐留貨物駅が、鉄道の発祥の地。この一帯は終戦直後はヤミ市が非常にさかえた場所だった。雑居ビルが並び、サラリーマン利用客の多い駅。</p>	<p>在車站靠近海的一側，有汐留貨物站。這是鐵路的發祥地。二次大戰剛剛結束時，這一帶黑市盛行。現在雜居大樓很多。衆多的公司職員利用這個車站。</p>	<p>The Shiodome cargo station along the ocean side is the birthplace of the Japanese railroad. This area used to be a very popular place for black markets right after the war. There are so many office buildings for companies around the station that you will notice a lot of salarymen around here.</p>
5	有楽町 (YURAKUCHŌ) 日本のブロードウェイ!	Japan's Broadway
<p>駅から日比谷、銀座周辺は帝国劇場や宝塚をはじめ、多くの劇場や映画館がある。日比谷公園、皇居は歩いてすぐ。駅近くには、便利な外国人総合案内所がある。</p>	<p>從車站開始到日比谷、銀座附近，有帝國劇場、寶塚劇場等很多劇場和電影院。走不了幾步就是日比谷公園、皇宮。車站附近設有方便的外國人綜合問訊處。</p>	<p>There are many performance and movie theaters near the station in the Hibiya and Ginza areas, including the Teikoku (Imperial) Theater and the Takarazuka Theater. Hibiya Park and the Emperor's Palace are within walking distance of the station. The Tourist Information Center for foreign visitors is also helpful and very near the station.</p>
6	東京 (TŌKYŌ) 東京の表玄関口	The front door to Tokyo
<p>赤煉瓦のルネサンス様式の駅舎が特徴。穴場は、駅構内の男性サウナ専用の「東京温泉」。ステーションギャラリーや、ときには構内無料コンサートも開かれる。皇居まで歩いて10分。</p>	<p>紅磚結構的文藝復興式的車站大樓是東京站建築的特徵。人們往往忽略了站內有專供男性使用的“東京溫泉”。站內時有繪畫展覽；還舉行免費音樂會。離皇宮步行10分鐘。</p>	<p>The red brick station hall, constructed in Renaissance style, can be easily seen by everyone. An out-of-the-way place inside the station is "Tokyo Onsen," a spa with a sauna for men only. In the lobby, station gallery exhibits and occasional free concerts are held. The Emperor's Palace is a ten-minute walk away.</p>
7	神田 (KANDA) 江戸っ子のきっぷが健在	The Edokko (native Tokyoite) spirit is still alive here
<p>駅周辺は問屋街として知られ、駅北口のたぬき小路には、安い飲食店が並ぶ。戦前の面影を残す建物も多く、下町風情が味わえる。神保町には全国の3分の2を占める古書店街がある。</p>	<p>以車站周圍的批發街聞名。在車站北口的狐狸小路裏，便宜的飲食店一間挨一間。這一帶的建築還多殘留著戰前的風貌，可以品味到商業街的風情。附近神保町聚集著全國三分之二的舊書店。</p>	<p>Many wholesale stores are concentrated around the station, and in Tanukikoji (raccoon's alley) near the north exit, there are many inexpensive restaurants and bars. You will notice that many buildings still maintain a pre-war ambiance. Two thirds of Japan's secondhand bookstores are located in Jimbocho.</p>
8	秋葉原 (AKIHABARA) 世界最大の電気街	The biggest electrical goods district in the world
<p>戦後いち早く駅周辺に電化製品の店が建ち並び、現在では約600店の電気店がひしめきあう。日本の交通の歴史が一目でわかる交通博物館は徒歩5分。</p>	<p>戦後在車站周圍，電氣製品店迅速增多，現已有約六百家電氣店林立於此。在離車站步行5分鐘處的交通博物館，可以使你對日本的交通史一日瞭然。</p>	<p>After the war, a few electrical goods stores began operating in the vicinity and now there are about 600 stores in this district. It takes five minutes to The Traffic Museum on foot, where you can learn about Japan's traffic history.</p>
9	御徒町 (OKACHIMACHI) 師走の風物詩、アメ横入り口	The way to America Alley
<p>戦後すぐ、ガード下にヤミ市が立ったのがアメ横のはじまり。舶来品や生鮮食品の安売り店が並び、ここで買い物を楽しむコッとはとにかく値切ってみること。</p>	<p>AME横丁街起於戰後很快出現於鐵道橋下的黑市。這裏擠滿了進口貨、生鮮食品的賤賣商店。在AME横丁街買東西的秘訣在於，不管怎麼樣先討價還價。</p>	<p>The origin of this alley stems from the black markets which opened under the girder bridge after the war. Many stores selling cheap, imported, or perishable goods are now crowded together here. You will find heavy crowds during December, the busiest month. At any of the stores, try asking for a discount to better enjoy your shopping.</p>
10	上野 (UENO) 北へ向かうならこの駅	The best station for going north
<p>東北、上越の発着が東京まで延長され、東北への玄関といえなくなったのがさびしい。上野公園内の美術館、博物館をのぞくもよし、駅前に点在する本場韓国料理店で食事するもよし。郷愁ある雑多な東の中心街。</p>	<p>東北、上越方面到發站已遷移到東京站，讓人感到曾是前往東北方向大門的車站顯得有點冷清。但是，可以到上野公園內的美術館、博物館看看，也可以去光顧一下站前散在的正牌韓國飯館，觀察一下東京東部這飄蕩著鄉愁的繁雜的中心街道。</p>	<p>It's a pity that Ueno station is no longer the doorway to Japan's northeast due to the extension of shinkansen service to the Tohoku and Joetsu areas from Tokyo station. You can enjoy yourself in many ways here, including going to the art gallery or museum in Ueno Park or dining at one of the many Korean home-style restaurants scattered around the station. Ueno is both nostalgic and diverse and is the center of the eastern part of Tokyo.</p>
11	鶯谷 (UGUISUDANI) 昔は寺町、今はラブホテルが林立	Old temples, new love hotels
<p>駅名の由来は、江戸時代、ウグイスの音がさかんに聞かれたから。色街として有名なが、実は少しまじくとお寺が多い。朝顔市で有名な入谷鬼子母神がある。</p>	<p>因在江戸時代，這一帶可聽到很多白喉鶯的叫聲而得名。這裏是有名的花街柳巷，但實際上多走幾步，就會看到很多寺廟。那裏還有因牽牛花市而聞名的入谷鬼子母神。</p>	<p>The name "Uguisu-dani" originated when many people used to hear Japanese nightingales singing here during the Meiji era. The town is also famous for its adult entertainment. And if you walk around, you will notice that many old temples still remain, including Iriya Kishibojin, famous for its morning glory fair.</p>

AMUSEMENT

12	日暮里 (NIPPORI) 昔懐かし駄菓子屋横丁 日暮里中央通りには織物の問屋街があることでも知られている。都内有数の墓地を持つ谷中霊園が駅南側に広がる。下町と山手の中間の味わいのある土地柄。	Street of old-fashioned, cheap candy shops The wholesale textile goods district along Nippori-chuo Street is well known in Japan. Yanaka-Reien, one of the largest cemeteries, is located on the south side of the station. This area may be considered an intermediate spot between uptown and downtown.	
13	西日暮里 (NISHINIPPORI) いちばん新しい駅 山手線のなかでいちばん最後にできた駅。駅西側にある青雲寺は、別名花見寺としても名高く、谷中七福神のなかのひとつ、恵比寿を祀る。谷中七福神巡りがおすすめ。	The last station built along the Yamanote line Seijunji, located on the west side of the station, is famous as a good cherry viewing place and even has a nickname about this. Ebisu-sama, one of the seven gods of good fortune, is enshrined here. Yanaka's town of the seven gods is recommended.	
14	田端 (TABATA) 隅田川、荒川が流れる町 かつて周辺には、作家芥川龍之介など多くの文士が住んでいてそのあたり一帯は「文士村」と呼ばれていた。	The town with the Sumida and Ara rivers In the past, many writers, including Ryunosuke Akutagawa, made their homes here. Tabata is nicknamed "Writers' Village."	
15	駒込 (KOMAGOME) 名物、駅ホーム土手のつつじ 江戸2大庭園のひとつ、日本の庭園が見事に広がる六義園と、日本の和・洋庭園が楽しめる旧古河庭園も近い。	Platform azaleas This station features azaleas planted on the platform. Nearby is one of the two biggest Edo gardens, a spectacular Japanese garden called Rokugien. Also look for Furukawa Garden, a mixed-style garden near the station.	
16	巢鴨 (SUGAMO) おばあちゃんのお原宿 とげぬき地蔵の門前駅。地蔵通りでは、モンペなど昔ながらのものが安く買える。縁日(毎月4日、14日、24日)には多くの出店もでて活気づく。	Grandmas' Harajuku Sugamo is similar to Harajuku, but is favored by senior citizens. Togenuki Jizo is in front of the station. On this street, old-fashioned goods such as Mompe work pants are available at low prices. Every month on the 4th, 14th, and 24th, the area becomes busy with many open-air stalls.	
17	大塚 (ŌTSUKA) チンチン電車の乗り換え駅 戦前まで花柳界としてさかえ、多くの芸者でにぎわっていた。いまも置き屋が残る。9月に行われる大塚阿波踊りはみもの。	A convenient place for catching the streetcar Before the war, this area used to be the red light district and housed many geisha girls. Some geisha houses still remain here. The Otsuka Awa Dance held in September is a spectacular dance festival.	
18	池袋 (IKEBUKURO) 東洋一のデパートが誕生 新宿に次いで乗降人員の多い駅。西口公園あとには、地上3階までのエスカレーターがある東京芸術劇場ができ、明るい街に生まれ変わりつつある。古くからの個性的な小劇場も多い。	The biggest department store in the East has opened here. Ikebukuro station has the second largest number of passengers, after Shinjuku station. The Tokyo Metropolitan Art Space near the west exit park has an escalator to the third floor and resembles a cheerful town. There have been unique small theaters around here since olden times.	
19	目白 (MEJIRO) 学園と閑静な住宅街 ホテル「椿山荘」では6月から7月上旬の毎晩、ホタル観賞が楽しめる。毎年展示されるかかし展は目白駅構内の風物詩。	A quiet campus and residential district. You can enjoy watching fireflies every night from June until the beginning of July at the Hotel Chinzanso. The annual Scarecrow Fair is a feature of Mejiro station.	
20	高田馬場 (TAKADANOBABA) 学生抜きに語れない街 早稲田大学をはじめ、多くの予備校と専門学校が学生のこった返す駅。学生街だけに安い定食屋、飲み屋が多い。近くを流れる神田川周辺には、いまでも手描き友禅の染織工場が残っている。	Students' Town There are many prep school and vocational school students in this area, as well as students attending Waseda University. Many reasonable bars and daily-special restaurants serve the student population. Kanda River runs near the station, and a couple of dye works for Yuzen handicrafts still remain around here.	
21	新大久保 (SHINŌKUBO) 東京のなかの外国! 駅周辺には、ミャンマー、コロンビア、台湾、シンガポールなどの料理店や物産店などが多い。ここはこと、思わず錯覚してしまうほど異国気分が味わえる。	Tokyo's multicultural community Around the station, you will find many restaurants and shops from countries such as Myanmar, Columbia, Taiwan, and Singapore, among others. You may get the impression you are no longer in Japan.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22</p>	<p>新宿 (SHINJUKU) 日本一の乗降客駅</p> <p>都庁が西口に移転し、新都心となりつつある。高層ビル群の西と歓楽街の東と対照的な街。休みに世界の大芸人も集まる、気取らない賑わいを残した街。</p> <p>東京都廳轉移到車站西口，使這裏日益成爲新的東京都中心。西側的高層大樓，與東側的娛樂街形成了鮮明的對照。假日裏，來自世界各地的賣藝人聚集此地獻藝，但却掩蓋不住大街小巷的熙攘之氣。</p>	<p>The station with the most passengers</p> <p>Tokyo's Metropolitan Center has been moved to the west side of the station and it is becoming the new city center. West Shinjuku's skyscrapers stand in contrast to the east side's amusement spots. On Sundays and holidays, street performers from many countries gather around here and a casual and somewhat unrefined ambience develops.</p>	<p>도정역이 서쪽 출구로 이전해, 신도심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고층빌딩이 밀집된 서쪽과 환락가인 동쪽이 대조적이다. 휴일에는 이곳에 세계 여러나라의 퍼포먼스들도 모여든다. 젊잖스러운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거리.</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23</p>	<p>代々木 (YOYOGI) 予備校と共産党の街</p> <p>共産党本部の代名詞でもあり、予備校が多い場所。都心の憩いの場、緑あふれる新宿御苑が近い。球場、国立競技場などがある神宮外苑も散歩コースに最適。</p> <p>代代木是共產黨總部的代名詞，也有很多補習學校。綠樹成蔭的新宿御苑離此不遠，是都心部的休憩之地。此外還有球場，國立競技場；在神宮外苑是最好的散步場所。</p>	<p>The town of prep schools and the Communist Party</p> <p>Yoyogi is known for the headquarters of the Japan Communist Party and also for its many prep schools. Shinjuku Gyoen, a park for relaxing amid the greenery and very centrally located, is close to the station. Jingu Gaien, the outer gardens of Meiji Shrine with a ball park and national sports ground, is recommended for walks. "Jingu Gaien", the outer gardens of the Meiji Shrine with a ball park and a national ground is recommended for walks.</p>	<p>공산당 본부의 대명사이기도 하며, 학원이 많은 곳. 도심속의 휴게지로 녹음이 우거진 신쥬쿠교엔이 가깝게 있다. 야구장, 국립경기장 등이 있는 진구 가이엔도 산책 코스로는 그만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24</p>	<p>原宿 (HARAJUKU) 若者のファッション通り</p> <p>日本國中原宿を知らない若者はいない(!!)。かつて竹の子族が一世風靡した日曜日の歩行者天国は、今はイラン人村へと時代が移り変わった。表参道までのけやき並木はヨーロッパ風情。</p> <p>日本的年輕人誰不知道原宿街！在星期天的“步行者天國”，昔日是“筍之族”風靡一時，今天却正隨時代的變化漸漸成爲伊朗人村。從原宿到表參道沿路是富於歐洲風情的山毛櫸樹林蔭道。</p>	<p>Young peoples' place for fashion</p> <p>Japanese youth consider Sundays in Harajuku to be "Pedestrian Paradise" and the closed streets are taken over by takenokozoku (street dancers). It has also become a place for Iranian visitors to meet. A zelkova tree-lined avenue with a European feeling leads to Omotesando.</p>	<p>일본 전국에서 하라주쿠를 모르는 청소년은 없을 것이다. (!!) 옛날부터 타케노코족이 일제풍미하고 있는 일요일에는 브랜자 천국이 된다. 지금은 이란인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오모테산도까지 이어지는 느티나무 가로수는 유럽풍의 분위기를 자아낸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25</p>	<p>渋谷 (SHIBUYA) 忠犬ハチ公前で待ち合わせ</p> <p>若者の街で、渋谷カジファッションもこの街に集まる高校生から生み出された。代々木公園や南口の東急文化会館では休日にリサイクルショップが開かれ、掘り出し物大いにあり。</p> <p>年輕人的街，聚集在這裏的高中生創出了“澀谷時裝”。假日裏，在代代木公園或車站南口的東急文化會館的修舊利廢攤上，舊貨不少。</p>	<p>"Meet me at Hachiko"</p> <p>It's common to wait for friends in front of the statue of Hachiko. So many young people gather here that Shibuya-style casual fashion was practically invented by these high school students. At Yoyogi Park and at the south exit of the Tokyo Bunka Kaikan, Sunday flea markets offer many shopping bargains.</p>	<p>젊은이들의 거리로서 시부까지(시부야케주업) 패션도 이곳에 모여드는 교생들로부터 생겨난 말. 요요기 공원이나 남쪽 출구의 트류우문화회관에서는 휴일에 리사이클·숍이 열려 뜻밖에 진귀한 물건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26</p>	<p>恵比寿 (EBISU) ビール出荷駅としてスタート</p> <p>夏になると駅構内には列車のビアホールがオープンする。流行をリードする代官山には、おしゃれな店がたくさんあって、ウィンドウショッピングだけでも楽しい。</p> <p>到了夏天，站內舉辦列車啤酒廳。在附近領導時裝新潮流的代官山，有很多時裝店。逛進商店，光看不買也很有意思。</p>	<p>Begun as a beer delivery station</p> <p>In the summer time, a beer hall set up to resemble a train is opened in the station lobby. On fashionable Daikanyama street, you can pass time browsing in all the stylish shops.</p>	<p>여름이 되면 역구내에서는 열차를 이용한 비어·홀이 오픈된다. 유행을 리드하는 다이칸야마에는 세련된 가게들이 많이 있어 윈도우 쇼핑을 즐기기도 좋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27</p>	<p>目黒 (MEGURO) 目黒不動とサンマ</p> <p>有名な落語にあるように「サンマといえば目黒」。近くの自然教育園では、自然景観を堪能できる。目黒不動では毎月8のつく日に市が立つ。なかにある滝の水は地下水で、都心には珍しく飲むことができる。</p> <p>“要說秋刀魚就得上目黒”的說法是相聲中的大王說的話，一直到今天還有人這麼說。在附近的自然教育園，保留着大片的自然景觀。目黒不動尊每月逢八有集。在其中的小瀑布可以喝到在城裏不易喝到的地下水。</p>	<p>Megurofudo and a mackerel pike</p> <p>The reason is lost to history, but even now we are reminded of mackerel pike when we hear the name Meguro. At the nearby National Park for Nature study, you can enjoy the scenery. At Megurofudo, fairs are held three days a month, on the 8th, 18th, and 28th. There is a groundwater spring here, but of course in the city center it is rare that the water is drinkable.</p>	<p>유명한 만담속의 “공치라고하면 메구로”라는 말이 있다. 가까운 자연교육원에서는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메구로 부동명왕(불교용어)에서는 매월 8자가 들어간 날에 시장이 열린다. 그곳에 있는 폭포수의 물은 지하수로서 아직까지 그냥 마실 수 있다는 것에 매력적이 있지 않은지.</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28</p>	<p>五反田 (GOTANDA) 富士山が見えたホーム</p> <p>駅名の通りあたり一帯は田が広がっていた。足を伸ばすと、美しい回遊式庭園をもつ池田山公園がある。</p> <p>這裏有與站名相同的大街還有一片片的田地。稍微走幾步，就可以到池田公園，園裏有美麗的回遊式庭院。</p>	<p>View Mt. Fuji from the platform</p> <p>Rice fields once spread out in all directions here, hence the name Gotanda. Beyond the station, there is a beautiful excursion-style garden, Kedayamakoen.</p>	<p>역 이름 그대로 일대는 밭이 있었다. 그 역에서 조금 더 가면 유람식 정원이 있는 이케다야마 공원이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29</p>	<p>大崎 (ŌSAKI) 大小の工場が多い街</p> <p>はじめは貨物駅として開業された駅。ここ数年、駅周辺の再開発がすすみ、駅前にニューシティ大崎という一画も生まれた。</p> <p>最初建立時は貨運站。這些年，車站周圍再度被開發，站前的大崎新城就是一例。</p>	<p>Many workshops</p> <p>This station was originally a freight station. These days the land around the station has been developed and a new district, New City Otsaki, has been built in front of the station.</p>	<p>처음에는 화물역으로 개통된 역. 요 몇년간에 걸친 역 주변의 재개발로 인해, 역 앞 출구에는 뉴·시티 오사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을 정도이다.</p>

自由とはなにか
映画『サラフィナ!』

ニューヨーク、ブロードウェイで2年間に及ぶロングランを続けたミュージカル『サラフィナ!』が、映画化された。南アフリカ・ソウェトに、はじめてカメラが入り、真実の迫力ある映像でドラマティックにメッセージを伝える。

南アフリカの人種隔離政策“アパルトヘイト”は子どもたちでも容赦なく殺害、逮捕、投獄、拷問の対象とした。’76年に起こった圧制に苦しむ黒人たちの蜂起で、その先頭に立ち、武器も持たずに政府軍に立ち向かったのは10代の子どもたちだった。彼らの多くは銃弾に倒れ、幼い命を失った。この実話に基づき、映画『サラフィナ!』は、ソウェトに住むひとりの少女の熱き祈りと自由と平和への勇気ある戦いを描いている。

「カラーパープル」「ゴースト/ニューヨークの幻」で助演女優賞に輝いた、ウービー・ゴールドバーグ演ずるマソムブカ先生は、本当の黒人の歴史(ルーツ)を教える。「昨日に学ばなければ永遠に同じ道を歩むだけだ」。そして「道をさがしたければ、行き先をさがすこと」と子どもたちに自由への希望を与える。

アフリカ人で初めてトニー賞主演女優賞にノミネートされたレティ・クマロが主演サラフィナを演じ、新鮮な輝きを放つ演技力とパワフルな踊りと歌で魅了する。

90年2月、反アパルトヘイト運動のリーダー、ネルソン・マンデラ氏は28年ぶりに釈放され、’91年6月17日アパルトヘイト撤廃により、南アは今、新憲法制定に向けて政治交渉は進みつつある。

しかし、現実にはいまでも黒人は自由を勝ち取っていない。法律は変わっても、人間の意識はそう簡単には変わらないのだろうか。

映画『サラフィナ!』の誕生で、広く世界の人たちに人権の問題を考えるチャンスが与えられた。

●『サラフィナ!』
6月中旬、東宝洋画系劇場にて公開予定。
問い合わせ先:ギャガ・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TEL:03-5410-3546

何為自由?
電影《薩拉菲娜!》

在紐約百老匯長期上演達兩年之久的歌劇《薩拉菲娜!》,已被拍成電影。攝影機的鏡頭首次伸進南非的索韋托,拍攝了真實有力而引人注目的影像。

在南非的“種族隔離”之下,連孩子都可以成爲殺害、逮捕、入獄、拷問的對象。1976年發生了被殘酷壓迫的黒人的起義。面對政府軍站在起義先頭的是手無寸鐵的十幾歲的孩子們。他們中間的很多人倒在彈雨中,被奪去了幼小的生命。以這個真實的事件爲背景,《薩拉菲娜!》描寫了一位住在索韋托的少女,對自由、和平的熱望,以及爲之英勇而戰事迹。

由獲得《紫色》、《幽靈·紐約的幻影》女配角獎的烏瑟·科魯托帕科扮演馬索姆卡老師,她將黒人的歷史(始祖)教給孩子們;她告訴孩子們,“要是老回頭看,就永遠只能走老路。”並且給孩子們指出走向自由的希望,“要找道路,先辨明方向”。

由第一個獲得托尼亞獎女主角獎提名的非洲人拉拉提·庫馬羅出演主角薩拉菲娜。她的魅力在於那具有新鮮感的演技和强有力的舞蹈與歌唱。1990年2月,反“種族隔離”運動的領導人納魯松·曼德拉,時隔28年獲得釋放;1991年6月17日,“種族隔離”法被廢除,南非目前正爲製定新憲法而進行着政治談判。

但是,實際上,至今黒人並沒有贏得自由。法律是改變了,但人的意識是會這麼簡單地改變嗎?

電影《薩拉菲娜!》的誕生,給了世界上的人們從更廣泛的角度考慮人權問題的機曾。

●《薩拉菲娜!》
預定於六月中旬,在“東寶洋畫”系列的劇場公演。
問詢:ギャガ・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TEL:03-5410-3546



What is Freedom?
Sarafina!

Sarafina!, the long-running Broadway musical, has now been made into a movie. Through the eye of the camera, we are taken to Soweto in South Africa, where stark images portray the story's dramatic message.

In South Africa, the land of apartheid, children are captured, imprisoned, tortured, and killed without mercy. Children in their teens stand at the head of the insurrection led by blacks suffering the political pressures of 1976, facing the government forces unarmed. Most of them lose their lives, falling in the heat of "battle." Based on a true story, *Sarafina!* paints the story of a young girl living in Soweto, and her courageous fight for freedom and peace.

Whoopie Goldberg, recognized for her role as supporting actress in *The Color Purple* and *Ghost*, performs the role of the teacher Masombuka who teaches the true roots of the black people. "If we don't learn the true story of our past, we will never be able to change our future," she says. She gives the children hope, telling them, "If you want to look for the road to the future, first determine your destination."

Leleti Khumaro plays the title role, displaying the sparkling technique and powerful dancing and singing that led to her becoming the first African to be nominated for a Tony award.

In February 1990, Nelson Mandela, the leader of the anti-apartheid movement, was released after 28 years of imprisonment. On June 17, 1991, apartheid was abolished and South Africa is now headed for political negotiations and a new constitution.

In reality, however, the black population has not yet won true freedom. Although the law has changed, people's prejudices do not change as easily.

In its movie form, *Sarafina!* will provide people around the world the opportunity to witness the heartaches and misery caused by racial prejudice.

●“*Sarafina!*” will be playing from the middle of June at the Toho Yougakei Gekijo. For more information, call Gaga Communications at 03-5410-3546.

자유란 무엇인가?
영화『사라피나!』

뉴욕의 브로드 웨이에서 2년간 룬된 히트한 뮤지컬 『사라피나!』가 영화화 되었다. 남아프리카 소웨트에, 처음으로 카메라가 들어가 박력있는 영상으로 드라마틱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남아프리카의 인종격리정책 “아팔테이드”는 어린이들까지도 용서없이 살해, 채포, 투옥, 고문의 대상이었다. ’76년에 일어난, 압제에 시달리는 흑인들의 봉기에서 그 선두에 서서 무기도 들지 않은 채, 정부군에 맞선 것은 10대 소년, 소녀들이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총탄에 쓰러져, 어린 생명들을 잃어갔다. 이 실화를 근거로 만든 영화 『사라피나!』는 소웨트에 사는 한 소녀의 뜨거운 기도와 자유·평화에 대한 용기있는 분투를 그리고 있다.

「칼라·퍼플」 「고스트!」 뉴욕의 환상」으로 조연여우상을 수상한 우피·골드버그가 연기하는 마송 부카 선생은 영화속에서 실제로 흑인의 역사(뿌리)를 가르친다. 「이제를 모르면, 영원히 같은 길을 걷게 될 뿐이다。」 그리고 「길을 찾고 싶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찾을 것。」이라고 어린이들에게 자유에 대한 희망을 전해준다.

아프리카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토니상의 주연여우상으로 지명된 레티·쿠마로가 주인공인 사라 피나역을 연기, 신선미있는 연기력과 파워풀한 춤과 노래로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90년 2월 만드라씨가 28년간에 석방된 ’91년 6월 17일 아팔테이드 폐지에 따라 남아공화국은 현재, 신헌법 제정을 위한 정치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흑인들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법률이 변했어도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영화 『사라피나!』의 탄생으로 세계의 여러 사람들에게 폭 넓게 인권문제를 생각해 볼 찬스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사라피나!』
6월 중순 토호요가극장에서 공개예정
문의처:가가·코뮤니케이션즈
TEL:03-5410-3546

問い直される伝統

"Possessing The Secret of Joy"

『カラー・パープル』他の以前の著作にも言えることだが、アリス・ウォーカーの最新作"Possessing The Secret of Joy"にも確固たる一つのメッセージがある。

本書の主人公タシは、わが身に降りかかった恐ろしい出来事を持ち越える術をついに身につけた後、意図的に赤いものを身につけるようになる。赤とは血の色、女性の月経の色、歓喜の、熱情の、生と死の双方の色であり、こうしたすべてはウォーカーの言う女性虐待、すなわち割礼が女性を肉体的にも精神的にも損なうということと結びついているのだ。

この作品は数人の男性や、割礼の施術者までも含む、多くの視点から語られる。題材へのこうしたアプローチは実に人間的なものであり、この作品を非常に読みやすくしている。そしてさらに重要なのは、ウォーカーのこの語り口のおかげで、おそらく読者が、タシの苦悩を単なる一個人の苦しみを越えた、なんら特別ではない普遍的なものとして見るようになることだろう。

タシは自分に割礼をした女性、ムリサ殺しの嫌疑をかけられ、その裁きに耐えねばならないが、ここで本当に裁かれるものは、ウォーカーが献辞で本書を捧げている対象、すなわち「罪なき女陰」なのだ。本当に裁かれるものは伝統そのもの、つまり多くの女性の命を文字通り奪い、そして生き延びた者たちの精神を、魂を、肉体をも蝕んでいく一つの伝統なのである。

(ジャスミン・ピエールルイ)

●"Possessing The Secret of Joy"
(POCKET BOOKS/WASHINGTON SQUARE PRESS, \$5.99)

向傳統發難

就像在《紫色》等其他作品一樣，在阿利斯·沃卡的新作

《Possessing The Secret of Joy》之中，也確實存在着某種堅定的信念。

本書の主人公塔西，在找到了一種超越降臨自身的恐怖事物的本領後，就有意识地穿紅色的服裝。紅，意味着血的顏色；女性月經的顏色；高興的、熱情的、生與死雙方的顏色，這與沃卡所說的女性虐待，即割禮給女性在肉體上、精神上帶來的損傷有關。這個作品採用以幾個男性，並包括割禮施術者在內，從幾個角度進行講述的方式。這種對題材的表現方式，實際上是很平易近人的，讀起來也很容易。更重要的是，讀者在沃卡如此的敘述中，可以感到塔西的苦惱不是單純的一個人的，是一種並非特別的而普遍存在的苦惱。

塔西因涉嫌殺害給自己行割禮的女性姆利薩，而必須接受審判。在這裏真正被審判的，是沃卡在獻辭中所述此書的奉獻對象，即所謂“無罪的女陰”。但真正被審判的是傳統本身，也就是奪取了多數女性生命，同時也在腐蝕着幸存者們的精神、靈魂、肉體的一種傳統。

(嘉斯明·皮埃魯依)

●袖珍本/WASHINGTON SQUARE PRESS出版 5.99美元

Possessing The Secret of Joy

Although Alice Walker alludes to *The Color Purple* and other previous works *Possessing The Secret of Joy*, has a message of its own. Retitling it "The Color Red" would not be completely inappropriate, just as purple was symbolic of resistance, survival and triumph so is red this time around. Tashi, the central figure, deliberately chooses to wear red when she at last finds her own way of overcoming the horror done to her. Red is the color of the blood, of woman's menstrual flow, of joy, of passion, and of both life and death, all of which are related to the misogyny Walker describes as she tells of the emotionally and physically debilitating effects of female circumcision.

The book is narrated from many perspectives including several men, and even a circumciser: Tashi alone has several voices. This approach to the issue is very humane and makes the book very easy to read. More importantly perhaps her narrative style makes the reader go beyond viewing Tashi's suffering as one individual's plight to seeing it as what Adam, Tashi's husband, describes as "a continuum of pain," neither singular nor absolute.

Tashi must stand trial for allegedly murdering M'Lissa, her circumciser, but what is really on trial is the "blameless vulva" to which Walker dedicates the book in the opening pages. What is really on trial is the tradition itself, a tradition which takes the lives of so much women literally, and leaves its survivors mentally, spiritually and physically impaired.
(Jasmine Pierre-Louis)

●"Possessing The Secret of Joy"
(POCKET BOOKS/WASHINGTON SQUARE PRESS, \$5.99)

재고되고 있는 전통

『칼라·퍼플』이외의 작품에서도 그렇지만, 아리스·워커의 최신작 "Possessing The Secret of Joy"에도 확고하게 와 닿는 메시지가 있다.

본서의 주인공 타시는 자기 몸을 덮쳐오는 무서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마침내 터득한 후, 의도적으로 빨간 딱지를 몸에 착용한다. 빨간색이라는 것은 피색, 여성의 월경, 환희, 정열, 생과 사의 색깔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워커가 말하는 여성학대 즉, 여성에 있어서 딱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손이 된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몇 명의 남성과 딱지를 붙여 불허는 시술사까지도 포함하여 여러 시점에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제계에 대한 이러한 의도는 진정 인간적이면서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워커의 필체 덕분에 아마도 독자들이 타시의 고뇌를 단지, 혼자만의 고뇌가 아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고뇌로서 볼 수 있게 쓰여진 작품이라는 점일 것이다.

타시는 자신에게 딱지를 붙인 여성 물리사를 살해한 혐의를 쓴 채, 그에 대한 제재를 견디지 않으면 안되게 되지만, 진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워커가 헌사품으로 본서를 증정한 대상은 「죄 없는 여자의 음문」이었다. 정말로 심판받아야 할 것은 전통 바로 그것이다. 즉, 많은 여성의 생명을 문자 그대로 빼앗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연명해 온 사람들의 정신과 혼, 그리고, 육체를 침식해 가는 하나의 전통인 것이다.
(자스민 피에르루이)

草風館	千101 東京都千代田区三崎町3-10-121 03(3262)1601
氣分はソウル	佐藤邦夫・編 1339円 ——韓国歌謡大全
ソウル・ラブソング	吉岡忠雄・著 1545円
ソウル・マイハート	黒田福美・著 1545円
ソウルの儒者たち	古田博司・著 1854円 ——韓国人の精神風土
ソウルの憂愁	川村 湊・著 1854円 ——「儒教」をキーワードに日韓理解の素材を提供する。
ソウルからの手紙	澤 正彦・著 1854円 ——韓国教会のなかで
チマ・チヨゴリの日本人	金 櫻・著 1339円
チマ・チヨゴリのクリスチャン	金 櫻・著 1545円
朝鮮の土となった日本人	高崎宗司・著 1854円 ——浅川巧の生涯
朝鮮断想	田中 明・著 1854円 ——「ほんとうに朝鮮を愛し朝鮮人を愛した」(柳宗悦)。
猪飼野物語	元 秀一・著 1648円 ——済州島からきた女たち
評伝金史良	安 宇植・著 2884円
韓国の女たち	増田忠幸 編・訳 1648円 ——日帝下の苦悩と挫折を、たんねんに探った力作。
昭和最後のソウル	小倉紀蔵・著 1854円 ——皮膚で感じたままを斬りこんで描いた韓国レポート。
ドキュメント関東大震災	現代史の会編 1648円
聞書水俣民衆史	岡本達明・松崎次夫 編集 各3090円 ——一九九〇年毎日出版文化賞受賞。第五巻「植民地は天国だった」。
上海は赤いバイクに乗って	森田靖郎・著 1648円 ——「都市を観る」名人が軽やかに描いた上海都市改造物語。
阿Qの王国	劉漢木・著/岡田陽一・訳 20600円 ——阿Qの世界に身を挺し、その姿を赤裸々に解剖した。
長江幻想行	長野広生・著 1854円 ——古代と現代が織りなす幻想の彼方に垣間見たロマン。
証言霧社事件	阿ウィヘッパ著/許介顯編集 1854円 ——台湾山地人の抗日蜂起
抗日蜂起が語り継がれた貴重な声であり、セーダッカの叙事詩。	



●公式マスコット “クムドリ” Kumdori



●公式エンブレム

TAEJON EXPO

大田世界博覧会 (大田エキスポ'93)

経済、科学、文化のオリンピックと呼ばれるEXPO'93が韓国の大田市で1993年8月7日から11月7日まで開催される。

韓国は、わずか30年前に経済発展計画に取り組み、短期間にめざましい急成長を成し遂げている。しかし、この急速な工業化はある面ではネガティブな結果をもたらした。それは公害の拡散、経済の発展と富の分配におけるインバランス及び文化的価値と伝統の喪失という深刻な代償だった。

発展途上国としては初めて博覧会を手がけることになった韓国は大田エキスポ'93の開催を機に、工業化に伴う数々の問題点を根本的に解決するための全世界的な努力を結集させることに乗り出す決心を固めた。それが今回のテーマ「新しい躍進への道」に結びついたというわけだ。

60余カ国、20余の国際機構が参加するとあって、文化イベントや科学技術展示、フェスティバルなどのプログラムも充実している。日本から2時間足らずで行けるとあって、今からプランを立てて何度でも訪れてみたい「大田エキスポ'93」情報をお届けしよ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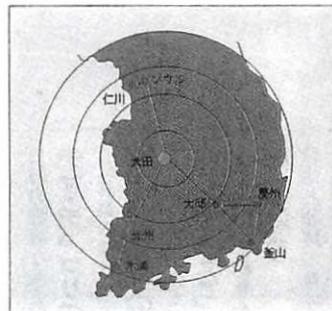
大田世界博覧會

被稱為經濟、科學、文化奧林匹克的93年世界博覽會於1993年8月7日至11月7日在韓國的大田市舉行。

韓國僅在30年前開始致力於經濟發展計劃，在短時間內達到了令人矚目的高速度發展。但是，高速的發展在某些方面帶來了相反的結果。也就是說，這是付出了公害的擴大、經濟發展與財富分配的平衡，以及文化價值和傳統的丟失等巨大代價的。

韓國作為第一個着手籌辦世界博覽會的發展中國家，決心以舉行93年大田世界博覽會為契機，呼吁全世界聯合起來致力於從根本上解決由於工業化所帶來的各種問題。這次博覽會的題目也就因此定為“躍向新的道路”。

這個博覽會有六十多個國家，二十多個國際機構參加，將舉行各種文化項目、科技展覽、紀念日等各種活動。從日本出發不到兩小時就可到達博覽會。下面介紹有關“93年大田世界博覽會”的情況，以供讀者製訂參觀計劃。



Taejon World Exposition (Taejon Expo '93)

called the economic, scientific and cultural olympics, Expo '93 will take place in the Korean city of Taejeon from August 7 until November 7. It was only 30 years ago when Korea began working to implement its economic development plans but in this short time it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But this rapid industrialization hasn't been with its negative aspects. Deterioration of the environment or the economic disparity among rich and poor along with a loss of traditional and cultural values are some of the sacrifices made.

In being the first developing country to hold an international exposition, Korea's Taejeon '93 would like to take the occasion to bring together the world in an effort to find solutions to the problems that accompany industrialization. The theme of Taejeon '93 is "The Challenge of the New Road to Development."

With 60 countries and 20 world organizations taking part, various cultural and scientific events and festivals will be held to reflect this international atmosphere.

It's less than two hours to Korea from Japan. Make your plans to visit now. Here's some more general information on what's happening.

대전 세계 박람회 (대전 엑스포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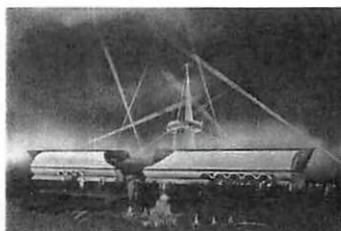
경제, 과학, 문화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EXPO '93이 한국의 대전시에서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된다.

한국은 겨우, 30년 전에 경제발전계획을 착수, 단기간에 눈부신 급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급격한 공업화는 한편으로 네가티브적인 결과도 초래했다. 그것은 공해의 확산, 경제발전과 부의 분배에 있어서의 언바란스 및 문화적 가치관과 전통문화의 상실이라는 심각한 대상이 바로 그것이었다.

발전도상국으로서의 처음으로 박람회를 열게 되는 한국은 대전 엑스포 '93을 계기로, 공업화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인 노력을 결집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착수하려는 결심을 굳히고 있다.

박람회의 테마인 「새로운 약진への道」이라는 슬로건도 그런 의지를 잘 담고 있다.

60여개국, 20여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는 만큼, 문화행사, 과학기술전시,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면에서도 충실을 기하고 있다. 일본에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몇 번이라도 가보고 싶은「대전 엑스포 '93」의 정보를 보내 드리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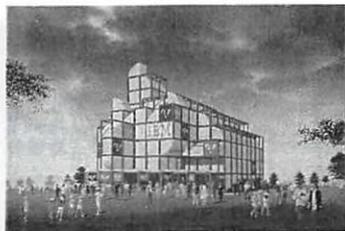
①政府館 (Government Pavilion)



②大田館 (Taejeon Pavi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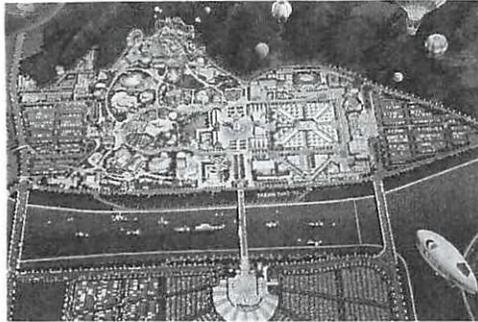


③롯데·판타지·월드 (Lotte Fantasy World)



④韓國IBM館 (IBM Korea Pavilion)

E V E N T



■主な文化行事も目白押し
開会式に始まり60以上の公式行事から公演、お祭り行事が連日繰り広げられる。
世界太鼓祭り
マダンノリ
世界中の伝統婚礼式
映画祭
ファッションショー
'93ミスワールドユニバーシティ選抜大会
サムルノリコンテスト広場
在韓外国人芸能競演大会

■入場料金

普通入場料金は子供2,000ウォンから大人9,000ウォン(約1,300円)。その他、団体割引券、全期間通用券、など6種類。通常の発売は7月から開始される。

■ビザを一時免除

8月1日から12月31日まで日本人観光客に対しビザが免除される。滞在期間15日間で、延長はできないが再入国で同期間滞在できる。

■EXPOアパート

外国人観光客のための宿泊施設が5月に完成。7月8日から11月14日まで運営される1,000室のEXPOアパート。旅館式からホテル式タイプがあり1部屋45,000ウォン(約7,000円)から。

■各種文化活動接連不断
從開幕式開始、將連續舉行六十個以上的正式活動、公演、節目等。

世界太鼓節
廣場遊戲
世界上的傳統結婚儀式
電影節
時裝表演
93年世界大學小姐選拔大會
樂器比賽廣場
僑居韓國外國人文藝表演大會

■入場券

普通入場券、兒童2,000韓國圓；成人9,000韓國圓(約1,300日圓)。並備有團體減價券、全期間通用券等6種入場券。

從7月開始公開發售。

■簽證一時免除

從8月1日開始至12月31日、對觀光旅遊的日本人、免除簽證。可留居15天、不能延長；再一次入國、可留居同樣長的期間。

■博覽會公寓

為外國遊客準備的住宿設施於5月完成。1,000個客房的世界博覽會公寓將於7月8日到11月14日營業。備有旅店式、旅館式房間、一間的最低住宿費為45,000韓國圓(約7,000日圓)。

■Main Cultural Events

Beginning with the opening ceremonies, there will be over 60 events, performances and festivals held daily.
World Drum Festival
Madang Noli
Traditional Wedding Ceremonies from around the World
Film Festivals
Fashion Shows
1993 Miss World University Contest
Samul Noli Contest Square
Performance Contest of Resident Foreigners

■Entrance Fee

Regular Admission for children is 2,000 won and 9,000 won (about 1,300yen). There are also group discount coupons and season passes, although together 6 varieties of discount tickets. Regular ticket sales begin in July.

■Temporary Visa Exemption

Japanese tourists will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a visa exemption from August 1 until december 31. The length of stay is limited to 15 days and cannot be extended but on reentry to Korea another 15 days will be granted.

■Expo Apartments

Accommodations for foreign tourists will be completed in May. The expo Apatments with 1,000 apartment units for tourist will be available from July 8th until November 14th. Hotels and inns are available from 45,000 won (7,000yen).

■ 주요한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60개 이상의 공식행사에서 공연, 페스티벌이 연일 펼쳐진다.

- 세계의 북축제
- 마당 놀이
- 세계의 전통 결혼식
- 영화제
- 패션 쇼
- '93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
- 사물놀이 콘테스트 광장
- 재한 외국인 연예 경연대회

■입장료

보통 입장요금은 어린이 2,000원에서 어른 9,000원(약 1,300엔)까지 기타, 단체 할인권, 전기간 통용권 등 6종류. 발매는 7월부터 개시된다.

■비자 일시 면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서 비자가 면제된다. 체재기간은 15일간으로 연장할 수 없으나 재입국으로 동기간 체재 가능함.

■EXPO 아파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5월에 완성되었다. 7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운영되는 EXPO 아파트는 모두 1,000개실, 여관식에서 호텔식 타입까지 있으며, 객실은 45,000원(약 7,000엔)에서부터.

大田EXPOと
ソウル・釜山の旅 5

ガイド付でご用意したEXPO見学。現代科学と伝統技術の調和がテーマのEXPOです。

出入国空港/成田・名古屋・大阪・福岡
東京・名古屋・大阪・福岡発

ホテル: 釜山/ソラボルまたはコモド
ソウル/ヒルトンまたはホテルロッテ
食 事: 朝食4回・昼食3回・夕食3回
添乗員: 1日目の釜山入国時から5日目のソウル出国時まで、日本語のしゃせる現地係員がお世話します。
最小催行人員: 2名

日次	日 程 内 容
1	午前 東京・名古屋・大阪・福岡発→釜山着 午後 【着後】ホテルへ 【夜】釜山名物の塩焼肉料理の夕食 夕食後、国際市場などへご案内します。 釜 山 □□□
2	【終日】釜山市内観光 【昼】海雲台にて海鮮料理の昼食 【夜】カルビの焼肉料理の夕食 釜 山 □□□
3	午前 釜山発バス<セマウル号>大田着 午後 【着後】大田EXPO会場にて自由行動 現代科学と伝統技術との調和により、地球上のさまざまな問題の解決を目指したEXPOです。お好みのパビリオンにお出かけください。(ガイド同行) 大田発バス<セマウル号>ソウル着 夕刻 【着後】<家訪ガーデン>にてカルビと冷麺の夕食 ソウル □□□
4	【午前】ソウル市内観光と免税店でのショッピングへご案内します。 【昼】ピビンバと韓国風お好み焼ピンデトックの昼食 【午後】自由行動 ソウル □□□
5	出発まで自由行動 午前 ソウル発→東京・名古屋・大阪・福岡着 午後 【着後】空港で解散 □□□

- 当コースは、8月からの設定となります。
- 出発地により、1日目が午前発になる場合があります。
- 大田EXPOのパンフレットなどについては、現地係員がお渡しします。なお、EXPO会場では、ツアーの現地係員が同行してお世話します。
- 滞在中ご利用いただく車は、乗用車ではなくてポンゴ(9人乗りミニマイクロバス)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

旅行代金 (2才以上12才未満は、こども代金を適用します)

適用期間	東京発	名古屋発	大阪発	福岡発
8月6~9日	¥175,000 (¥145,000)	¥163,000 (¥133,000)	¥166,000 (¥136,000)	¥150,000 (¥120,000)
8月15日~ 9月30日	¥180,000 (¥150,000)	¥168,000 (¥138,000)	¥171,000 (¥141,000)	¥155,000 (¥125,000)
8月10~14日	¥190,000 (¥160,000)	¥182,000 (¥152,000)	¥178,000 (¥148,000)	¥166,000 (¥136,000)

出発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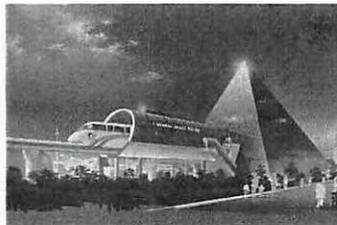
発 地	出 発 日
東京・名古屋・大阪・福岡発共通	毎週月/水/金曜日出発

■1人部屋利用代金は、48,000円となります。
●旅行代金は、航空運賃および各種空港税などの運賃改定事由により変更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TOP TOUR 東京観光
東急観光
お申し込みは 東京 TOP TOUR センター
〒150 東京都渋谷区笹塚2-1 樓本ビル4F Phone: 03-3476-2109



⑤ 韓国富士通館 (FUJITSU Pavilion)



⑥ 磁気浮上列車館 (Maglev Pavilion)

WANTED

友だちが欲しいですか。語学の勉強をしてみませんか。働くこと、学ぶこと、サークル紹介など、何でも募集欄。

您想交朋友嗎? 您想學習語言嗎? 《我們》設有工作、學習、社交活動等各式各樣的徵求欄。

Are you looking for new friends? Do you want to learn a foreign language? Looking for a job? Do you want to study something? Would you like to join a group activity? This is your chance to ask for or respond to anything.

벗을 원합니까. 어학공부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일, 공부, 서클소개 등 뭐든지 모집합니다.

物 GIVE & TAKE

1. タイプライターを譲ってくれる方を探しています。機種や機能は問いません。連絡をお待ちしています。

(ジョン・ケニー
江東区/TEL: 03-3802-5846
/ライター)

1. 誰能出讓打字機? 不在乎機種和性能。等待聯系!

(約翰·凱尼/江東區
/TEL:03-3802-5846/作家)

1. Would anyone be kind enough to give me a second-hand English typewriter? Brand, model, and functions are not important.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John Kenney/Arakawa-ku
Tel:03-3802-5846/writer)

1. 타이프·라이터를 파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종이나 성능은 상관없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존·케니/코우토우구/TEL:03-3802-5846/ライター)

学 TEACH & LEARN

1. 韓国に興味のある女性の方、韓国語と韓国の歴史を教えます。一緒に勉強しながら、お友達になりましょう。

(朴泳斗[PAKU YOUNG DOO]
新宿区/03-3204-9895/会社員)

1. 願向韓國有興趣的女性教授朝鮮語和韓國歷史。邊學習，邊交朋友吧!

(樸泳斗/新宿區
/TEL:03-3204-9895
/公司職員)

1. If you are a woman who is interested in Korea, I will teach you Korean language and history. Let's study together and be friends.

(Paku Young Doo/Shinjuku-ku
Tel:03-3204-9895
company employee)

1. 한국에 흥미가 있으신 여성분이 계시면 한국어와 역사를 가르쳐 드립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친구가 됩시다.

(박 영두/신쥬구/TEL:03-3204-9895/회사원)

2. 今年の8月より日本に訪れている英語を理解する外国人を対象に、「島根の文化と日本語講座」を開講します。この講座で島根と日本について理解を深めてもらえればと思います。詳しいことを知りたい方は、ご連絡下さい。

期間: 1993年8月20日(金)~28日(土)
宿泊: 日程の後半はホームステイ
受講料40,000円(島根県までの交通費は自己負担)

(島根県国際交流センター
〒690 松江市殿町111
松江センチュリービル2F
TEL: 0852-22-5743
担当: 浅野[ASANO])

2. 從今年8月開始，面對來到日本的懂英語的外國人，舉行“島根的文化和日語講座”。通過這個講座，可以加深對島根與日本的理解。欲知詳情，請聯系!

日期: 1993年8月20日(星期五)~28日(星期六)
住宿: 日程の後半部是民家借宿。
費用: 40,000日元(到島根縣的交通費由自己負擔)

(島根縣國際交流センター
/〒690松江市殿町111
松江センチュリービル2F
/TEL:0852-22-5743
/負責人: 淺野)

2. "Shimane Culture and Japanese Language Seminar" will be held in August this year for English speaking visitors to Japan. We hope you can increase your understanding of Japan through this seminar. The details are as follows. Please 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

Term: August 20 (Friday) - 28 (Saturday), 1993
Accommodation: Home stay for the latter half of the seminar
Fee: ¥40,000 (transportation fees are not included)
(Shimane-ken Kokusai Koryu Center/
_690, Matsue City, Tonomachi 111,
Matsue Century Building 2F
Tel:0852-22-5743/Ask for Asano)

2. 올해 8월부터 일본에 주재하는 영어를 이해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마네의 문화와 일본어 강좌」를 개강합니다. 이 강좌는 시마네현과 일본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기간: 1993년 8월 20일(금)~28일(토)
숙박: 일정 중 후반은 홈 스테이
수강료: 40,000엔(시마네 현까지의 교통비는 자기부담)(시마네현 국제교류센터/〒690 마쓰에시 토노마치 111 마쓰에 세츄리 빌딩 2F/TEL:0852-22-5743 담당: 아사노)

3. 私は香港出身の男性です。英語、中国語、広東語を教えます。興味のある方は、連絡を下さい。個人の他に団体でも結構です。

(林超良[ANDY LAM]
中野区/TEL: 03-3319-0895)

3. 我出身香港，男性。可以教英語、中文、廣東話。有興趣的人請聯絡。個人、團體均可。

(林超良/中野區
/TEL:03-3319-0895)

3. I am a Hong Kong-born man who can teach English, Chinese, and Cantonese.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me. I take both groups and individuals.

(Andy Lam/Nakano-ku
Tel:03-3319-0895)

3. 저는 홍콩출신의 남성입니다. 영어, 중국어, 광둥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흥미가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개인 교습은 물론 단체교습도 가능합니다.

(임 초량[ANDY LAM]/나카노구/TEL:03-3319-0895)

4. ベンガル語を教えます。ベンガル語を習ってみたいという方、連絡をお待ちしています。

(IMTIAZ AHMAD/千葉
FAX: 043-245-7198/學生)

4. 可教孟加拉語。願學者請聯系。

(依米亞·阿哈麻德/千葉
/FAX: 043-245-7198/學生)

4. I can teach you Bengali. If you would like to study it, please contact me.

(Imtiaz Ahmad/Chiba Pref
. Fax:043-245-7198/student)

4. 벵갈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벵갈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IMTIAZ AHMAD/치바/FAX: 043-245-7198/학생)

5. 日本語かスペイン語を習いたいと思っています。私は、英語とウルドー語を教えることができます。そして、一緒に旅行などできる真面目な日本人(20~28歳)の友人がほしいです。

(アリ・イムラン/横浜
市/TEL: 045-824-2453/会社員)

5. 我想學日語和西班牙語。我可以教英語和烏爾都語。我還希望與能一起旅行等等的正派日本人(20~28歲)交朋友。

(阿裏·依姆蘭/橫濱市
/TEL:045-824-2453/公司職員)

5. I would like to learn Japanese or Spanish. I can teach English and Urdu. I would like to make friends with Japanese (age 20-28) well enough to go traveling together.

(Ali Imrhan/Yokohama
Tel:045-824-2453/company employee)

5. 일본어나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영어와 울드어를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 등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일본인(20~28세)의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아리·임란/요코하마시/TEL: 045-824-2453/회사원)

WANTED

6. ワーキングホリデー・サークル (WHC) では、集中的に実用英会話を教えています。(外国人講師/1時間¥1,000) また海外生活のノウハウや外国文化教養、習慣等を事前に学習しています。詳細を知りたい方は、お電話下さい。

(ENGLISH WORLD
渋谷区神宮前2-18-21
TEL: 03-3475-0475
担当: 畑沢[HATAZAWA])

6. WHC 集中教授実用英語會話 (外国人教師, 1 小時 1,000 日元); 同時在這裏還可以預先學到海外生活的知識、外國文化教養、習慣等等。欲知詳情, 請電話聯系。

(ENGLISH WORLD
渋谷區神宮前2-18-21
TEL:03-3475-0475
負責人: 畑澤)

6. Working Holiday Circle (WHC) teaches intensive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Foreign instructor; ¥1,000/hour) We also learn how to live abroad by studying foreign culture and customs before the trip. Please call us for more details.

(English World/Shibuya-ku,
Jingumae 2-18-21/Tel:03-3475-0475/Speak to Hatazawa)

6. 워킹홀리데이·서클(WHC)에서는 집중적으로 실용적인 영어회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강사/1시간 /1,000)

또, 해외생활정보나 외국문화에 대한 교양, 습관 등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은 전화를 주십시오.
(ENGLISH WORLD/시부야구
진구마에 2-18-21/TEL:03-3475-0475/담당:하타자와)

働 WORK & EMPLOYMENT

1. 私は大阪に住むカメラマンです。「小さなノンフィクション」と題し、在日外国人やその人々に関係している人たちのポートレイトを撮ろうと思案しています。興味を持ってくださった方、また協力をしてくださる方、ご連絡下さい。お待ちしています。
(村東剛[MURAHIGASHI TSUYOSHI]
〒537大阪市東成区玉津3-6-16
TEL: 06-927-9489/カメラマン)

1. 我是住在大阪的攝影師。正在構思以“微型非文學作品”為題，拍攝在日外國人及與其有關的人們的肖像。等候有興趣者和願意幫忙的人的聯絡。

(村東剛/〒537 大阪市
東成區玉津3-6-16
TEL:06-927-9489/攝影師)

1. I am a photographer living in Osaka. I am planning to take portraits of foreigners in Japan, for a work entitled "Small Nonfiction." If you are interested in it or want to participate, please contact me.

(Tsuyoshi Murahigashi/
〒537 Osaka City,
Higashi Nari-ku, Tamatsu 3-6-16
Tel:06-927-9489/photographer)

1. 저는 오사카에 사는 카메라맨입니다。「자그마한 논픽션」이라는 테마로 재일 외국인이나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포트레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흥미가 있는 분이냐, 협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라히가시 쓰요시/〒537 오사카시
히가시나리구 타마즈 3-6-16/TEL:06-927-9489/카메라맨)

友 HEART TO HEART

1. 日本語の会話が可能で、私と文通して下さる英語圏の方を探しています。ぜひお便り下さい。
(阿世知聖子[ASECHI SYOUKO]
〒654-01神戸市須磨区
南落合4-1-186-102/學生)

1. 尋找能進行日語會話，能與我通信的英語圈的人。請聯系。

(阿世知聖子/〒654-01神戸市
須磨區南落合4-1-186-102
/學生)

1. I am looking for a native English speaking pen-friend who can speak Japanese. Please write me.

(Syouko Asechi
/〒654-01 Kobe City, Suma-ku,
Minami-Ochiai 4-1-186-102/student)

1.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분으로 저와 펜팔을 할 영어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편지 기다리겠습니다.
(아세치 쇼코/〒654-01 코베시 스마구
미나미오치아이 4-1-186-102/학생)

2. 私は英語圏の方と文通を通じて、広く文化を知りたいと希望しています。年齢は問いません。長く文通して下さる方、お手紙下さい。

(斎藤久美[SAITO HISAMI]
〒206東京都多摩市永山2-1
永山ハイツ3-806/会社員)

2. 我希望通過與英語圈的人通信，對文化有更廣泛的了解。不問長幼，只要能與我長期通信的人，請來信。

(齊藤久美/〒206
東京都多摩市永山-2-1
永山ハイツ3-806/公司職員)

2. I wish to learn culture by corresponding with a native English speaker. Age doesn't matter. I hope we can have a long-term correspondence. If you agree, please write me.

(Hisami Saito/〒206 Tokyo,
Tama City, Nagayama 2-1, Nagayama
Heights 3-806/company employee)

2. 저는 영어권의 사람과 펜팔을 통해 문화를 폭 넓게 접하고 싶습니다.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오랫동안 펜팔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토 히사미/〒206 도쿄도 타마시 나가야마 2-1 나가야마 하이츠 3-806/회사원)

3. 交換學習による地方硬直化打破を思案しています。興味のある方はお電話ください。

(今村公昭[IMAMURA KIMIAKI]
大分県大分市/TEL: 0975-32-2395
税理士)

3. 我正在考慮以交換學習的方法來打破地方僵硬化的問題。有興趣者請來電話。

(今村公昭/大分縣大分市
/TEL:0975-32-2395/税理士)

3. I would like to reduce the problem of rural isolation through educational exchange.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all me.

(Kimiaki Imamura
Oita City, Oita Pref.
Tel:0975-32-2395/Licensed tax

3. 교환학습을 통해 지방의 경직화 타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미가 있으신 분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무라 키미야키/오이타현 오이타시/TEL:0975-32-2395/세리사)

VISA PROBLEM?

If Disapproval or Difficulty, Call Us.
Establishing Companies & Branches.

申請工作簽證, 設立公司
취로비자신청, 회사설립

法務省承認申請取次行政書士

ひろしま事務所

Phone: 03-3980-7558

東京都豊島区東池袋3-11-7-501
2 min. from Ikebukuro Sunshine City

会社設立 帰化

ビザ (経営者・貿易・技術・コック)
永住・結婚、ビザ変更・延長

Establishment of a Company, Business Licences, Naturalization, Immigration Procedures & Government Approvals.

能登事務所 NOTO OFFICE

☎ 03-3377-0588

申請取次行政書士 能登八郎・能登温子

新宿区西新宿 4-3-2-6 (新宿中央)
パークグレース新宿 708 (公園前)

VISA PROCEDURE

簽證更新、変更、國際結婚
日本国籍取得、会社設立

TO EXTEND / CHANGE VISA STATUS

WE SPEAK ENGLISH 中文解答

新宿区西早稲田 (にしわせだ) 1-9-37-202

Phone: 03-5272-4503

NAKAI OFFICE

DISCOVERY

発見

国籍や民族を考えるうえでつきまとう「国境」という概念。「国境」とは一体何なのだろうか。

考慮國家和民族問題，總離不開“國境”這個概念。“國境”到底是什麼呢？

Borders — the concept is intertwined with nationality and race. But exactly what are they?

국적이나 민족을 생각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국경」이라는 개념. 「국경」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国境について	“國境”隨想	Borders	국경이란
--------	--------	---------	------

国境……。
 国境とは、一体何なのだろうか。
 私たちは常日頃、「国境をはさむ」とか、「国境を越える」とか、そういう形で「国境」という言葉を口にする。そして、そのことで自分と他の人との間で、共通の理解を交わし合っていると、互いに思っている。
 しかし、「国境」とは一体何なのか。それは一体、人間のどういう必要から発生し、工夫されて、この地球の上に「国境」という名前前の、無数の境を形造ることとなってきたのだろうか。今、改めて「国境」というものの意味、それが存在している理由（レーゾン・デートル）について考えてみることで、逆の視角から私たちは、いわゆる「多国籍」あるいは「国際化」と言われている時代の真の姿、意味を少しでも明らかにでき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多国籍」と言い、「国際化」と言うのも、それはもともと、「国境」が存在するからこそ、言われる言葉なのだから。
 先日、私は何気なくつけていたテレビ番組の画面、その一つのシーンに不意をつかれたような思いを感じた。
 それは、東南アジアの生活を取材するドキュメンタリーのようなのだが、ほんやりと画面に眼を流してただけだった私は、もう番組名も正確なテーマも憶えていない。ただ、私が不意をつかれたのは、ある国の、大きな河で漁をして暮らしている一人の中年の女性の言葉だった。
 彼女は毎朝、小さな舟に乗って漁に出る。大河を延々と下りながら川魚を獲り、そして夕方また家に帰る。
 取材記者が舟の中の彼女に岸から訊ねる。
 「河の途中、あなたは毎日国境を越えるけれど、（大河はいくつもの国を貫流しているので）そのた

国境。
 国境，到底是什麼？
 我們日常在談到“國境”時，往往講“國境兩邊”，“越過國境”等等。而且，在這個概念上，總以為自己和別人之間，是在交流着共通的理解。
 但是，“國境”到底是什麼？到底是出於人的何種必要產生、形成，並以“國境”這個名義在地球上造出了無數個“境”的呢？現在，為試圖重新考慮“國境”的意義、其存在的理由，我們從相反的角度來看一下所謂“多国籍”、“國際化”時代的真面目，及其意義的話，是否能夠稍微弄明白一點呢？說什麼“多国籍”、“國際化”，都是因為有“國境”的存在，才產生的詞匯。
 前幾天，在不經心地打開的電視畫面上，看到了一個出乎我意料的鏡頭。
 那好像是採訪東南亞人生活的記錄片。因為只是漫不經心地看着，所以是什麼節目、什麼題目都記不得了。但是，出乎我意料的是，在某個國家的大河上，一位以捕魚為生的中年婦女的話。
 那位婦女，每天早上乘小船去打漁，邊沿大河而下，邊捕撈河魚。傍晚又回家裏。



Photo by Sato Kenichi

What are borders? In our daily speech, we refer to borders as something to be “cut through” or “surpassed.” They are determined by a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people.
 But really, what are they? That is, out of what necessity were they formed? How did the countless borders of this world come to be? Perhaps if we stop and think about the *raison d’être* of borders, and examine it from an opposite view-point—that is, from the standpoint of this so-called age of multi-nationality, or internationalization—the meaning will become clear. Multi-nationality, internationalization—these concepts originally grew out of the existence of borders.
 The other day while watching TV, I happened to catch a program that made me stop and think. I don’t remember the name or exact theme, but the program was a documentary on Southeast Asian lifestyles. What struck me as I sat there half-asleep were the words of a middle-aged woman who earns her living catching fish from a big river.
 Every morning, the woman gets in her boat and goes out to fish. Every day she paddles around in the big river catching fish, and then at night she goes home.
 The reporter in the documentary called from the shore to the woman in the boat. “There in the middle of the river, every day you are crossing a border [the river forms the border for several countries]. Do you have a passport?”
 The woman, smiling a little uneasily, answered, “No, no. I don’t have a passport. I don’t really understand those kinds of things, and I’ve always done this. Anyway, we all know each other’s faces...”
 To “know each other’s faces,” she says. To know by sight the people patrolling the border.

국경。
 국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들은 평소, 「국경을 사이에 두다」라든가, 「국경을 넘는다」라는 말로 「국경」이라는 말을 입에 담고 있다. 그리고, 그 뜻으로 자기와 타인과의 사이에서 서로 국경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국경이라는 것은 무슨 필요에서 발생했으며, 여러 가지로 궁리되어, 이 지구상에 「국경」이라는 이름의 무수한 경계선을 국제되게 되었는지 지금, 새롭게 「국경」이라는 말의 의미와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럼으로 해서 겨우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다국적」 또는 「국제화」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의 진실된 모습과 의미를 조금이나마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국적」이니 「국제화」니 말하는 것도, 분디부터 「국경」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나는 아무 생각없이 켜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장면 속에서 갑자기 허겁을 찰린 듯한 것을 느꼈다。
 그것은 동남아시아의 생활을 취재하는 도큐멘터리였던 것 같으나, 아무 생각없이 화면을 바라보던 나는 무슨 프로였던지조차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다. 단지, 내가 허를 찰린 듯 했던 것은 어느 나라의 커다란 강에서 생선을 잡으며 생활하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의 말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작은 배를 타고 생선을 잡으러 간다. 커다란 강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면서 물고기를 잡아,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간다.
 취재기자가 배 안의 그녀에게 강가에서 묻는다.
 「당신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매일 국경을 넘나들어야 합니다만(강은 몇 개의 나라를 통

びにパスポートを見せているのですか]

彼女は少し困ったような笑顔で答える。

「いえ、いえ、パスポートというものは持ったことがないんですよ。そういうことは良く分からないし、もともとこうやっているんです。お互いにみんな顔見知りだし……」

顔見知り、というのは国境警備の人間たちと知り合い、という意味だった。

彼女の言葉に私が感じたのは、そこがそんなにのどかでおおらかな国だ、ということではない。その逆に画面の背後には、今もまるで日常化したようにつついている東南アジア紛争のキナ臭い雰囲気漂っていた。

舟の中の女性、彼女の日々の暮らしには国境というものは存在していない。彼女の意識に存在しているものは国境ではなく、舟で下りまた登って来る大河なのだ。

私は彼女の言葉に、その当たり前なのに突然気づかされた思いがしたのだった。「顔見知り」ということが一枚のパスポートよりも信用の置けることであり、そして「国境」という人の手で造られたラインよりも、太古からそこに流れ日々の糧を与えてくれる大河というラインの方がずっと確かな存在であること、それは当たり前なことではないか。

取材記者は彼女の言葉をどう感じたろうか。

私は、日常の中で忘れていた重要なことを目の前に呼びまされた思いがして、しばらく彼女の言葉、その当惑したような口ぶりを頭の中で反芻した。

決して大げさではなく、彼女の言葉は私たちが、この世界の全体を一体どのようなものとしてとらえ、考えているのかという問題に関わっていると私には思える。あらゆる国の為政者たちは、自分たちの生きている世界の境目を「国境」つまり「わが国の勢力範囲のライン」と考えるだろう。「むこう」と「こっち」の境目は、人間たちの力の関係によって引いた一線、ということだ。しかし小舟に乗った彼女にとってその一線は多分、その大きな河の「向こう岸」と「こちら岸」となるのかもしれない。そしてその眼に見える河の一線の方こそ、実は人間にとっては確かに信用のできる「境」なのではないか。

採訪的記者在岸上問船裏の這位婦女:

“在河上，你每天都穿越國境，（因那條大河貫串幾個國家）那時你出示護照嗎？”

她稍有些困惑，但笑着說：

“不，不，我根本沒有護照那玩藝兒。我不懂這種事，只不過一直就是這樣的。大家相互又都是熟臉……”

熟臉，就是說和國境警備人員都認識的意思。

並不是說，從這位婦女的話裏，可以感到那是一個安靜的不拘小節的國家。正好相反，在那畫面的背後，飄蕩着現在正漸漸變得日常化的東南亞紛争的火藥氣味。

那船中的婦女，在她每天的生活中，不存在所謂國境。在她的意識裏存在的不是國境，而只有乘船來往的大河。

我在她的話裏，突然感到了一種理所當然的東西。“而熟”比一紙護照更有信用，“國境”這人為的綫，與自太古就日日夜夜在那裏流淌着的大河相比，大河這條綫的存在更確實。這難道不是理所當然的事嗎？

採訪的記者對這位婦女的話作何感想呢？

我思考着這在日常生活中被遺忘了的而又被提醒了的重要事情，久久地回味着那位婦女的話，和她那困惑的口氣。

絕不是小題大作，我認為，那婦女的話，是與我們如何來看待和思考世界的全體是什麼這一問題有關。任何國家的執政者們，都一定在把自己生活世界的分界綫，看成爲“國境”，即所謂“我國的勢力範圍的界綫。”“這邊”和“那邊”的分界綫，其實是根據人的力量關係拉的一條綫。但是對那乘小船的婦女來說，這條綫很可能只不過是大河的此岸和彼岸而已。而且對人來說，可以看見的河的這一條綫，不是更可確實信賴的“境”嗎！

“國境”，毋庸置疑，是與“國家”共同產生的。

人到底爲什麼要造出“國家”呢？爲什麼一定要有“自己的國家”呢？

對希臘哲學，不，比其更早的自古以來的複雜龐大的無數“國家論”，都暫且不論。在想像人類

What struck me most about the woman's words, however, was not that she said them in such a simple and peaceful environment, but on the contrary, that she said them against a daily background of civil war and strife. For the woman in the boat, there are no borders in her daily life. All that exists for her is taking the boat up and down the river.

Hearing her words, I suddenly realized how true they were. To recognize someone by sight; that is infinitely more trustworthy than the pieces of paper that form a passport. And isn't it obvious that the river that has flowed and provided sustenance throughout time has a much more substantial existence than the borders determined arbitrarily by humans?

I wonder, how did the reporter feel about the woman's words?

I myself was reminded of the important things that I tend to forget in everyday life, and for a long time I thought about the woman's words and her puzzlement.

Surely, it's no exaggeration that her words relate to the issue of how we all have different views of the world. The politicians of the world would probably say that borders are the lines that delineate their country's authority. They are the lines between "here" and "there," formed by a designation of power. But for the woman in the little boat, the only borders that have meaning are probably only "this side" and "the other side" of the river. And in fact, isn't that river, so visible to the eye, the most reliable kind of border?

The idea of "borders," of course, is closely tied to the concept of "nation." "Why did humans feel the need to create countries, I wonder. Did they feel some need to have "my country." Ignoring for the moment the countless and complicated discussions of the concept of nations in Greek philosophy and earlier, I am dumbfounded by the thought that humans of every race, without exception, have continued throughout time to create countries. Through the trends, wars, births occurring in the shelter of their "country," why did humans feel the need to create countries?

Multi-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To some extent they transcend the obstacles posed by

과학서 흐르고 있다), 그 때마다 여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녀는 조금 곤란한 듯해 하면서 웃으며 답해 주었다.

「아니오, 여권이라는 것은 만든 적도 없어요. 그런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다, 옛부터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어요. 서로 전부 얼굴도 잘 아는데요.」

얼굴을 안다라는 것은 국경 경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안면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말에 내가 느낀 것은 그 곳이 그렇게 한가롭고 유유히 있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장면의 다음에서는 지금도 마치 일상화되어 있는 것같이 계속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분쟁의 화약냄새가 날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배 안의 여성, 그녀의 일상생활에는 국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의 의식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국경이 아니고, 배로 내려갔다 다시 타고 올라와야 하는 강뿐인 것이다.

나는 그녀의 당연한 듯한 말속에서 들연듯 알게 된 것이 있었다. 「얼굴을 안다」라는 것이 하나의 여권보다도 신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경」이라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선보다도, 태고적부터 그 곳에서 흐르고 있는 매일 매일의 식량을 보급해 주고 있는 강이라는 라인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존재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한다.

취재기자는 그녀의 말을 어떻게 느꼈을까?

나는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중요한 것들을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 잠시, 그녀의 당혹한 듯하면서 이야기한 말들을 머리 속에서 되새겨 보았다.

결대로 과장이 아니고, 그녀의 말에는 우리들이 이 세계 전체를 도대체, 어떤 식의 것으로서 보고 있으며,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나라의 위정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경계선을 「국경」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나라의 세력범위를 나타내는 라인」으로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저쪽」과 「이쪽」의 경계는 인간들의 힘에 의해 그은 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작은 배에 타고 있던 그녀에게 있어서 그 선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큰 강의 「저쪽 강

「国境」の発生は、むしろ「国家」の発生と共にある。

人間は一体なぜ「国家」を造ったのだろうか。「自分の国」を造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だろうか。

ギリシャの哲学、いやそれよりももっと古くから始まる複雑で巨大な無数の「国家論」は別にして、私は、人類史のなかで絶え間なくせせせと国というものを造りつけてきた人間の姿を想像して、呆然とすることがある。「国」という巨大な傘の下に、働き、戦い、子を生みつけてきた人間は、本当は一体どんな理由でそうして来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だろうか。

「多国籍化」や「国際化」とは、「国境」という深く、容易には越え難い谷を一面では確かに浅く埋めていく方向を持つものであろうが、実は、一つの国家意識に他の国家意識が無数に入りこむことで、その谷の地形をもっと複雑に、もっと見えにくい深刻な場所に追いやっているというもう一つの面を同時に持っている。

パスポートを持たない、舟の上の女性の言葉は、「国家」「国境」という容易には解きがたい人類の謎に対して、私に微かに一筋の光を垣間見せてくれたのかもしれない。

(辻 章)

史中不断地拼命地製造國家的人們的形象時，我不覺茫然。人類在“國”這個大傘之下，不斷地活動、打仗、生兒育女，非如此持續下去不可的真正理由到底是什麼？

“多国籍”、“國際化”，確實是將“國境”這一深刻的不易跨越的鴻溝朝着稍微埋淺一些的方向前進了一步。但實際上，另一方面，在一個國家意識中加入無數其它的國家意識，同時也使那鴻溝的地形更為複雜了。

那沒有護照的小船上婦女的話，對想揭開“國家”、“國境”這類難解的人類之謎的我來說，可能是從墻間透過來的一縷光明。

(暖 泊)



national borders, but on the other hand, as the sensibilities of countless nations are mixed together, the shape of each border becomes more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discern. The words of the woman without a passport puzzled by the concepts of nation and border, they just may have given me a glimpse of the answer.

(Tsujii Akira)

가」와 「이쪽 강가」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보이는 강의 한 선이야말로 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경계」가 아닐까 한다.

「국경」이 생겨난 것은 물론, 「국가」가 생겨나면서 발생된 것이다.

인간은 도대체 「국가」를 왜 만든 것일까? 왜, 「자국」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리스의 철학,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오래 전부터 시작된 복잡하고, 거대한 무수한 「국가론」은 차재해 놓고, 나는 인류사의 속에서 끊임없이 열심히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 온 인간의 모습을 상상할 때, 망연해 질 때가 있다. 「나라」라는 거대한 우산 밑에서 일하고, 싸우고, 자손을 낳아 온 인간들이 정말로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다국적화」나 「국제화」라는 것은 「국경」이라는 험하고, 간단하게 넘을 수 없는 계곡을 메꾸어 나가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국가의식에 다른 국가의식이 무수하게 난입함에 따라, 그 계곡의 지형을 더욱더 복잡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쫓고 있는 듯한 다른 일면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이다.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배워 여성의 말속에는 「국가」, 「국경」이라는 간단하게 풀 수 없는 인류의 수수께끼에 대해 조금은 나에게 한가닥 희망의 빛을 보여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쓰지 아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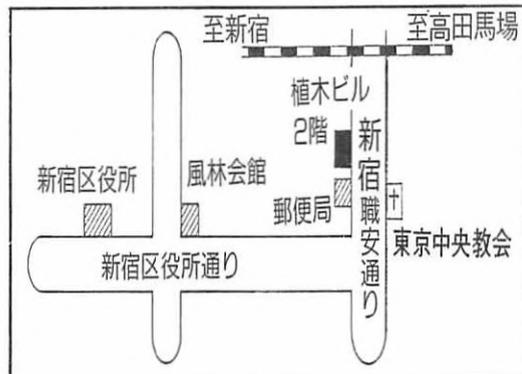
한국 산부인과 내과

여기는 일본에 단지 하나 뿐인 한국어가 통하는 산부인과병원입니다. 원장을 비롯해서 간호사 스태프 등 전원이 한국인입니다. 타국에서 병에 걸리는 것 보다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어를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진료시간 : 10AM~6PM
휴진일 : 토요일·일요일

(03)5273-8231

신주쿠 쇼쿠안도오리 동경중앙교회 맞은편



We're 占い



星座で占う今月の運勢。あたるも八卦、あたらずも八卦・・・

用星座占本月の運氣。說靈也靈、說不靈也不靈……

It's in the Stars. This Month's Horoscope Sign

별자리로 점쳐 보는 이 달의 운세. 맞아도 팔괘, 안 맞아도 팔괘……

双子座 5月22日～6月21日
行動的で、豊かな知性を持つ双子座は明るく話題が豊富で、誰とも仲良くすることができます。人当たりがよく優しいのですが、根がクールな性格のため、しばしば人に誤解を与えてしまうこともあるでしょう。そして自分のペースで物事を進めていくために、グループでの共同作業が苦手なようです。またかなりあきっぽいところもあるのでは。

双子座 5/22～6/21
付諸行動：理解力强

双子座の人開朗、話題豊富、跟誰都可以交朋友。對人的態度很親切、但由於本性偏於冷漠、常常讓人誤解。同時、因為做事時往往是按自己的步調進行、所以、不習慣與很多人共同工作。另外、還可能沒常性吧！

Futago-za (Gemini)
People born between May 22 and June 21
Active and highly intellectual

Gemini people tend to be bright and friendly to everyone, with a rich stock of topics. While they are very kind and sociable, they are easily misunderstood by other people since the Gemini character is basically cool. Because they can make great progress on their own, they are not good at group work. They are also rather fickle.

쌍둥이좌 5월 22일～6월 21일
행동파이며, 풍부한 지식의 소유자. 쌍둥이좌는 명랑하면서 화제가 풍부해 누구하고라도 친하게 지냅니다. 사람이 좋고 친절합니다만, 근성이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이므로 가끔, 타인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페이스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좋아해, 그룹이 하는 공동작업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싫증을 내는 경향도 있다.

星 座 Horoscope	全体運 Overall fortune	恋 Love	マネー Money	仕 事 Work	ラッキーナンバー Lucky number
牡羊座 3/21～4/20	☆☆	☆	☆☆	☆☆	8
牡牛座 4/21～5/21	☆☆☆	☆☆☆	☆☆	☆☆☆	5
双子座 5/22～6/21	△	△	☆	☆☆	10
蟹 座 6/22～7/22	☆☆	☆☆	☆☆☆	☆	2
獅子座 7/23～8/22	☆	☆	☆	☆	9
乙女座 8/23～9/23	☆☆☆	☆☆	☆☆☆	☆☆☆	6
天秤座 9/24～10/23	△	☆	△	☆	3
蠍 座 10/24～11/22	☆	☆☆	☆	☆	11
射手座 11/23～12/21	☆☆	☆☆☆	☆☆	☆☆	1
山羊座 12/22～1/20	☆	△	☆	☆	7
水瓶座 1/21～2/18	☆☆☆	☆☆	☆☆	☆☆☆	4
魚 座 2/19～3/20	☆	☆☆	☆	△	3

☆☆☆ 絶好調
☆☆ まあまあ好調

Very good
Fairly good

☆ 努力が必要
△ やや低調きみ

Make efforts
Slightly poor

THE BEST STAR VIEWING HOTEL



● Full View of Mt. Fuji & Kawaguchi Lake from All 42 Rooms!

- 河口湖畔から徒歩2分
- 42室の全客室から富士山と湖を一望

★パノラマ風呂 ★アスレチックジム ★カクテルクラブ・
プール・ジャグジー ★音楽スタジオ ★駐車場

新装オープン!

Tel : 0555-72-1234

Fax : 0555-72-1233

国立公園富士五湖・河口湖畔
湖のホテル
MIZU NO HOTEL

〒401-03 山梨県南都留郡河口湖町浅川187

高橋デンタルクリニ

院長：高橋篤生 ATSUO TAKAHASHI



- 国籍問わず診察します。
- 国民健康保険をお持ちな
- どうしても痛いときは、すぐ

Tel : 03-3990-299

鋼琴教授

Professional Piano Lessons

東京・台北・シカゴにて

音楽学校講師経験有 ¥3500/hour

M.A., Experienced in Tokyo, Taipei and Chicago

武蔵野音楽大学大学院修士

河野あいね〔洪怡音〕

Aine Hong ☎ 0422-47-1525

東京都三鷹市上連雀 5-30-20

編集後記

みなさん、ゴールデンウィークはいかがお過ごしでしたか？ 外国に出かけた人も、異国(?)日本にいた人もさまざまな体験をされたと思います。時間だけはどこの国でも、どんな人にも平等に過ぎてゆきます。We're も来月で創刊1年を迎えます。日本のシキタリであるご祝儀大歓迎!! 引き続き We're を愛してください。

各位讀者，“黃金週”過得怎麼樣？到國外去的人，留在異國日本的人，都有各種各樣的經歷吧？只有時間，在任何地方，對任何人都是平等的，一樣的。到本月，《我們》就創刊一週年了。歡迎按日本的慣例來祝賀，並敬請繼續愛護本刊。

How was everyone's Golden Week vacation? We trust you had many new experiences whether you were here in Japan or abroad. The passage of time is the same regardless of who you are or where you are. Next month We're will celebrate its first anniversary. As it's the custom in Japan, wouldn't you like to send us a congratulatory gift?!! We're looks forward to your readership in the future. Thanks.

여러분들의 골든·위크는 어땠습니까?

외국에 다녀오신 분도, 이국(?) 일본에 있던 분들도 여러가지 체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만은 어느 나라, 어느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We're도 다음 달로 창간 1년을 맞이합니다. 일본의 습관에 따라 축하금을 보내는 것 대환영!!) 농담. 계속해서 We're를 사랑해 주십시오.

郵便 払込票

通常払込料金
加入者負担

東京 2 562018

株ザ・サードアイコーポレーション

郵便 払込通知票

通常払込料金
加入者負担

東京 2 562018

株ザ・サードアイコーポレーション

切取らないで郵便局にお出してください

記載事項を訂正した場合は、その箇所に訂正印を押してください

郵便番号	加入者名	払込金額	備考	受付局日附印
東京 2 562018	株ザ・サードアイコーポレーション			
(郵便番号)	ご住所	お名前		

当票の捺印欄は、払込人において記載してください

この払込通知票は、機械で使用しますので、下部の欄を汚さないよう特にご注意ください。また、本票を折り曲げたりしないでください。(郵政省)

TEL: 03-3208-1923
FAX: 03-3208-1924

S T A F F

- PUBLISHER TANAKA HIROSHI
- EDITOR IN CHIEF CAMARGO SAKAE
- FOUNDING EDITORIAL ADVISOR LEE YANGJII
- MANAGING EDITOR NASU YUKARI
- ART & DESIGN DIRECTOR HAYASHI HIROYUKI
- PHOTOGRAPHER SHIMAZAKI TETSUYATA
- EDITORIAL STAFF NISHIKAWA RIE
OGAWA HIROKO
HIRAYAMA MIZUHO
YI JONG GYU
JASMINE PIERRE-LOUIS
DARLENE DAVIDOVIC
SANSHODO PRINTING YUKOSHA
- TRANSLATED BY SANSHODO PRINTING
- MACINTOSH D.T.P. BY SANSHODO PRINTING
- PRINTED AND BOUND BY SANSHODO PRINTING
- ADVISER TSUJI AKIRA
ORLANDO CAMARGO
DING PEIKANG

外国人と日本人医師の 臨床会話集 1~10

Conversation for Foreign Patients and Japanese Doctors 1~10

外国人和日本人医師の臨床会話手冊 1~10

외국인과 일본인 의사의 회화집 1~10

大西 守・増茂尚志 共著 各2,800円(税込)

- | | |
|-----------------|--------------|
| 1. 英語編(ENGLISH) | 6. 中国語編(中国語) |
| 2. ドイツ語編 | 7. 韓国語編(한국어) |
| 3. フランス語編 | 8. フィリピン語編 |
| 4. ポルトガル語編 | 9. タイ語編 |
| 5. スペイン語編 | 10. ペルシャ語編 |

- ◆内科・外科・精神科・産婦人科・泌尿器科など科ごとの章立て構成。
- ◆受付→問診→検査→診断→投薬→入院と、実際の場面に沿って解説。
- ◆対訳方式で、日本語にはローマ字を併記。

㈱三修社 〒110 東京都台東区下谷1-5-34
TEL 03-3842-1711 FAX 03-3845-3965

KAI Miyuki Bldg, 3F
1-15-18, Okubo, Shinjuku-ku
TOKYO, 160
JAPANESE

■ **FULL TIME COURSE:** 20 hrs/w. MON. ~ FRI.
ELIGIBLE FOR VISA
JAN./APR./JUL./OCT.

■ **PART-TIME COURSE:** 4~6 hrs/w. 3~6 STUDENTS
MORNING/AFTERNOON/
EVENING

■ **COMPANY LESSONS:** SENDING WELL TRAINED
INSTRUCTOR - TO YOUR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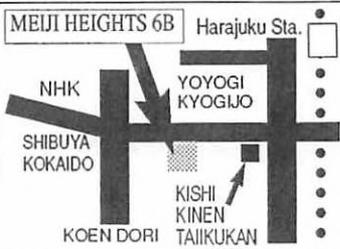
外国人日本語研修プログラム有：下記までお問い合わせ下さい。
カイ日本語スクール TEL: 03-3205-1356 FAX: 03-3207-4651

外国人向けの物件多数!

AMPLE HOUSING FOR RESIDENT FOREIGNERS! 외국사람을 위한 세방
다수 갖추어 있습니다!

- 都内20ヶ所以上の豊富な物件(約3,000室)
- どの物件も駅の近くで便利
- 家具・生活用品はすべて完備
- 快適な高級マンション

SINGLE : 74,000 Yen / Month and Up, TWIN : 119,000 yen / Month and Up



Phone : 03-5458-5544

Fax : 03-5458-5545

Meiji Heights 6B, 1-5-15,
Jinnan, Shibuya-ku, Tokyo

Frontier Japan
(株)フロンティアジャパン



集まれ地球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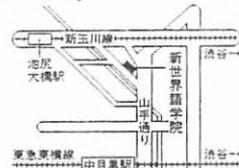
大家一起来 모여라 지구인

徹底した進学指導・進学コース

<進学者全員に奨学金支給・転校生入学金3ヶ月学費免除>

- ・短期コース毎月開講 (3ヶ月¥150,000)
- ・大好評! 企業向けビジネス日本語コース (経験豊富な講師が揃っています)
- ・夜間ビジネス日本語コース、オープン (週2回、1回2時間、3ヶ月で7万円)
- ・中国上海市留学センター提携校

1993年10月生募集中



● 学生寮あり

☎ 03-3770-6071

〒153 東京都目黒区大橋1-7-10(渋谷より15分)
平成2年度文部省日本語教育研究協力校

日本語教育振興協会加盟校
新世界語学院

最優服務 最廉票價

・您的電話
是我們的榮幸

DISCOUNT AIR TICKETS

No.1 將使您的旅行得到最大的滿足

SEOUL (漢城)	¥ 29,500~
BEIJIN (北京)	¥ 81,000~
HONG KONG (香港)	¥ 57,000~
SHANGHAI (上海)	¥ 89,000~
BANGKOK (曼谷)	¥ 56,000~
TAIPEI (台北)	¥ 48,000~
LOS ANGELES (洛杉磯)	¥ 56,000~
NEW YORK (紐約)	¥ 87,000~

● MON.~FRI
9:30am~6:00pm
● SAT.
9:30am~3:30pm

・(價錢可商量, 簽證問題可商量) 可用中國語、英語、泰語、世界各國語來電話



TEL (03) 3366-2481
FAX (03) 3366-1018

筑波は父と行った。
テジョンは、友と行く。



三村賢太、18歳。筑波科学博を見たのは彼が小学生のときだった。
はじめて目にする最先端の科学技術。人間ってなんだか凄いな、という感動が小さな胸に刻まれた。あのときの少年は、いま大学一年生。
科学はどこまで到達したか。技術はどこまで成熟したか。1993年、韓国の地で開かれるテジョン世界博覧会。
「新しい跳躍への道」を、賢太は自分の目で確かめに行く。21世紀の地球を担う、未来世代の一員として。

EXPO '93 TAEJON, KOREA

□テーマ/新しい跳躍への道 □サブ・テーマ 伝統技術と現代科学の調和・資源の有効利用とリサイクル □
□開催地/大韓民国大田直轄市大徳研究団地道竜地区 □主催/大田世界博覧会組織委員会 □

1993  8/7  11/7 

